

국통 73-6-143

大學生의 統一意識의 診斷과

보관용 改善에 관한 研究
(관리과)

(示範大學 運營 結果報告)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10.

研究員：責任者 文 봉 관

目 次

I . 序 論	3
1 . 研究目的	3
2 . 研究의 内容	4
3 . 研究의 方法 및 節次	5
4 . 進行計劃	11
II . 實驗을 위한 統一教育 課程의 構案	12
1 . <u>大學의 統一教育 目標</u>	12
2 . 統一教育의 目標과 指導內容 및 教授計劃	14
III . 結果分析 및 討議	107
1 . 實驗結果의 全体的 傾向	107
2 . 特殊問項 分析	113
3 . 學校級別 比較	162
IV . 結論 및 提言	165
1 . 結 論	165
2 . 提 言	166
<附 錄>	169
I . 國民學校에 對한 實驗教育 結果	171
II . 中等學校 實驗教育結果	189

I. 序 論

大學에서 統一에 대비한 教育은 政府樹立以後, 時代에 따라 差異는 있었지만, 어느 教育活動보다 關心을 가지고 強調되어 왔다. 그러나 最近 世界情勢의 急變과 南北關係의 變化로 말미암아 現在까지 실시해온 統一教育을 再點檢하고, 이에 따른 問題點을 탐색하여 새로운 方向에서 統一教育의 改善方案이 摸索되어야 할 段階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時代的 要請에 호응하여, 共產主義의 正體를 올바르게 알아 批判할 수 있고 民主的 力量을 기르며 民族文化의 傳統에 대한 긍지를 갖어, 國際情勢에 能動的으로 適應할 수 있는 態度和 統一에 對處한 우리 的 使命을 아는, 統一意識의 培養이 絶對적으로 必要하게 되었다.

1. 研究目的

本 研究의 目的은 現行 教科課程에 의한 大學에서의 國民倫理 教育 效果를 綜合 分析하고 統一教育「프로그램」에 의한 教育의 實施와 그 結果를 통한 效果를 檢討하여 大學에 대한 統一教育 政策研究의 資料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本 研究가 試圖하는 具體的 目的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現行 大學에서 實施하고 있는 國民倫理 教育의 效果를 綜合적으로 診斷 分析한다.

둘째, 特히 오도되고 있는 反共教育의 內容이 무엇인가를 診斷하

여 그 改善策을 강구한다.

세째, 地域 및 性別로 知的 情意的 態度를 分析한다.

네째, 새로운 統一教育 內容 및 教科構成을 構案한다.

다섯째, 統一教育의 效果를 地域別, 性別, 出身學校別로 分析한다.

여섯째, 教育效果 增進에 기대되는 教育方法을 開發한다.

일곱째, 大學에 있어서 思想教育의 問題點을 도출함으로써 統一教育 改善策을 강구한다.

2. 研究의 內容

本 研究의 內容을 크게 다음 3 가지로 나누어 研究를 進行시키고자 하는바 그 內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現行 反共教育의 內容과 그 效果 診斷

(1) 大學의 國民倫理의 目標와 內容分析

(2) 國家觀, 民主主義 우월성, 共產主義 批判能力, 國際情勢 統一을 위한 國民의 使命等 6 가지 領域에 걸쳐 大學生들의 理解度를 分析 比較한다.

(3) 各 領域에 對한 知識, 態度, 批判能力等 各 行勳 特性別 反共教育의 效果를 檢證한다.

(4) 地域別 反共意識을 測定한다.

(5) 性別, 出身學校別, 國家意識, 民主信念, 共產主義 批判能力等을 도출한다.

(6) 統一교육과 反共教育의 興味度를 診斷 比較한다.

(7) 오도된 反共教育 內容의 原因 分析을 한다.

둘째, 統一教育課程 構案

- (1) 統一教育 目標를 정립 한다.
- (2) 統一教育 과정에서의 취급될 教授內容을 設定한다.
- (3) 教授內容 및 學習資料를 構案한다.
- (4) 効果的인 教授方法을 構案한다.
- (5) 構案된 教科課程의 實施와 그 效果를 評價한다.

셋째, 統一教育 效果檢證

- (1) 領域別로 比較學級과 實驗學級과 比較하고 그 向上度를 測定한다.
- (2) 오도된 反共教育內容의 교정도를 測定한다.
- (3) 行動特性別 教育效果를 評價한다.
- (4) 出身地別 教育效果를 比較한다.
- (5) 性別 教育效果를 比較한다.
- (6) 教育 興味度の 向上度를 測定한다.
- (7) 問題點을 도출하고 그 改善 方向을 진술한다.

3. 研究方法 및 節次

現 大學의 國民倫理의 教育目標와 內容 그리고 效果를 評價하기 위하여 質問紙에 의한 反共教育實態를 調査하고 그에 基礎하여 統一教育課程을 構案 實施하여 이를 다시 效果 評價節次를 거쳐 比較 및 實行集團과를 比較한다. 이를 具體적으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가. 現行 大學 國民倫理의 現況分析 및 效果診斷

(1) 표 집

統一教育 實施를 위하여 그 教育 對象으로 다음과 같이 選定하였다.

대상지역	학교명	비교학급	실험학급	계
도시	서울교대	1 (40)	4 (160)	180 명
해안, 접적	인천교대	2 (80)	5 (200)	280 명
산간, 접적	춘천교대	1 (40)	3 (120)	160 명
3 지역	3 개 교	4 (160)	12 (480)	640 명

(2) 道 具

大學 國民倫理중 反共教育에 관한 理解, 態度, 批判能力을 診斷評價하기 위하여는 國土統一院에서 만든 統一教育教授指針書에 명시된 目標를 中心으로 製作하였다.

即 傳統文化, 民主主義, 共產主義, 國際情勢, 統一問題 및 國民의 使命 등에서 各 內容마다 知識, 態度, 批判能力等 3 가지 行動特性이 고르게 包含되도록 다음과 같은 評價問項을 作成하였다.

영역 \ 특성	개념, 지식	가치, 태도	비판능력	계
전통문화	10	5	5	20
민주주의	10	5	5	20
공산주의	10	5	5	20
국제정세	8	6	6	20
통일문제및 사명	10	5	5	20
계	48	26	26	100

(3) 資料處理 및 分析 (1, 2 次 評價, 共通)

資料處理는 問項別 정오답을 채점하고 問項別 빈도를 추출한 後 다음 分析 要領에 의거 資料處理를 하였다.

- (가) 領域別 比較
- (나) 男女別 比較
- (다) 行動特性別 比較
- (리) 오답에 대한 要因分析
- (마) 職業別
- (바) 地域別
- (사) 出身學校別 比較
- (아) 全体 向上度 等

나. 統一教育課程의 構案 및 實驗教育實施

統一教育課程의 構案에 있어서는 종선까지 實施해 오던것을 참조하되 統一教育指針을 大學 1學年 水準으로 年안 교안및 教材를 作成하였으며 이를 領域別로 다음과 같이 作成하였다.

(1) 統一教育課程 構成 目標 및 內容

영역	목표	내용	강좌
전통문화	1) 단일민족임을 인식 2) 민족과 국가에 대한 긍지 3) 국가발전과 개인의 발전은 일치	1. 민족의 형성 2. 민족의식과 국가의식 3. 근대적 국가주의 4. 민족문화의 계승 5. 외래문화의 수용 6. 전통사회의 가치관	5
민주주의	1) 민주주의 본질 이해 2) 민주주의 우월성 신념 3) 민주적 생활태도 4) 한국민주주의 토착화	1. 민주주의의 본질과 제도 2. 민주주의의 발달 3. 한국민주주의 성격 4. 민주적 생활양식 5. 한국적 민주인상	5

영역	목표	내용	강좌
공산주의	1) 공산주의 본질과 정체, 비판능력 2) 북한 현실과 악 3) 한국의 우월성 인식	1. 공산주의 발생의 배경 2. 공산주의 철학 3. 공산주의 정치이론 4. 공산주의 경제이론 5. 공산주의 이론변천	10
국제정세	1) 국제적 상황에서 한국의 좌표 인식 2) 공산주의 전략전술 이해 3) 도전, 극복, 신념배양	1. 전후 국제정세의 변천 2. 국제정세와 한반도 3. 우리의 좌표 4. 공산주의 도전 5. 북한의 대남전략	8
통일문제와 사명	1) 민주통일과 우리의 길 2) 통일주도역량 배양의 필요성 인식 3) 국민의 사명과 태도	1. 한국의 분단 2. 우리의 통일정책 3. 북한의 통일전략 4. 우리의 대비책 (남북대화) 5. 국민의 사명	8

2) 教育實施

이 實驗을 위해서 選定된 實驗對象에 대하여 國民倫理 担当教授가 共同 교안 및 教材에 의거 통제된 內容의 教育을 36 講座 實施

하였다.

이를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절차	월 주	3					4					5					6					7		8	9	10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18 ~ 20	
사 전 점 사																											
교 사 훈 련																											
수 업																											
전 통 문 화																											
민 주 주 의																											
공 산 주 의																											
도 전 명																											
사 형 성 평 가																											
사 후 점 사																											

다. 事後檢査

事後檢査는 統一教育 實施後 總評價로서 一次評價問項을 그대
로 比較 및 實驗教育 對象에서 實施하고 그 同上度를 一次
檢査時의 分析 要領에 의거 評價하였다.

4. 進行計劃

자 1973. 3 }
 지 1973.10.31 } 7개월간

기 간 계획내용	기 간							
	3	4	5	6	7	8	9	10
1) 실시 계획	—							
1) 교안 } 2) 교재 } 작성		—						
2) 1 차 평가	—							
3) 결과 분석		—						
4) 중간 보고서			—					
5) 교육 실시								
6) 2 차 평가							—	
7) 분석								—
8) 보고서 작성								—

II. 實驗을 위한 統一教育課程의 構案

1. 大學의 統一教育 目標

本 研究에서 構案한 統一教育課程은 國土統一院에서 制定한 統一教育 教授指針書에서 提示한 教育目標와 內容을 中心으로 大學教育에서 取扱해야 될 教育目標를 抽出構案하였으며, 이 統一教育 目標를 大學水準에서 教授해야 할 教授內容을 선정하고 授業計劃을 세웠다.

가. 傳統文化

(1) 單一民族의 共通된 民族文化를 通해 民族的 獨立心과 文化的 獨創性이 強하게 지속되어 왔음을 理解한다.

(2) 主体性없는 外來文化의 受容과 民族文化 내지 民族性에 對한 自學적 논의를 批判한다.

(3) 國家와 民族의 융성이 個個人의 幸福을 追求하는 것과 불가분의 關係가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서 國家와 民族의 發展에 參與하려는 態度를 기른다.

나. 民主主義

(1) 民主主義 本質의 理解와 그 理念이 人間性의 발현에 어떻게 關聯되고 있는가를 理解한다.

(2) 民主的 理念의 發達過程을 理解한다.

(3) 民主的 理念의 土着化를 위한 條件과 그 方案을 認識한다.

(4) 韓國民主主義의 土着化에 積極 協力하는 태도를 기른다.

다. 共產主義

- (1) 共產主義의 正體와 그 理論의 矛盾性을 理解하고 批判한다.
- (2) 北韓의 現實을 理解하고 民主主義의 優越性과 韓國의 優越性을 確信시킨다.

라. 國際情勢

- (1) 國家生活의 國際性과 韓國의 國際的 位置를 認識시킨다.
- (2)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써 韓國의 役割에 對한 自負心을 갖게 한다.
- (3) 國際社會에 能動的으로 適應하는 能力을 培養한다.
- (4) 周邊情勢의 理解와 10月維新의 意義를 認識하여 우리의 座標를 터득케 한다.

마. 統一問題와 우리의 使命

- (1) 國土分斷의 背景을 理解함으로서 外勢에 依한 分斷임을 理解케 한다.
- (2) 韓國의 統一政策과 統一을 위한 努力을 알고 앞으로 이에 積極 協助하는 態度를 기른다.
- (3) 北韓의 統一戰略을 批判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른다.
- (4) 유엔과 韓國統一과의 關係를 알고 앞으로 國際的 地位向上을 위한 國民的 態度를 培養한다.
- (5) 10月維新의 必要性和 國民의 姿勢를 定立한다.
- (6) 無分別한 統一論議의 問題點을 알고 國論統一의 必要성을 認識케 한다.

2. 勝共統一教育의 目標와 指導內容 및 教授計劃

가. 傳統文化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 - 學習活動
1	<p>① 單一民族으로서의 統一國家를 이룩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 歷史的 事實을 通해 이해한다.</p> <p>② 國家分斷에 依한 民族分斷의 不當性을 비판하고, 國家統一에 依한 民族統一의 절박성을 깨달는다.</p> <p>③ 國家統一과 民族統一을 위한 政府의</p>	<p>1. 民族의 形成</p> <p>가. 民族의 개념</p> <p>1) 民族의 本質을 規定하는 根本要素</p> <p>① 主觀的 要素說 : 精神, 感情意識, 意志 등의 心理的契機 - 民族感情, 民族意識</p> <p>② 客觀的 要素說 : 血緣, 地域, 言語, 文化, 運명의 共同体</p> <p>自然的要素 - 血緣, 地域</p> <p>社會的要素 - 言語, 文化</p> <p>③ 共產主義者들의 民族定義 : 言語, 地域 經濟生活 및 文化 및 文化의 共通性속에</p>	<p>○ 教授의 판서 및 說明, 討論</p> <p>○ 學生의 發表 討論, 課題</p> <p>○ 共產主義者들의 民族定義 중 크게 잘못된 점을</p>

次 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 - 學習活動
	<p>政策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態度를 기른다.</p>	<p>자라나는 心理狀態의 共通性을 基礎하여 歴史的으로 구성되는 확고한 共同体 血緣, 種族無視</p> <p>2) 民族의 概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血緣共同体 ○ 地緣 " ○ 文化 " (血緣↔文化) ○ 歴史的 運命共同体 <p>※主觀的, 客觀的要素의 調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主義, 民族意識, 國家觀의 同化運動 民族과 國家 <p>나. 民族의 形成基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람과 群棲生活 2) 人間은 原始관계로 부터 本能的으로 血緣관계로 뭉쳐진 一定한 種族的 單位로 살았다. 	<p>學生으로 하여금 發見케 하고, 이의 모순성을 강조, 說明</p> <p>民族의 概念을 통해서 學生들로 하여금 民族의 共同運命體로서의 存在임을 討論에 依해 周知시킨다.</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 - 學習活動
		<p>3) 新石期 時代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 → 血緣中心社會 ○ 協同을 中心으로 하는 共同体 ○ 民族會議 - 氏族長 <p>나) 古朝鮮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部族社會 - 家父長的 ○ 檀君神話 : Totemism 태양숭배 天君思想 <p>다) 三國時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部族國家의 形態 部族연맹 ○ 고구려, 백제, 신라 <p>※三國은 판도, 풍속이 같으면 서 동일 종족간의 國家意識 을 달리했다. →三國간의 충돌 다. 民族統一의 進展</p> <p>1) 第一期 (신라 통일시대) :</p> <p>民族統一</p> <p>가) 單一民族形成의 기반을 이용해서 民族國家 形成</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 - 學習活動
		<p>나) 고구려의 統一에의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學校設立 大學, 書堂 國家的 人材養成, 文武의 訓練 忠, 孝, 信의 教育 ○ 장수왕의 남하 정책 ○ 國民皆兵制 - 군사훈련 <p>다) 新羅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랑制度 - 文武검비의 연간 忠, 孝, 信, 勇, 寬 ○ 지배 계급의 영토욕, 권력욕, 지위욕 - 통일에의 부채질 ○ 당의 추출 <p>2) 第2期 (고려시대) :</p> <p>民族意識 대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後三國의 건립과 왕 	<p>다음과 같은 책을 소개해 주고 읽어 발효케 한다.</p> <p>① 李基白, 民族과 國家, 一潮閣, 1971</p> <p>② 조지훈, 한국文化史 서설, 탐구당, 1964</p> <p>③ 진난학회편, 한국史, 을유문화사, 1959</p> <p>-65</p> <p>④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 - 學習活動
		<p>건의 재통일</p> <p>○傳統속에서 새로운 사회질서 수립 新羅社会계승, 독창성 과 자주성 발휘</p> <p>○太祖+訓要: 自主的 民族觀</p> <p>※民族을 의식하고 국가건립</p> <p>○단군신화를 통한 民族 단결과 민족의식 고취</p> <p>三別抄의 산, 공민왕 의 배원 정책 → 主權 회복을 위한 士丈夫 의 進出 → 봉고의 글 레를 벗어나려는 新 進 세력</p> <p>3) 第3期 (李朝) :</p> <p>近代的인 民族의 形 成</p> <p>○血緣意識이 바탕이</p>	<p>閣, 1969</p> <p>⑤ 국민사상지 도원, 國史上 으로 본 우 리의 지도이 념, 국민사상 지도원, 1952</p> <p>⑥ 역사학회편, 한국사의 반성 을유문화사</p> <p>⑦ 고대민족문 화연구소, 한 국문화사 대계 I, 1964</p> <p>⑧ 李瑄根, 화 랑도 연구, 해동文化社, 1950</p>

次 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 - 學習活動
		<p>된 民族文化 결실</p> <p>○ 정치적 판도와 종족적 혼합에 있어서 최종적인 선을 그어 자연관계를 완성하고 다시 역사적, 문화적으로 오늘의 한민족의 전형을 이루어 놓음.</p> <p>○ 民主的要素 → 신문고, 議政府 등</p> <p>○ 二大外侵 : 義兵, 승병</p>	
2	<p>① 우리의 歷史에서 民族意識과 國家意識이 동일시 되어온 과정을 이해한다.</p> <p>② 國家와 民</p>	<p>2. 民族意識과 國家主義</p> <p>가. 韓國人의 民族意識 朝鮮心 : 한국인은 民族意識이 強함. 民族感情</p> <p>나. 民族意識의 붕아와 國家의식의 동일시과정</p> <p>1) 民族意識의 붕아</p> <p>① 三國時代</p>	<p>○ 예를 들어 한국인이 민족의식이 강함을 설명</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 - 學習活動
	<p>族을 뒤로하고, 개인을 앞세우는 行動을 비판할 能力을 기른다.</p> <p>③ 國家와 民族의 一員으로서의 個人을 자각케하여 전체와 조화하려는 態度를 기른다.</p>	<p>○ 민족의식은 自然的 조건과 生活文化동의 기반위에서 배양되어 잠재적으로 성장하였고, 아직 하나의 民族이라는 공동의식은 없었다.</p> <p>즉 人種的, 文化的으로 동일체통이었으나, 제가끔 民族을 이루려는 별개의 집단 의식으로 뭉쳐짐.</p> <p>② 統一新羅時代</p> <p>三國의 지역적, 別연적 문화적 민족정신의 계승으로 단일적 민족형성의 원류를 이루고, 민족의식이 싹틈</p> <p>2) 고려時代:</p> <p>「神話에 대한 인식」</p> <p>○ 단군신라와 주봉을</p>	

次時	目 標	教 授 内 容	教授 - 學習活動
		<p>결부시켜 단군을 한 민족의 시조로 추대하여 민족독립정신과 통일외식상징 : 역사적 독립성 강조</p> <p>○光宗, 崔承老, 서희, 강감찬, 尹璣 등의 史實 : 고려가 對外的으로 도전을 받음으로써 국가의식이 싹틈 : 민족감정의 발로</p> <p>3) 李朝時代</p> <p>① 유학의 國家意識</p> <p>○유학의 根本德目一孝와 忠 國家意識의 基底</p> <p>○死六臣, 生六臣, 義兵</p> <p>② 實學파의 國家意識</p> <p>○自主精神 - 자기힘으로 자기생활</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 - 學習活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의 主体意識 - 沒民族 精神 각성 ○ 民族의 歷史中止 ○ 民族文化育成 ○ 民本精神 <p>다. 近代的 民族國家意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國土守保를 위한 투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外抗爭 - 國土수호를 위한 주체세력 - 총동원된 민족 2) 開化思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外勢의 침투에 대한 國家위기 의식 → 전 민족의 자각이 높아짐 ○ 自主開化 → 富國自強의 意識 3) 東學運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말의 타락과 부패 - 國家와 민족을 건짐의 세침입에 대한 민족의 자각 	<p>참고서</p> <p>①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현, 한국학, 현암사, 1972</p> <p>② 유형진, 敎育과 主体性, 敎育社, 1968</p>

次 時	目 標	教 授 内 容	教授 - 學習活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乃天思想 ○ 合其德의 윤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全体의 個体 自体의 他体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 조화 ○ 民族의 自主的 主体性 ○ 民衆思想 4) 獨立協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主獨立思想과 自由民主主義 思想을 고취하여 民衆계몽, 獨立신문 ○ 民權運動 ○ 정부에 대한 近代化 촉구 ○ 獨立運動 슬로건 - 忠君愛國과 利國保民 5) 抗日투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항쟁의 주동세력 - 유림, 東学徒, 지식인, 기독교청년, 민족의식을 자각한 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이규호, 社會化의 主体性 益文社, 1972 ④ 최현배, 나라 건지는 교육, 정음사, 1963 ⑤ 안호상, 민족의 주체성과 화랑열, 배달문화연구원, 1967 ⑥ 한기연, 한국 교육사, 박영사, 1963 ⑦ 오천석, 한국 신교육사, 현대 교육 총서출판사, 1964 ⑧ 오천석, 민족 중흥과 敎育, 현대 교육총서출판사, 1963 ⑨ 메켄지저,

次 時	目 標	教 授 内 容	教授 - 學習活動
		<p>○ 3. 1 운동 광주학생 운동</p>	<p>이광린역, 한국독립운동 — 潮閣, 1970</p> <p>⑩ 孫晉泰, 한국 민족사개론, 을유문화사, 1954</p>
3	<p>① 民族文化의 單一性과 그 특수성을 이해한다.</p> <p>② 主体性 없는 (民族文化에 근거하지 않은) 外来文化의 受容을 비판할 수 있다.</p> <p>③ 文化民族으로서의 긍지불 바탕으로 民族文化 創造에</p>	<p>3. 民族文化의 계승과 外来文化의 受容</p> <p>가. 民族文化</p> <p>① 文化의 意味</p> <p>② 民族文化, 固有文化, 韓國文化</p> <p>○ 民族文化 : 言語, 관습 제도가 文化의 共同體로써 장기간 전승되어 오는 동안에 外来文化의 수용, 同化도 있었고, 시행착오로 거듭하면서 自然的 환경의 영향을 받아</p>	<p>○ 비록 정치적 정복을 받았을 경우라도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한 무슨 형태로든지 藝術文化상에 민족성을 간직함을 강조</p> <p>○ 민족문화의 전통은 창조 정신 그 자체에 있는</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 - 學習活動
	<p>적극적으로 공헌하려는 態度를 기른 다.</p>	<p>이에 応式하는 사이 에 共通된 生活感性 이 생겨나서 民族의 체취를 풍기게 된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固有文化 - 민족적표현 : 固有性강조, 민족文 化의 主류 ○ 韓國文化 : 民族文化의 現在性 <p>③ 민족문화 육성의 필 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문화의 발전은 즉 민족적 성장의 발현이다. 그러므로 민족문화는 민족의 단결심을 양양한다. ○ 민족문화는 그 국민 의 정서적 바탕을 이루는 것으로써 민 족의 장래는 민족문 화 발전의 방향 	<p>것임을 강조</p>

次時	目 標	教 授 内 容	教授 - 學習活動
		<p>위에 定置시켜야 한다.</p> <p>나. 韓國文化의 特性</p> <p>① 한국문화는 하나의 統一性을 갖고 있다. 單一 民族에 依한 共通된 心理가 작용</p> <p>② 韓民族은 外來文化를 土着化시키는데 탁월한 역량을 보여 주었다.</p> <p>③ 한국문화는 농업적 성격이 多分히 오래 지속되었다. 韓民族의 心理에 全원적인 것이 지배</p> <p>④ 한국문화는 大衆과 호홉하는 성향을 띄우고 있다.</p> <p>⑤ 韓國文化는 직접적인 인간관계 즉 家庭윤리를 기초로 國家意識으</p>	<p>○ 한국문화의 연면성을 학생 스스로 발전하도록 한다.</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 - 學習活動
		<p>로 확대 되었다.</p> <p>⑤ 韓國文化는 精神史에서 종교의 영향을 계속적 으로 받아왔다.</p>	
4		<p>다. 各時代의 文化相 : 三國 이래 우리 들에게 남겨준 문화적 유산에 담겨져 있는 民族의 文化的 創 造力은 여러 面에서 독 자성을 보여주고 있다.</p> <p>① 三國時代 : 民族意識은 아직 형성되지 않아 三國이 서로 다른 국 가의식을 가지고 있었 다 하더라도 文化面 에서 공통된 점이 있 었고, 民族文化, 單一文 化로 승화시킬 준비를 서두르는 時期</p> <p>② 統一신라 : 民族文化를</p>	<p>○ 各時代를 거 쳐 오늘날에 이른 民族文 化 形成의 과정을 설명</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 - 學習活動
		<p>하나로 집대성한 時期</p> <p>③ 고려시대 : 고려자기, 대장경, 금속활자</p> <p>④ 조선 : 민족문화의 확립</p> <p>다. 民族文化의 創造와 외래文化의 受容</p> <p>① 民族文化와 創造精神 : 民族文化는 한국의 自然과 傳統위에서 올라온 것으로 創造정신을 바탕으로 노력의 결정</p> <p>② 凹型文化</p> <p>후진국에 있어서 고유 사상과 문화가 결핍된, 구미사상과 文化에의 맹종현상이 이루어낸 문화, 부풀어 오른 구미사상과 문화의 압력에 의하여 고유의 것</p>	<p>○ 다음과 같은 책을 소개해 주고 발표케 한다.</p> <p>① 金得恍, 한국사상사, 남산당, 1963.</p> <p>② 高大민족 문화 연구소, 한국문화사 大系 (철학, 종교), 1970</p> <p>③ 손인수, 한국인과 교육사상 教福祉, 1969</p> <p>④ 유동식, 한국종교와 기독교, 대한 기독교서회,</p>

次 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 - 學習活動
		<p>이 바깥 오므려든 데서 생겨남</p> <p>한국의 오늘의 文化는 U型이 아닌지</p> <p>③ 외래문화의 受容狀態 : 한국인의 휴머니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古代의 文化受容 ○ 신라와 불교 ○ 조선과 유교 	<p>1965</p> <p>⑤ 崔眩淇, 한 국윤리사상사, 성문사, 1971</p> <p>⑥ 한기연, 한 국교육사상사 연구, 서울大 學校 출판부 1969.</p> <p>⑦ 金貞培, 한 국민족文化 기원 高大출판 부.</p>
5	<p>① 韓民族의 전통적 가치 관이 무엇이 며, 그것이 形成되어 온 과정을 이해 한다.</p>	<p>4. 전통社會의 가치관 가. 價値觀과 文化創造</p> <p>1) 傳統的 가치와 文化 創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傳統위에 외래文化의 同化 즉 전통과 개 혁의 조화 	

次 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 - 學習活動
	<p>② 植民主義가 남겨 는 왜곡된 한국민족성에 대한 논의를 비판할 수 있다.</p> <p>③ 전통적 가치관과 개혁적 가치관이 조화된 가치관을 자기 의 가치관으로 하려는 態度를 기른다.</p>	<p>○傳統的 價値觀은 異文化 受容에 있어 선택 主体로서의 역할-뒤에 숨어서 한국문화를 育成시켜준 정신적 구조</p> <p>○文化創造는 전통적 가치의 긍정과 부정 위에 성립</p> <p>2) 民族的 價値觀: 行動의 目標와 樣式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성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적 개념 → 인간의 모든 행동 규제</p> <p>○민족적 영광관: 민족의 공통적인 의식구조가 형성의 바탕</p> <p>○민족적 집단가치관의 형성</p> <p>나. 韓國의 民主的 傳統</p> <p>1) 傳統: 오랜 세월을</p>	

次 時	目 標	教 授 内 容	教授 - 學習活動
		<p>두고 한 民族이 쌓아 올린 경험의 누적물로 社会的, 정신적 시책이 된다.</p> <p>○ 전통은 歴史的으로 生成 되 살아있는 과거이지만 현실의 가치관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p> <p>○ 민족주체성을 민족전통 의 발굴에 의해서</p> <p>2) 「韓의 思想」 : 「한」 의 마음</p> <p>① 모든 것은 「한」 속에 용납 그리고 외래문화의 소화, 종교</p> <p>② 종합지양</p> <p>○ 獨創的, 主体的인 文化創造 그리고 불교, 性理學, 禪道</p> <p>③ 현실에의 책임있는</p>	

次 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 - 學習活動
		<p>참여와 조류 (멋)</p> <p>그리고 불교, 유교, 동학</p> <p>3) 한국의 民主的 傳統</p> <p>① 한국 교육의 전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孝의 思想 ○ 政治思想 ○ 송문思想 ○ 人間 존중思想 ○ 근검思想 ○ 숭례思想 <p>② 한국 휴머니즘의 발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聖君의 愛民, 賢者의 至治主義 聖君의 忠義 ○ 수양, 극기, 학구 ○ 民衆教化, 至誠수행 <p>③ 한국의 민족사상의 전개 - 人間 존중사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익인간사상을 비롯한 人間유치의 	<p>참고 문헌</p> <p>①한기 언, 한국교육의 민족적 전통 동아출판사</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 - 學習活動
		<p>思想</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의 자비 ○ 유교의 仁 ○ 실학의 실용적 민본주의 ○ 동학의 人乃天思想 ○ 기독교의 사랑 ○ 敬의 思想 <p>孝誠公實勤信</p> <p>다. 한국인의 民族性 과 비 관적 민족성 비판</p>	<p>1971</p> <p>② 한기연, 한국교육의 이념, 서울대학교 출판부</p> <p>1969</p> <p>③ 홍승직,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高大아세아문제연구소, 1969</p>
		장 점	타락한 경우
		<p>人情性 (뜻) 敬</p> <p>觀照性 < 孝 誠 ></p> <p>觀照性 < 公 實 ></p> <p>雄健性 < 勤 信 ></p>	<p>形式性 > 둔감성</p> <p>난잡성</p> <p>간교성 > 잔인성</p> <p>질투성</p> <p>번의성 > 주저성</p> <p>의타성</p>
		<p>※ 식민지주의가 가져온 외로운 의로 적인 비관적 민족성 강조</p>	

次 時	目 標	教 授 内 容	教授 - 學習活動
			<p>④ 고려서적 주식회사, 새 한국의 가치 관, 1968</p> <p>⑤ 金泰吉, 새 로운 가치관 의 지향, 一潮閣, 1964</p> <p>⑥ 윤태림, 한 국인의 성격, 현대교육총서 출판부, 1964</p> <p>⑦ 玄相允, 조 선유학사, 민중서관, 1960</p>

나. 민주主義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1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그 理解	<p>1. 基本理念</p> <p>가. 自治 : 人間 존엄성의 源泉이다</p> <p>나. 自治를 可能케 하는 條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內的條件 自意識的인 人間 ○ 自由와 平等과 같은 基本權의 保障 <p>다. 自治에도 多樣한 水準이 있다 : 個人的인 自治인 人格의 自律性和 國家社會의 自治인 民族自決이 있다. 國家水準의 自決이 完成된 以後 個人水準의 自治가 開發되었음을 주시킨다</p>	국민유리, 삼화출판사
2	民主的 理念의 發達過程	<p>2. 發達過程</p> <p>가. 古대 그리스의 民主主義와 그 時代의 市民權 개</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념을 소개한다. 即 市民權에 노예는 除外되었음을 주의한다.</p> <p>나. 中世末에 絶対君主의 登場 背景을 說明한다. 特히 Machiavelli 와 Bodin 을 소개한다.</p> <p>다. 市民階級의 成長 : 이들의 要求로 主權制限의 理論이 登場함을 說明한다. 即 民主主義는 公權力의 制限에 그 첫 目標가 있음을 주의한다.</p> <p>라. 個人의 自由와 權利를 確認하기 위하여 登場한 社會契約論을 說明한다.</p> <p>마. 産業革命의 高度化로 여러 社會 問題가 登場함으로써 公權力의 制限보다는 복지社會의 實現이 強調된다. 따라서 民主主義도 權力制限이라는 形式的인 面</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보다 그 내용이 強調되는 傾向이 있게 된다.</p> <p>바. 이것은 民主主義란 固定된 것이 아니라 國家社會의 課題에 따라 相異한 變遷을 거듭해 왔음을 뜻한다.</p> <p>英國의 民主主義 } 매우 프랑스의 民主主義 } 相異 美國의 民主主義 } 하다</p> <p>사. 民主主義는 自治領域의 확대 과정이었다. 따라서 民主主義를 위해서는 自治를 可能케 할 能力의 함양이 先行되어야 한다.</p> <p>이점에서 敎育, 빈부의 차이제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등이 重要한 條件으로 등장한다.</p>	
3	後進民主主義와 土着化	3. 後進國 民主主義의 當面課題	차기역 : 근대화 정치론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가. 民主主義 : 西歐風土의 產物</p> <p>나. 獨立運動過程에서 後進 國은 거의 例外없이 民主方式導入</p> <p>다. 一般國民 : 自治能力의 結 果</p> <p>라. 그러나 福祉國家 理想의 普及으로 現實보다 앞선 期待가 存在하는데서 現實과 理想間의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따라서 社會不安이 造成된다</p> <p>마. 따라서 後進國은 여하히 民主主義를 위한 조건을 形成하느냐 하는 問題와 그 現實에 맞는 制度의 變容에 關心을 갖게 된다. 이러한 過程에서 土着化 問題가 提 起된다</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5	維新憲法과 韓 國民主主義	<p>5. 個人的 自律的 生活을 위해서는 國家의 自立이 前提條件이다.</p> <p>가. 韓國의 現實</p> <p>1) 産業의 未發達</p> <p>2) 南北의 對立</p> <p>3) 국제정세의 變모등으 로 韓國의 장래를 우 리의 힘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국 력을 배양해야 한다</p> <p>나. 國力の 配양을 위해서 는 國家資源이나 노력을 낭비할 수 없다. 가능한 한 최대의 能률을 이룩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직화해 야 한다</p> <p>다. 韓國民主主義는 民主的 理想의 變容이 아니라 그것을 앞당겨 實現하자 는 韓國 國民의 意志의</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産物이다.</p> <p>라. 이러한 意志의 制度的 實現이 維新憲法이다</p>	

다. 共產主義 批判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1	<p>共產主義 發生의 背景을 批判</p> <p>○ 共產主義 發生의 時代的, 政治的, 思想的 背景</p>	<p>1. 時代的 背景</p> <p>1840 年代 - 産業과 政治革命 進行</p> <p>가. 經濟的 面 :</p> <p>1) 1769 아크라이트 (Richard Arkwright) 의 방직기 發明, James Watt 의 증기기관 發明 : 農村生活 붕괴 → 手工業者 都市로</p> <p>2) 公有地를 私有地化하는 法令 → 失鄉民</p> <p>○ 農民과 手工業者 → 貧民階層 形成</p> <p>○ 産業革命으로 利得을 本 新支配階級</p>	<p>① 公산주의 이론과 실제 한국반공연맹 pp. 13 - 16</p> <p>② 백상건, 국민윤리 - 공산주의 정치이론 비판 - 1972. pp. 11 - 20</p> <p>③ 동화문화사 편, 국민윤리, 국민윤리교재 연구 (1973)</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著書에서 論議言及</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財産의 共同所有→1516 「토마스모어」理想国에서 記述 ○ 財貨의 生産이 社会全体에 의하여 관리→190初 「프랑스」「상시몽」, 「샤르르트리에르」에 의한 共產的 理想社会主張 「마르크스」思想的 源泉의 背景 ○ 「헤겔」의 3段階 변증법 과 「포이에르바라」의 唯物論→弁証法的 唯物史觀 ○ 「프랑스」를 中心한 空想的 社会主義理論→政治理論 (階級国家論, 暴力革命論 「프로레타리아」獨裁論) ○ 英國「아담스미스」, 「리카도」의 政治經濟學→經濟學 (勞動價值說, 剩餘價值說) <p>上記의 諸人의 思想을 綜</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합하여 새로운 体系樹立하였으나 그 理論은 矛盾명어리이다.</p> <p>3. 「마르크스」의 生涯: 1818 獨 「트리에르」에서 出生祖上→代代로 猶太教 牧師였다. 猶太教子孫→來世觀은 중요시하지 않고 現世의 平和, 幸福, 追求 自由主義者→共產主義者로 轉향 (「스피노자」, 「포이에르바하」, 「쌍시몽」, 「바뵈프」, 「토마스」, 「해밀톤」, 「포스빌」, 「오우엔」 「프리에르」 影響을 받음. 1841 「에나」大學→박사학위 1843 망명 1867 자본론 출판 1871 「파리콤문」실패 1883.3 별세 「파리콤문」의 失敗와 第一 International의 失敗는 「마르크스」를 실망시켰고 그</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의 허황된 꿈은 이루지 못하고 1883 죽고 말았다.	
2	<p>共産主義 哲学 의 矛盾을 理 解</p> <p>① 弁証法的 唯物論을 批 判</p>	<p>4. 哲学批判 가. 唯物論</p> <p>1) 概 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겔」→人類 및 세계의 歷史를 精神의 表現→精神의 發展過程 ○ 「마르크스」는 「헤 겔」의 弁證법을 逆用 →만물이 변화하는 기 초→物質的 環境으로 보았다 ○ 弁証法 3大法則 <p>① 量과 質의 法則→ 人類社会도 漸進的인 成長過程을 거쳐서 發展되는 것이 아니 라 突然한 飛躍에 의하여 表現된다는 것이 比喩를 革命이</p>	<p>한국반공연맹, 공 산주의 이론과 실제, 반공연맹, 1968.p.11</p> <p>김동훈, 공산주의 비판과 북한분석 형설출판사, 1973. pp.23- 44.</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라고 부르고 사회는 반드시 혁명을 거쳐야 발전한다고 봄</p> <p>② 矛盾의 法則→모든 사물, 現象은 自体内의 모순내포 분열 「마르크스」→참다운 現美的對立은 極과 非極, 人間과 非人間으로서 이 兩者는 서로 媒介할 수 없는 夾存의 差異라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 「부르조아 프로레타리아」라는 매개할 수 없는 對立物로 形成되었다고 봄</p> <p>③ 否定の 否定の 法則→原始共同 社會를 否定한 私有財産社會는 共產主義社會에 의하여 다시 否定된</p>	<p>최일은, 「마르크시즘」의 비판, 형설, 1973. pp.123-174</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다는것.</p> <p>「마르크스」資本論→ 觀念世界란 사람의 다수에 옮겨져서 改 造된 物質的 世界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라 주장</p> <p>2) 批 判 :</p> <p>① 量과 質의 法則→비 약과 革命을 同一視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p> <p>② 矛盾의 法則→人間의 思想은 論理上的의 矛盾 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만 自然이 나 歷史에 있어서 相 對되는 힘의 關係를 어떻게 論理上的의 矛盾 과 同一視할 수 있느 냐는 것이다.</p> <p>社會가 부단히 變化, 發展하는 것이라면 共</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② 史的唯物論 (唯物史觀) 을 批判</p>	<p>産社会도 그 自体内的 矛盾에 依하여 当然히 다른 社会로 發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共產 主義社会만은 永続된다 고 보는 것은 不条理한 理論이다.</p> <p>나. 史的唯物論</p> <p>1) 概 要</p> <p>가) 社会生活의 基礎로서 經濟的 生産關係를 下 部構造로 삼고 그것이 意識的, 精神的인 「이 데올로기」의 上部 構 造를 결정한다.</p> <p>나) 人間은 一定한 生産 力, 즉 生産道具와 生 産樣式에 適應한다.</p> <p>다) 下部構造의 變化는 上部構造의 變化를 일 으키게 한다.</p> <p>라) 生産力과 生産關係에</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따라서 人類社會은 歷史上 몇 단계로 발전한다.</p> <p>「마르크스」→生産様式을 基準으로 하여 原始共同社會→古代奴隸社會→中世封建社會→近代資本社會→社會主義社會→共產主義社會</p> <p>2) 批判: 社會的 生産力이 人力에 依存함이 크다해도 기계나 장비 시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生産手段을 만들어 내는 것은 人間의 精神力에 依해서가 아니라 物質力에 依해서 움직인다고 보는 것은 매우 皮相的인 것이다.</p> <p>“資本主義의 必然的 崩괴”란 「마르크스」주의는 공허(空虛)한 것이</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되고 말았다.	
3~5	<p>共産主義 政治 理論을 批判</p> <p>① 階級鬭爭論을 批判</p>	<p>5. 政治理論 批判</p> <p>가. 階級鬭爭論</p> <p>1) 概 要 :</p> <p>○ 「마르크스」→唯物論的 觀點에서 階級을 剩餘價値의 搾取 및 被搾取의 鬭爭關係로 把握하였다.</p> <p>○ 階級? →近代的 階級은 直接的으로 生産關係의 所有關係로서 나타나 對抗集團이다. 封建貴族, 有産階級, 小「부르조아」계급, 小農계급, 無産계급, 農奴계급으로 구분, 계급사이에는 經濟的, 經濟外的 要因에 의하여 相互利害의 對立이 생긴다고 보았다.</p> <p>○ 勞働者와 資本家사이</p>	<p>최일운, 「마르크시즘」의 비판 형설출판사, 1973. pp.324-374</p> <p>한국반공연맹,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 반공연맹, 1968. pp.59-70</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의 個別鬭爭 = 地域的鬭 爭 → 國內全般鬭爭 → 國際 的 規模의 鬭爭</p> <p>○ 계급투쟁을 통해 생 產手段을 資本家的 所 有에서 社会的 所有로 전 환</p> <p>○ 經濟的 투쟁을 輕視 하며 그것을 政權奪取 라는 政治투쟁으로 발 전</p> <p>2) 批判 :</p> <p>○ 階級間的 協力的인 面을 全히 排除, 無視 하는 一種의 煽動論이 다. 英國 → 자본주의 제 도에서 노출되는 폐단 을 시정 → 자본가, 노동 자對立, 解消 오히려 協力を 具顯하는 본보 기 보였음</p>	<p>김동훈, 공산주 의 비판과 북 한분석, 형설출 판사, 1973.</p> <p>국민윤리, 동화 문화사, 1973. pp. 46 - 67.</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② 國家論批判</p>	<p>○ 利益을 爭取키 爲해 無慈悲한 鬭爭만 있다 고 보는 것은 現實과 거리가 먼 思考方式이다</p> <p>○ 中間階層이 그들이 말하는 無產階級으로 轉落, 吸收되지 않고 오히려 富裕해지고 數 도 增大되고 있다.</p> <p>○ 共產主義者들은 자본 주의 체제의 전복을 혁명적 方法밖에 없다 고 믿었기 때문에 계 급투쟁에 대한 관심은 經濟的인 것이 아니라 政治的인 것이 었다.</p> <p>나. 國家(死滅)論</p> <p>1) 概 要 :</p> <p>○ 國家가 私有財産制에 따른 階級의 分化, 뒤 이온 階級的 支配의 組織的 道具로서 發生</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했다고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家란 支配階級이 被支配階級을 抑壓하고 擄取하기 위한 手段이라고 規定 따라서 착취와 피착취의 계급관계가 消滅되면 國家도 自然히 消滅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 <p>2) 批 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家發生要因中 唯獨 私有財産制度의 發生에 따른 階級의 分化에만 그 要因을 찾고 있는 것은 지나친 獨斷이다. ○ 國家의 本質은 階級 擄取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國家를 계급착취의 도구로만 보는 것은 國家의 存在 理由를 無視한 思考方式이다.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③ 暴力革命論 을 批判</p>	<p>○ 特定階級이 國家機能 을 独占한다고 主張하 나 이는 現代國家를 마친 貴族國家처럼 錯 覺하는 短見이다.</p> <p>다. 暴力革命論</p> <p>1) 概 要 :</p> <p>○ 그들은 革命의 原因 이 生産力과 生産關係 의 矛盾 및 衝突에 있다고 본다.</p> <p>「마르크스」에 의하면 革命은 階級鬭爭의 不 可避한 結果이며 혁명 적 變革없이는 새로운 社會가 誕生할 수 없 다는 것이다.</p> <p>○ 政治勢力으로 結束된 「프로레타리아」가 流 血의 暴力鬭爭을 통하 여 자본주의 社會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國</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가치계를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p> <p>2) 批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代의 先進 資本主義 國家에서는 適用될 可能性이 極히 稀薄한 點에서 批判을 면할 수 없다. ○ 普通 妥當性있는 政治理論이 아니라 特定 國家의 暴力革命을 合理化한 것에 不過하다. 폭력혁명론→정권탈취의 수단 	
6~7	<p>共産主義 經濟理論 및 理論의 變遷에 對하여 批判</p>	<p>6. 經濟理論批判 가. 勞動價值說</p> <p>1) 概 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商品이 一定한 價值를 가지는 理由는 商品의 生産過程에 있어서 人間의 勞動力이 	<p>김동훈, 공산주의 비판과 북한분석, 형설출판사, 1973. pp.69-78</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敎授活動資料
	<p>① 勞動價值說의 矛盾을 理解하고 批判</p>	<p>投入되기 때문이라 하여 勞動은 商品의 價値를 形成하는 實質로 把握하고 또한 商品의 價値를 測定하는 尺度라고 하였다.</p> <p>○ 勞動量은 勞動時間으로 測定하므로 商品의 價値는 그것을 生産하기 위하여 社会的으로 必要한 平均勞動時間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것이다.</p> <p>2) 批判: ○ 모든 商品 즉 經濟的 財貨의 價値는 投下된 勞動의 量에 달려 있다고 하나 異質勞動을 等質化하여 생각한 것은 不可能한 것이다. 勞動은 財貨나 用役의 供給을 決定한다는 한개의 要</p>	<p>최일운, 「마르크시즘」의 비판 형설출판사, 1973. pp.28 - 38</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因에 지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輕工業部門에서의 利潤率은 높아야 하고 重工業部門에서의 利潤率은 낮아야 한다고 하나 實際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고 또 모든 産業을 通해 平均化되는 傾向이 있다고 주장하고 平均概念을 남용했으며 需要와 供給關係에 의한 價值變動을 充分히 다루지 못했다. ○ 商品 價值의 形成에 있어서 勞動以外の 生産要素의 役割을 無視하고 있다. ○ 循環論法의 誤謬를 犯하고 있다. 즉 勞動이 價值의 尺度라면 勞動 그 自体의 價值 	<p>한국반공연맹,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 반공연맹, 1968. pp.111-150.</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② 剩餘價值說 의 矛盾批判</p>	<p>는 무엇으로 說明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財貨價值←勞動에 의 하여 결정←勞動生産物 의 價值←勞動으로 說 明)</p> <p>○ 勞動生産性的 變化를 설명할 수 없다. (勞 動人口의 增加外의 要 因에 의한 經濟成長 現象을 설명 못한다)</p> <p>나. 剩餘價值說</p> <p>1) 概 要:</p> <p>○ 資本家 階級은 모든 生産手段을 가지고 있 고 勞動者 階級은 前 者에게 勞動을 팔아서 生存한다. 生産되는 商 品의 價值는 生産過程 에서 投下된 資本과 勞動의 價值보다 큰데 이 초과분이 剩餘價值</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인데 이를 자본가들이 利潤, 地代, 利子 등의 형태로 착취한다는 것</p> <p>2) 批 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科学性이 欠如되어 있으며 또한 生産物의 價值나 利潤의 根拠가 勞動만에 依해서 創出 되기 때문에 勞動者가 그 價值를 全部 차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資本의 生産性을 不認 하는 것임으로 妥當하 지 않다. ○ 그는 利潤이 生産過 程에서 나온다고 주장 하나 商品의 流通面에 서도 얼마든지 利潤이 發生할 수 있다. 이 점에서 謬論을 犯하고 있다. (生産費用價值決定 說에 지나지 않음)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 勞賃이 恒常 勞動者의 最小限의 生産費를 保障하는 線에서 決定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何等의 根拠없는 주장이다 (賃金의 水準은 勞動力의 再生産費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주장 잘못이다)</p> <p>○ 共產主義社會에서의 剩餘生産物은 國民의 福祉向上을 위해서 使用되지 않고 軍事力, 獨裁機構強化에 使用, 共產黨員, 行政官僚, 軍의 幹部 등의 사치생활을 위해서 擄奪되므로 共產主義 內部에서 오히려 勞動者들에 對한 擄奪가 더욱 심하다.</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③ 共產主義理論變遷의 矛盾을 批判</p>	<p>7. 共產主義理論變遷</p> <p>가) 「마르크스, 엥겔스」의 共產主義는 19C 末에서 20C 初에 이르면서 理論上 分裂을 계속하였다. (「베른 슈타인」의 修正主義派, 「카우츠키」의 正統派, 「로자」「룩셈부르크」의 左派(「레닌」도 左派에 속함) 이들의 相互間의 理論的인 對立은 바로 共產主義의 矛盾을 나타내 것이다.</p> <p>나) 「소비에트」 共產主義 變遷→「레닌」에 의하여 成功된 蘇聯의 共產主義는 「마르크스」에 대한 重大한 修正이며 「레닌」은 共產主義 理論을 政治權力의 獲得과 維持의 手段으로 使用했다. 「스타린」에 이르러 蘇聯의 公産주의는</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一國社會主義로 變質되었으 여, 工業化를 達成하기 위 한 完全統制의 理論的 基 礎가 되었다. 「스탈린」死 後 소련의 公산주의는 「후루시초프」의 시대를 거쳐 변칙을 거듭했지만 全體主義이래 오늘에 이르 기까지 共產主義의 重要性 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p> <p>다) 中國 共產主義는 그 指 導者인 毛沢東의 戰術思想 에 의하여 成功했기 때문 에 주로 毛沢東 思想의 戰術的인 側面을 說明하는 데 그친다.</p> <p>毛沢東 사상의 重要性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中國的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것에서 發見되지만 中共이 자기 革命「모델」 이 世界的인 妥當性을 갖</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고 있다고 주장하는 外交 戰略面에서도 矛盾은 發見 된다.	
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의 實 態把握 ○ 韓國의 跋 越性을 認識 	<p>8. 北韓의 現實</p> <p>가. 政治實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憲法의 基礎와 特徵 ② 政治制度 (黨 最高人民 會議行政機關) ③ 支配形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의 獨裁體制 確立 (國內派의 肅清, 延安派 및 綏聯派 直 系派속청) ○ 金日成 偶像化政策 <p>나. 經濟實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經濟體制 (所有制度와 經濟形態, 計劃經濟, 計劃 作成의 節次) ② 經濟政策 (經濟政策의 目標 自立經濟, 重工業優 先政策, 經濟建設과 國防 	<p>學生들이 事前 에 調査하여 發表</p> <p>討論學習으로 전개</p> <p>여러가지 內容 中, 골자를 선 택하여 指導</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建設 併進政策 最大限의 資本蓄積等 生産競争運動 政策)</p> <p>③ 經濟現況(重工業, 輕工 業, 農業)</p> <p>④ 北韓經濟의 展望(鈍化 原因)</p> <p>다. 社会実態</p> <p>① 住民生活 ② 勞動斗 報酬 ③ 住居統制</p> <p>④ 冠婚喪祭</p> <p>⑤ 文化, 芸術, 宗教</p> <p>라. 教育実態</p> <p>① 教育目的, 政策, 体系</p> <p>② 教育現況(学校教育, 內 容, 訓練內容 및 時間)</p> <p>③ 社会教育</p> <p>나. 外交·軍事実態</p> <p>① 外交→对外政策의 基本 路線 所謂 外交政策樹立 의 執行機關 对外關係 現況</p> <p>② 軍事→北韓共產軍의 性 格, 軍事政策斗 戰略 軍事力과 戰略</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 共產主義의 理論體系의 矛盾을 認識</p>	<p>軍事力과 戰略態勢 北韓, 中共, 蘇聯의 三角 關係</p> <p>바. 北韓의 弱點</p> <p>① 北韓共產主義者들은 韓半島의 적화통일을 目標로 소위 3대 전략을 세 위 노력했다.</p> <p>: 北韓의 혁명의 기지화</p> <p>○ 국제혁명지원 역량규 합</p> <p>○ 한국내의 혁명 동조 세력조직</p> <p>② 南北對話와 관련하여 對話戰略의 目標(北韓의 UN가입희책, 한국의 국제 적 고립화, 한국의 반공 사상 해이화)</p> <p>共產主義 理論體系의 矛盾을 再確認</p>	<p>Slide 보기</p>

라. 國際情勢와 韓國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1	1. 國際政治의 變遷過程	1. 國際政治의 變遷過程 가. 冷戰의 發展 1) 美國의 立場 가) 트루만 닥트린 共產主義 侵略에 對處 自由陣營에 軍事援助 約束 (47.3) 나) 마샬플랜 西歐諸國에 의 經濟 원조 (47.6) 다) 北大西洋同盟 (49.4) 2) 蘇聯의 對應 가) 몰토로프 플랜 마샬플랜에 對應 (47.7) 나) 코메콘結成 : (49.1) 다) 코민포름結成 東歐諸國 共產黨中 心 (49.1) 라) 나토에 對항하는 東歐諸國間의 相互 원조 조약 結成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3) 兩極體制로의 變遷</p> <p>가) 처음에는 體制的 上 위가 아님</p> <p>나) 韓國動亂으로 因하여 熱戰化</p> <p>나. 冷戰에서 共存으로 (54-62)</p> <p>1) 美國의 대량 보복政策 과 말렌코프의 平和攻勢</p> <p>2) 自由陣營의 共產主義 포위정책과 共產陣營의 軍事協力體制</p> <p>3) 中・蘇分爭 等 兩國體 制에 對한 반발 (프랑스)</p> <p>4) 쿠바 위기를 계기로 東西關係의 새로운 變化</p> <p>다. 共存의 定着 (63-70)</p> <p>1) 美・蘇接近傾向 多元化現象</p> <p>가) 63.6 - 美・蘇直通 電話 가설</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나) 63.8 美・蘇・英 部分的 核禁條約</p> <p>다) 仏・中共의 반발</p> <p>2) 다원화의 主要原因</p> <p>가) 美・蘇間의 平和共 存定着</p> <p>나) 英・仏・日・西의 自主政策追求</p> <p>다) 中・蘇分争 及 共 産圈內의 核開發</p> <p>라) 核의 영향력 減少</p> <p>라. 70 年代의 國際秩序의 추세</p> <p>1) 美・蘇의 政策上의 見解一致</p> <p>2) 政勢變化: 政治的側面</p> <p>가) 兩國體制의 變化</p> <p>나) 政治的 이데올로기 의 둔화</p> <p>다) 現象維持 (安定)</p> <p>라) 對話와 協助</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3) 經濟的 側面</p> <p>가) 自國實利위주의 經濟 政策</p> <p>나) 後進國 自立・自主・自衛政策 을 爲한 貿易擴大</p> <p>4) 軍事的 側面</p> <p>가) 分爭 - 對話</p> <p>나) 武力 충돌의 困難性 軍事費支出의 억제</p> <p>다) 直接介入制度의 억제</p> <p>라) 긴장완화 추세</p> <p>5) 외교적 側面</p> <p>가) 以上의 一般的 추세 에 따라</p> <p>나) 多角的方法에 依한 自主, 自立策 追求</p>	
2-3	2. 70年代 國際政勢의 전환 方向	2. 국제정세의 전환 방향 가. 美國의 역할 축소 1) 닉슨 닥트린 (정책구상)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가. 美国의 役割 축소</p> <p>나. 蘇聯의 對아시아 政策</p>	<p>가) 自主的 国防態勢, 多邊的防衛態勢 기대</p> <p>나) 아시아에서의 軍事 的介入의 選擇權</p> <p>다) 아시아地域 協力側面 支援</p> <p>라) 對話로 共產國家와 關係改善</p> <p>2) 美国의 中共接近</p> <p>가) 蘇聯과 中共의 견제 균형</p> <p>나) 蘇와의 戰略무기 除 限協定</p> <p>다) 日本의 役割代行 기대 조치</p> <p>※ 多邊的 견제균형정책</p> <p>나. 蘇聯의 對아시아政策</p> <p>1) 蘇聯의 政策目標</p> <p> 유럽에 對한 現狀凍結 로 安定追求, 中공견제</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다. 中共의 새로운 姿 勢</p>	<p>对蘇聯合作戰形成 전 지역점</p> <p>2) 美 際</p> <p>가) 70.8 : 独, 蘇 不可侵 条約</p> <p>나) 美·蘇戰略武器(制限會談)</p> <p>다) 日本을 시베리아開發에 유인</p> <p>라) 東南亞諸國과 通商外交 擴大</p> <p>3) 브레즈네프의 “아시아 集團安保”構想</p> <p>4) 中共에 對한 間接的 壓力(이간)</p> <p>다. 中共의 姿勢</p> <p>1) 美·蘇·日의 포위망속에 存在</p> <p>2) 지금까지 國內産業開發 및 美·蘇의 保護地域에 침투 美·蘇의 關心分散</p> <p>3) 外交方向의 轉換</p> <p>닉슨 닥트린 및 日本의</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役割代行, 중·소 국경분쟁계 기 (美·蘇·日의 三角關 係把握 4) 當面目標 對美接近, 對日正常化, 내만 平和的 解決 5) 對美接近의 結果 ○ 소련의 도발, 동남아 진출 억제 ○ 日本의 핵무장 및 동남아진출 억제 6) 對日接近 ○ 日·蘇 平和條約 蘇聯의 中共포위망 견 제 ○ 日本産業技術導入 7) 中共의 第3勢力 옹호 (第2의 반등接近) ○ 平和五原則 옹호국 支援 ○ 民族解放運動支援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라. 日本의 政策 전환</p> <p>마. 4대국간의 勢力關係</p>	<p>4. 日本의 政策轉換</p> <p>가) 政策的多元化에 따른 政策轉換</p> <p>1) 對外政策 美國의 제 한 탈피</p> <p>2) 中共接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과 對等한 外 交的 地位確保 ○ 東南亞進出에 中共과 의 마찰事前防止 ○ 中共의 양해를 얻 어 소련 진출 <p>3) 日本의 核保有거지 : 3대국 (美國의 核우산 보호화)</p> <p>* 經濟 外交政策의 초점</p> <p>5. 4대국간의 勢力關係</p> <p>가. 美·中共, 日·中共 共同 聲明 요지 太平洋進出 억제</p>	

次 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나. 4대국중 2대국 연합 전선 저지</p> <p>다. 東兩亞 自國勢力 확장 저지</p> <p>即, 美→中蘇, 日→中蘇, 중→日蘇</p>	
4-5	<p>3. 強大國의 한반도 政策</p> <p>가. 美國</p>	<p>3. 強大國의 韓半島 政策</p> <p>가. 美國의 對韓 政策</p> <p>1) 美國의 韓半島에 갖 는 理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蘇聯과 中共의 南下 ○ 南韓에서 獨占的 영향력 행사 <p>2) 政策 轉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年代 적극적 방위전략 ○ 70年代 소극적 방위전략 <p>3) 韓國化→현상유지, 共存關係</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나. 蘇聯</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의 判斷 (樂觀論) (1) 韓國 · 自體防衛力 存在 (2) 北韓도 발자행 不可 (3) 中·蘇의 支援不能 ○ 美國의 정책자문학 자 見解 (問題點) (1) 現狀凍結, 韓國지 원정책 止揚 (2) 언커크 해체, 對 話擴大, 군축압력 (3) 미군철수, 오스트 리아式 中立統一 모색 (4) 유엔 同時加入等 나. 蘇聯의 對韓政策 1) 6.25 以後 現象유지 정책 2) 中 · 蘇關係에서 把握 3) 中共에 밀착 저지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 data-bbox="409 1782 582 1825">다. 中共</p>	<p data-bbox="814 573 1237 617">4) 北韓合法化 企圖</p> <p data-bbox="814 666 1278 709">5) 戰爭終結조치 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854 758 1104 801">○ 休戰無効 <li data-bbox="854 850 1262 983">○ 中共의 北韓관여 저지 <p data-bbox="808 1041 1312 1084">6) 韓半島의 전쟁억제 →</p> <p data-bbox="848 1133 1268 1176">日本의 무장強化자극</p> <p data-bbox="842 1225 1050 1268">요인 배제</p> <p data-bbox="808 1317 1308 1361">7) 對美關係：北韓援助는</p> <p data-bbox="838 1410 1264 1453">美國의 韓半島 援助</p> <p data-bbox="838 1502 1054 1545">增加 자극</p> <p data-bbox="808 1594 1270 1638">8) 美國과 同一한 政</p> <p data-bbox="842 1687 963 1730">策구사</p> <p data-bbox="753 1779 1177 1822">다. 中共의 對韓政策</p> <p data-bbox="802 1871 1056 1914">1) 政策方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842 1964 1257 2096">○ 탈교조적인 現實 主義 <li data-bbox="838 2145 1130 2188">○ 現狀固定化 <p data-bbox="802 2237 1141 2281">2) 固定化 方案</p> <p data-bbox="834 2330 1257 2373">가) 韓國戰爭終結조치</p> <p data-bbox="868 2422 1298 2465">(1) 北韓의 地位向上</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으로 영향력제고</p> <p>(2) 處理過程에서 美· 蘇가 對等地位確保</p> <p>(3) 中共의 對蘇聯地 位 公式的 確認</p> <p>나) 南北韓 同時 유엔 加入</p> <p>다) 日本의 韓國 進出 저지</p> <p>라) 긴장완화로 일본 의 핵무장 저지 (美·日의 反中共 軍事 기지화 防止)</p> <p>3) 우리의 問題點</p> <p>가) 中共의 유엔加入과 常任理事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전억제 ○ 同等的한 地位主張 ○ 北韓의 統一方案 <p>지지</p> <p>나) 窮極的으로는 미군</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라. 日本	<p>의 철수, 고립화로 共產化統一企圖 可能</p> <p>라. 日本의 對韓政策</p> <p>1) 對韓政策方向: 韓半島 의 安定 긴장 완화 가) 共產勢力的 팽창 완충 나) 經濟市場의 확보</p> <p>2) 結果的으로 對日敵對 勢力 저지 現狀維持, 分斷政策→ 韓 半島에 영향력 행사 (經合관계 이용)</p> <p>3) 變遷過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年代... 韓國의 安保에 적극적 자세 ○ 70年代... 美·中 共接近, 直接的軍 事支援회의 <p>☆ 南北 等거리 外交</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內容
		<p>4) 日本의 对北 政策 方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 교류 → 政經 分離 → 政治的方向 ○ 南北對話에 편승, 북한지위 향상 위협 ○ 美·蘇·中의 政策에 동조 	
6~7	4. 10月維新의 國際的 當위성	<p>4. 10月維新의 國際的 當위성</p> <p>가. 周邊政勢變化</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強大國들의 實利主義 열강주의의 약소국 운명 좌우 可能性 2) 닉슨 닥트린과 美國 아시아에서의 役割 축소 3) 美·中共 和解 일·중공 수교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4) 日本의 등거리 외교</p> <p>5) 韓半島에서의 긴장완화의 미정착 (구한말 열강 각축장,北韓의 戰爭準備完了)</p> <p>6) 韓半島에서의 勢力關係</p> <p>韓國 : 韓·美·日 3角關係 (韓·日協力關係)</p> <p>北韓 : 中·蘇·조 3角關係</p> <p>나. 10月維新</p> <p>1) 強大國의 實利追求競爭에서 中小國의 희생 가능</p> <p>2) 國際政勢에 能動的으로 對處할 必要</p> <p>3) 國際政勢의 정착전 대비 태세 確立</p>	
8	5. 우리의 座標	<p>5. 우리의 座標</p> <p>가. 大國의 依存性 止揚</p> <p>1) 自主, 自立의 經濟開發</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2) 自主的 安保態勢</p> <p>多角外交展開</p> <p>나. 民族意識 및 主體意識의 제고</p> <p>다. 國家利益과 安全保障</p>	

마. 統一方案과 우리 의 使命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1	1. 國土分斷의 경위	<p>1. 國土分斷의 經緯</p> <p>가. 韓國의 地政學的 位置 로 國際政治的 背景의 歷史를 갖고 있음.</p> <p>1) 1895 : 倭韓 日本공사 對 러시아 국교 조정책 으로 韓半島 勢力 分割 權 제의</p> <p>2) 1896: 3·8 선에 依 한 韓半島 分割제의 (러시아)</p> <p>3) 1904: 러시아 3·9.</p>	

次時	目 標	教 授 内 容	教授活動・資料
		<p>선에 의한 분할제의 나. 1945: 미·영·소의 알타會談</p> <p>1) 蘇聯: 極東에서의 구 세력권 회복 確約반응</p> <p>2) 韓半島에서의 어느 國家의 주도권 부인</p> <p>다. 1945.8.15 美軍의 一 般命令 第1号</p> <p>1) 3.8線 中心으로 日 軍, 美·蘇軍에 항복 (降伏)</p> <p>2) 韓半島 分割의 公文 書</p> <p>3) 軍事分界線→政治分割 線으로 變質</p> <p>라. 모스크바 3상會議: 1945.12.</p> <p>1) 美·蘇共同委員會 개 회</p> <p>2) 신탁통치문제 協議</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마. 韓國問題 유엔 상정 :</p> <p>1947.9</p> <p>1) 1947.11.4: 유엔 韓 국임시위원단 설치</p> <p>2) 1948.2.26: 接近 可能地域의 選舉 감시</p> <p>3) 1948.12.12: 大韓民 國 政府承認</p> <p>(유엔) : 正統政府</p> <p>바. 北 韓</p> <p>1) 1946.2: • 北朝鮮 人民委員會 • 組織</p> <p>2) 1948.9: 金日成 共 産政權 樹立</p> <p>사. 休戰협정으로 군사분계선</p>	
2-3	2. 우리의 統 一政策과 努 力	2. 統一의 政策과 努力 가. 休戰까지 <p>1) 制憲國會: 100席 北 韓 議席유보</p> <p>2) 48.8.15: 統一實現</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努力 声明</p> <p>가) 大韓民國의 유일 합법 정부 선언</p> <p>나) 北韓의 選舉 실시 促求</p> <p>다) 北進統一의 權限 있음을 明白히 함.</p> <p>3) 48.12.12: 유엔 總會</p> <p>가) 韓國政府承認</p> <p>나) 유엔 韓國 委員會 설치</p> <p>4) 6.25: 유엔 軍과의 北進統一日時 구상</p> <p>가) 北韓南侵: 유엔 軍 의 統一政府樹立 協會</p> <p>나) 50.10: 李承晩 收復地域 行政權 大韓民國 行事見解 表明</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다) 6次 유엔總회에서 北韓의 유엔 감시 自 由選挙主張</p> <p>라) 北進統一 休戰反對</p> <p>5) 53.7.28: 유엔을 通한 原則尊重</p> <p>6) 53.11.23: • 북한만 의 총선 • 에서 • 전국 총선거 • 용의 특별 성명</p> <p>나. 제네바 會談 - 4.19 까지</p> <p>1) 1954. 4: 제네바 會 談 14개 項의 綜合 提議</p> <p>가) 6個月內 유엔 감시 하 총선 실시</p> <p>나) 유엔 감시하 국제 조사 실시</p> <p>다) 새 憲法 탄생 시까 지 韓國 憲法 効力 유</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 style="text-align: center;">저 等</p> <p>2) 위의 否決로 单独北 進統一論과 유엔감시하 북한만의 총선거 抬頭 다. 4.19 - 5.16 까지</p> <p>1) 60.8: 外交 시정방책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 平和統一</p> <p>2) 無分別한 南北交流, 中立化統一論一部 抬頭 라. 5.16 - 10月維新까지</p> <p>1) 革命政府: 反共, 先建 設 後統一</p> <p>2) 第3 共和国 經濟建設, 민주역량배 양, 조국근대화가 祖國 統一의 契경</p> <p>3) 70.8.15 慶祝辭 가) 平和統一에 對한 積極的 의지</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나) 긴장완화, 선의의 경쟁促求</p> <p>4) 71.8.12 南北赤会谈 提議</p> <p>가) 인도주의적 接觸→ 非政治的→政治的 對話 = 3 段階統一論</p> <p>5) 72年 年頭記者會見</p> <p>가) 主體意識과 自主的 決定 천명</p> <p>나) 南北유엔 同時加入 反對</p> <p>6) 7.4 南北共同聲明</p> <p>가) 戰爭防止 及 긴장 완화</p> <p>나) 南北對話를 為한 國論統一 國民總和 平和統一 주도 체제 구축 요망</p> <p>7) 유엔감시하의 토착 인구 비례에 依한 총 선거 통일방안 재천명</p>	

次時	目 標	教 授 内 容	教授活動・資料
4 ~ 5	3. 北韓의 統一政策과 그 批判	<p>3. 北韓의 統一政策</p> <p>가. 北韓의 統一觀</p> <p>1) 南朝鮮革命을 통한 赤化統一 (마르크스·레닌主義)</p> <p>2) 수정주의 平和共存論배격</p> <p>3) 民族解放鬪爭 戰爭과 平和混用전략</p> <p>4) 暴力으로 南朝鮮革命 後 平和統一可能主張</p> <p>나. 民主기지에서 共產政權 樹立期까지</p> <p>1) 48.4.19</p> <p>· 政黨· 社會團體 연석회 · 聲明 ·</p> <p>가) 外軍同時철수</p> <p>나) 韓國單獨選舉反對</p> <p>2) 48.9.9</p> <p>共產政權樹立</p> <p>가) 美軍철수</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나) 게릴라를 통한 韓國政府顛覆공작</p> <p>다) 武力統一準備</p> <p>3) 49.6. 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 構成</p> <p>가) 南北政黨 社會團體 망라한 형성 주장</p> <p>나) 美軍・언커크 철수主張</p> <p>다) 南北협상을 통한 平和統一 위장선전</p> <p>다. 무력통일의 試圖</p> <p>1) 南北直前까지 平和統一 宣傳</p> <p>○ 最高人民委員會와 國회의 합동소집으로 統一 實現</p> <p>2) 6.25도발로 그들의 저의 폭로</p> <p>라. 전후 복구기간의 統一 政策</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 受 活 動 · 資 料
		<p>1) 1954. 제네바 會談時 北韓側 제 의</p> <p>가) 最高人委와 韓國 國 회에서 南北韓代表 宣 伝 · 全朝鮮委員會 · 조직</p> <p>나) 總選舉法 初案作成 全朝鮮委員會 (外國干 渉 選舉民 壓力배제)</p> <p>다) · 全朝鮮委 · 經濟 文 化 交流 計劃 樹立</p> <p>라) 6個月內 外軍철수 인정 강요</p> <p>2) 批 判</p> <p>가) 人口 격차 無觀</p> <p>나) 外國干涉제 의란 유엔 추출 제의</p> <p>다) 자유분위기...적반하장</p> <p>라) 戰爭直後의 交流란 非現實的 地下黨 組織 구실</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마) 6個月 期限은 戰爭 再發 意圖</p> <p>☆ 요컨데 현상 유지 를 통해 戰後 복구 가 저의임</p> <p>3) 3個年 計劃後 平和 공세</p> <p>가) 56.4</p> <p>노동당 3차대회 결정, 통일전선 결정 미군철수 國際會議 召集</p> <p>나) 58.2.5</p> <p>4個項 統一方案</p> <p>(1) 南北外國軍 同時 철수</p> <p>(2) 中立國 감시하 地 域對等 총선</p> <p>(3) 南北經濟・文化・ 書信交流</p> <p>(4) 南北軍隊감축</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 東西間의 해빙 무드</p> <p>현승 : 위장平和攻勢</p> <p>4) 4.19以後의 연방제 統一方案</p> <p>가) 韓國顛覆에 의한 赤化統一을 爲해 地下 黨再建과 平和統一宣傳 공세</p> <p>나) 60.8.14의 김일성 의 연방제 통일방안 제외</p> <p>(1) 外國干涉없는 南北 自由總選舉</p> <p>(2) 南北韓聯邦制 最高民族會議 構成 經濟文化發展調節</p> <p>(3) 순전한 경제위원회 구성</p> <p>(4) 文化使節의 來往과 학술교류</p> <p>(5) 외국철수와 10萬</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減軍</p> <p>(6) 以上을 爲해 南北 韓代表들이 平壤, 서울, 판문점에서 會談할 것을 正當 社會團體, 個別的 人事에게 提議</p> <p>다) 저 의</p> <p>(1) 外國干涉 배제란 共産主義者들의 폭력 감시 견제 배제</p> <p>(2) 自由總選 北韓의 自由總選 도 못한 실정</p> <p>(3) 연방제 自由化와 民族化 가 이루어지지 않 는 그들로서 一禮 의 어불성설</p> <p>5) 5.16 후의 統一戰略</p> <p>가) 61.9 4차당대회</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결정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解放 民主主義 혁명주장 ○ 3 段階 共產化 統一戰略策等 <p>(1) 근로 대중을 中心으로 한 혁명적 당 組織</p> <p>(2) 반미구국 통일 전선 구축</p> <p>(3) 共產主義 역량규합</p> <p>나) 전 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共產地下黨 組織 擴大 (2) 反美는 統一戰線 形成, 鬭爭 (3) 南北統一戰線 合同 <p>다) 65.4 김일성 인도</p> <p>베시아에서 연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北韓의 혁명기지화 (2)韓國의 혁명역량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규합</p> <p>(3) 국제 혁명 지원</p> <p>역량 규합</p> <p>라) 70.11.5차 당</p> <p>大会</p> <p>(1)武力統一方案 再</p> <p>確認</p> <p>(2) 南朝鮮革命은</p> <p>가) 美國을 反對하는</p> <p>•民族解放革命•</p> <p>나) 資本家를 배격하는</p> <p>•인민 민주주의 革</p> <p>命</p> <p>마) 즉 •統一革命黨•</p> <p>組織(共同戰線形成)</p> <p>各種 鬭爭方式을 混</p> <p>合 •인민 민주주의•</p> <p>정권수립 •남조선</p> <p>혁명•</p> <p>바) 72.7월 5기 第</p> <p>4次 全원회의</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1) 戰術變更시사</p> <p>(가) ・南朝鮮革命・ 統一의 先決條件 으로 폭력투쟁으 로 성권탈취</p> <p>(나) 統一問題 - 外勢 를 배제한 民族 內部 問題 共產 化 統一強調</p> <p>(2) 評 価</p> <p>(가) 정국의 混亂利 用 - 反美, 反政府 統一戰線 形成</p> <p>(나) 戰術的 變更이란 결정적 시기 조 성으로 힘의 비 축기간 획득 저의</p> <p>사) 71.4월 平和統一 8個方案 提案</p> <p>(1) 外軍철수, 韓・美 日 條約 폐기, 統一</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中央政府樹立，政治 運動 自由・政治犯 석방，연방제實施， 學術文化交流 人士 往來，정치협상等</p> <p>(2) 評 価</p> <p>反美統一戰線， 국제 조류편승</p> <p>아)北韓의 平和統一方 案의 總評價</p> <p>(1) 平和統一의 주도 권 장악</p> <p>(2) 주한 미군 철수</p> <p>(3) 韓國內의 國論 分裂</p> <p>(4) 폭력과 평화공세 並行</p> <p>☆ 共產化 統一 劃策</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6	4. 統韓問題 와 유엔	<p>4. 統韓問題와 유엔</p> <p>가. 初期 段階 (건국 - 動亂)</p> <p>1) 始初: 美蘇共同委員會 의 遺産으로 47.9, 유엔에 이관</p> <p>2) 47.11.14: 유엔 임 시 한국위원단 설치 결의</p> <p>3) 48.2: 유엔 소총회 可 能地域 總選決議</p> <p>4) 48.12.12: 유엔의 韓 國合法政府인정</p> <p>5) 49.: 유엔가입 신청 소련의 거부권</p> <p>6) 50.6.25: 安保理, 남 침정지 요청</p> <p>7) 50.6.27: 安保理, 한 국援助決議</p> <p>○ 16 個국이 軍隊派遣</p> <p>○ 53 個국이 軍援</p> <p>8) 50.9: 韓國統一問題</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論議</p> <p>9) 50.10.7: 韓國統一 復興委員團 설치 유 엔 한국위원단과 대 치</p> <p>○ 3.8선 돌파 목적 적 부여</p> <p>10) 50.10.8: 3.8선 이북으로 진격</p> <p>나. 제 2 단계 (제네바會談 - 第 1 共和國)</p> <p>1) 60年 15次 會議가 지 유엔 統韓決議 再 確認 (미·소 현상유지 政策)</p> <p>2) 53.8: 休戰協定 유 엔 승인</p> <p>3) 54.4-6月: 제네바會 談 開催</p> <p>가) 외계: 韓國統一方式, 外軍철수</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나) 統一方式</p> <p>(1) 韓國 : 유엔 감시</p> <p>(2) 北韓 : 南北代表로 構成된 全韓國委員 會 감시 주장 中 立國 감시안 수정 제의</p> <p>나) 54.6.15 유엔 16個 國의 共同宣言</p> <p>가) 韓國의 平和的 解 決을 爲한 조정 役 割</p> <p>되) 國會代表를 人口比 例로 함.</p> <p>5) 54.12.11 總회는 參戰 16個國 共同宣言 의 基本原則을 유엔의 原則으로 채택</p> <p>6) 55.11(10次總會) 韓國問題 계속확인 - 12 次까지 압도적 다수표</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 - 資料
		<p>획득</p> <p>7) 58.2 유엔과 共産側 사이에 새로운 論争抬 頭</p> <p>가) 共産側 : 전외군철수 중립국감시</p> <p>나) 유엔 : 평화적 해결 후 철수</p> <p>8) 58.11.14 (13 차 총회)</p> <p>유엔 계속統韓原則 再確認하고 共産側은 諸決議 無効主張</p> <p>다. 第 3 段階 (15 次 總會 - 現在)</p> <p>1) 15 次 總會 以前 自由陣營中心</p> <p>2) 60-68 年</p> <p>아프리카 新生國 41 個國 유엔加入 (124 席 의 1/3) 한국분계</p>	

次時	目 標	教 授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關心회박 북한의 침투</p> <p>3) 15次 總會부터 ; 동시 초청안 채택</p> <p>4) 16次總會 ; 外軍철수 (몽고)제출 언커브解 體 (소련)철회</p> <p>5) 17次總會 ; 共產側 否定的 決議案 提起</p> <p>☆ 중심국 절차 인증 초래</p> <p>6) 68年 (23차) ; 韓國 은 自動上程方式을 재 량 상정方式으로 변경 가) 中共의 影響力 增 大 나) 참전국의 이탈 경 향</p> <p>7) 24차 總會以後 가) 共產側 每年 上程 으로 韓國側도 每年 上程 形式</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나) 傾向: 統韓決議案</p> <p>지지표 감소, 공산측 지지 상승경향 분단 국 동시가입론 抬頭</p> <p>8) 26次總會</p> <p>가) 中共: 유엔 상임이사국 나) 北韓: 中共에 同調 다) 韓國: 對 유엔戰略 시련 불상정方案 提 起(南北對話에 影響 이런 구실)(남북동 시 초청문제로 비약 저지)</p> <p>9) 27次 總會</p> <p>가) 韓國問題로의 일년 간 연장 나) 共產側 알제리안 提起 (5個項: 언커크 活 動 中止 주한 외군 철수 유엔군 사용</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폐기, 외군철수 등</p> <p>다) 저의: 북한의 政府 로 認定</p>	
7	<p>5. 10月維新과 우리의 課題</p>	<p>5. 10月維新</p> <p>가. 60年代 共產側: 武力 統一企圖</p> <p>나. 朴大統領의 8.15 宣言 다. 南北對話에 따른 취약 점 노정</p> <p>라. 국민총화 취약점 억제 10月維新</p> <p>마. 유신헌법의 특징</p> <p>1) 平和統一지향</p> <p>2) 國력의 조직화, 능률 화</p> <p>바. 우리의 課題</p> <p>1) 安定, 國力培養</p> <p>2) 韓國의 民主主義 土 着化</p> <p>3) 國論統一: 早急論, 비</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관론 배제 4) 民族意識과 국가관 確立	
8	6. 統一政策 方向과 國民 의 使命	가. 統一政策方向 1) 方向: 平和 유엔 감시 하 토착인구 비례에 依해 自由總選 2) 7.4 共同聲明: 전쟁역 제 단계적 統一接近의 일환 3) 體制競爭으로 폐쇄체제 變質시켜 平和統一基盤 조정 나. 國際政治的 制約 1) 열강 위주의 美利主義 追求 2) 美國의 아시아에서의 役割 축소 3) 日本의 • 두개의 韓 國化・傾向 4) 周邊強大國: 現狀유지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정 책</p> <p>5) 유엔의 • 普 遍 主 義 •</p> <p>傾 向</p> <p>다. 北 韓 的 道 途</p> <p>1) 四 大 軍 事 路 線 堅 持</p> <p>2) 5 次 黨 大 會 : 南 朝 鮮</p> <p>革 命 을 • 民 族 解 放 革 命 •</p> <p>• 人 民 民 主 主 義 革 命 •</p> <p>이 라 規 定</p> <p>3) 3 大 역 량 배 양 에</p> <p>치 중</p> <p>라. 國 民 的 使 命</p> <p>1) 民 族 主 體 性 確 立 : 健 實 한</p> <p>民 族 主 義 와 自 主 精 神</p> <p>2) 國 力 培 養 國 民 總 利</p> <p>3) 國 際 情 勢 에 能 動 的 으 로</p> <p>對 処</p> <p>4) 소 득 증 대 , 새 마 을 運 動</p> <p>5) 總 力 安 保 體 制</p> <p>6) 民 主 主 義 土 着 化</p> <p>7) 우 리 의 統 一 方 案 變 化</p>	

次時	目 標	教 授 內 容	教授活動・資料
		<p>畝음을 確認</p> <p>8) 段階的 接近方案</p> <p>認識</p>	

Ⅲ . 結果分析 및 討議

1. 實驗結果의 全體的인 傾向

本 研究는 大學에서 實施되고 있는 統一教育이 大學生들의 統一指向的 態度 定立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檢討하고 그같은 姿勢定立에 地域, 性, 및 社会的 環境이 어떤 影響을 주는가를 檢出해 봄으로써 統一教育의 現況을 진단해 보고 앞으로의 그 改善策 裝置에 有用한 資料로 提供하고자 하는데 그 目標가 있다. 그 結果를 細目別로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實驗群과 比較群의 事前, 事後比較

<表 1 - 1> 實驗群과 比較群의 事前, 事後比較

(100 點 기준)

地 域	區 分	實 驗 群			比 較 群		
		事 前	事 後	差	事 前	事 後	差
서	울	57.3	63.5	6.2	57.5	59.3	1.8
仁	川	54.1	62.8	8.7	53.5	55.6	2.1
春	川	46.6	65.5	18.9	47.7	51.5	3.8
	計	52.7	62.9	10.2	52.9	55.5	2.6

實驗群과 比較群의 성적 平均은 각각 52.7 과 52.9 로 同質集團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實驗群의 實驗前의 平均成績은 52.7

實驗後의 平均成績은 62.9로 10.2의 매우 의의있는 向上이 나타났으나, 比較群의 實驗前 成績平均은 52.9, 實驗後 平均成績은 55.2로 2.6정도 밖에 향상되지 못했다. 이것으로 보아 實驗用 統一教育課程이 有用한 모형이었음을 실증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특히 春川의 경우에 있어서는 實驗群은 18.9라는 큰 점수차의 向上을 갖어왔음에 비해 比較群은 3.8의 차밖에 向上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은 6.2 인천 8.7, 春川 18.9로 서로 다른 向上度를 갖어온 것은 각 대학 학생들의 社會意識水準의 差異에서 나온 결과로 추측된다.

나. 內容領域別 比較

다섯 領域中 共產主義에 대한 領域은 60.5로 가장 높고 傳統文化 53.6, 統一을 위한 使命 49.4, 國際情勢 48 民主主義 47.1로 全體平均 52.7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民主主義에 관한 성적 이 낮음은 종래의 民主主義教育에 관한 反省이 촉구된다고 하겠다. 國際情勢의 영역에 있어서 서울 56.3, 인천 58.4에 대해 춘천은 29.4 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울, 인천에 비해 지방대학으로서 이에 대한 情報가 부족함을 말해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 共產主義영역에 있어서 서울 68에 대해 인천과 춘천은 각각 56.4와 57.2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이 분야에 관한 한 知的인 差異에서 기인된 결과라 추측된다.

實驗後의 각 영역별 성적을 보면, 共產主義 75.2, 國際情勢 73.3, 傳統文化 62.9, 統一問題 59, 民主主義 58.5로 나타났다.

〈表1-2〉 内容領域別 比較

(100 점 기준)

地 域	區 分	傳 統 化			民 主 主 義			共 産 主 義			國 際 情 勢			使 命		
		事 前	事 後	差	事 前	事 後	差	事 前	事 後	差	事 前	事 後	差	事 前	事 後	差
서 울	仁 川	64.1	68.3	4.2	49.0	57.0	8	68.0	72.6	4.6	56.3	64.1	7.8	49.2	55.6	6.4
		47.7	58.4	10.7	47.3	57.2	9.9	56.4	70.7	14.3	58.4	67.8	9.4	53.5	57.1	3.6
		48.9	62.0	13.1	44.9	61.4	16.5	57.2	82.4	25.2	29.4	88.0	58.6	45.4	64.4	19
計		53.6	62.9	9.3	47.1	58.5	11.4	60.5	75.2	14.7	48.0	73.3	25.3	49.4	59.0	9.6

이는 實驗前의 各 領域의 점수와 대비해 볼때 國際情勢 25.3 共產主義 14.7, 民主主義 11.4, 統一問題 9.6 傳統文化 9.3의 向上을 각각 보였다. 특히 여기에서 國際情勢領域의 점수가 많이 향상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중 춘천은 58.6點이라는 향상도를 보였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와같은 정보에 접하지 못하고 있다가, 실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 볼때 實驗教育課程의 적절성을 이해할 수 있다.

다. 行動特性別 比較

<表 1-3> 行動特性別 比較

(100 점 기준)

地 域	區 分	知 識			態 度			批 判 能 力		
		事 前	事 後	差	事 前	事 後	差	事 前	事 後	差
서	울	57.4	63.3	5.9	48.3	55.1	6.8	57.4	64.3	6.9
仁	川	54.9	65.1	10.2	48.1	56.9	8.8	57.1	64.2	7.1
春	川	46.1	65.0	18.9	41.9	64.4	22.5	50.5	64.5	14
	計	52.8	64.5	11.7	46.1	58.8	12.7	55	64.3	9.3

知識 52.8, 批判能力 55, 態度 46.1로 態度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地域別로는 세 行動特性이 각각 서울 인천, 춘천순으로 되어있다.

實驗後에는 지식 64.5로 11.7, 비판능력 64.3으로 9.3, 태도 58.8로 12.7의 向上을 찾아왔으며, 특히 태도의 향상도가

약간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보다 인천이, 인천보다 춘천이 세 행동 특성 각각의 향상도가 높았음도 앞에서 설명한 이유와 같은 것으로 추측된다.

라. 性 別

<表 1 - 4 > 性 別 比 較

(단위: %)

地域別	性 別	男		女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서	울	59.5	64.8	57.6	64.3
仁	川	59.7	64.9	48.6	60.7
春	川	46.6	65.5	47.7	51.5
	計	55.3	65.1	51.3	58.8

남학생이 55.3, 여학생이 51.3 으로 男學生이 조금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이는 실험후에도 男學生 65.1, 女學生 58.8 로 男學生이 높으며, 그 향상된 점수차에 있어서도 남학생 9.8, 여학생 7.5로 높은 향상도를 보여주고 있다.

마. 出身學校別

< 表 1 - 5 > 出身學校別

(單位 : %)

地域別 出身學校	人 文 系		實 業 系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서 울	59.7	65.8	49.1	67.4
仁 川	55.2	61.3	53.0	64.2
春 川	48.9	60.2	48.5	61.8
計	54.6	62.4	50.2	64.5

人文系는 54.6 으로 實業系의 50.2 보다 그 성적이 높다. 특히 서울에 있어서 그 차가 크다. 실험 후에는 반대로 實業系가 64.5 로 人文系의 62.4 보다 높다. 즉 그 성적향상이 人文系는 7.8, 實業系는 14.3 으로 實業系의 두배가량 높은 성적의 향상을 갖어왔다. 특히 서울의 경우 人文系가 6.1, 實業系가 18.3 으로 실업계 향상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이는 人文系의 高校水準이 實業系의 수준보다 思想敎育을 치중하는 결과에서 나타난 것으로 評價되며 향상도가 實業系에서 높은 것은 새로운 敎育課程에 대한 감수성이 人文系보다 높다는데서 그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때 앞으로 實業系 學校에의 統一敎育의 強化問題가 보다 効果的일 것이다.

<表 1 - 6 > 職 業 別

(단 위 : %)

地域別	職業別	公務員		農 業		工 業		商 業		其 他	
		事前	事後								
서 울		56.5	63.2	62.0	68.2	56.5	61.2	58.7	66.6	57.3	62.1
仁 川		56.1	62.2	53.4	62.6	58.6	67.5	52.3	60.7	50.2	60.6
春 川		49.5	60.8	50.5	61.7	53.4	63.8	47.2	61.3	46.9	59.7
計		54.0	62.1	55.3	64.2	56.2	64.2	52.7	62.9	51.5	60.8

學生 부모의 직업이 工業인 경우 56.2, 농업 55.3, 공무원 54, 상업 52.7, 기타 51.5로 직업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없다. 實驗後에는 농업 64.2, 공업 64.2, 상업 62.9, 공무원 62.1 기타 60.8로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그 향상된 성적도 공무원 8.1, 농업 8.9, 공업 8.0, 상업 10.2, 기타 9.3으로 비슷한 향상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부모의 직업에 정치사상 교육의 전래가 구애됨이 없다는 것을 입증케 할 뿐이다.

2. 特殊問項分析

가. 民族意識과 國家觀

우리는 같은 民族이면서도 지난 25年間 南北으로 대치하면서 生活해 왔다. 더구나 北韓共產主義者에 의한 6.25事變의 發勃은 南北의 對立을 보다 첨예화시켰고 그러한 對立의 持續은 南北의 가까운 空間的 距離를 余他の 그 어느 遠距離地域보다도

던 地域으로 생각하게 하는 傾向마저 나타나게 하였다.

이러한 分斷의 歷史앞에서 統一問題를 論議함에 있어 제일 먼저 強調될 것은 大韓民國의 国土에 對한 애착과 韓民族은 4千年동안 한 國家單位로 生存해 왔다는 民族의 生命力에 對한 強한 共感이다. 統一教育은 바로 그같은 共感위에 基礎되어야 하기 때문에 民族愛나 民族精神에 對한 大學生들의 反應을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反應이 나타나고 있다.

(1) 北韓住民에 對한 大學生의 反應을 알아 보기 위하여 北韓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였던 바 그 反應을 보면 다음 <表2-1>과 같았다.

대체로 學生들은 같은 民族이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전검사에서 76.2%이었던 것이 사후 검사에서는 82.9%로 增加되었다.

<表2-1>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단위: %)

地域別 問項別	서울		仁川		春川		計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남한 국민과 거리가 멀다.	7.5	3.8	12.5	7.5	1.9	8.4	7.3	6.6
같은 민족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90.0	87.5	69.0	82.0	69.7	79.4	76.2	82.9
생각만해도 몸서리 치는 보기 싫은 사람이다.	1.3	1.2	0.8	0.4	18.1	-	7.7	1.2
세계대세가 이러하니 할수없이 대화정도로 끝일수밖에 없다.	1.2	7.5	16.1	9.0	9.0	11.6	8.4	9.3
무응답			1.6	1.1	1.3	0.6	0.4	-

여기서 發見되는 主要한 한 傾向은 北韓사람을 같은 民族으로 생각하는 程度가 매우 高率이라는 點이다. 全體적으로 보아서 事前에는 76.2%, 事後에는 82.9%로 그 傾向이 매우 圧倒的이다. 이것은 現在의 大學生의 연령이 19-25사이라는 點을 감안 할 때 示唆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들이 한번도 가보지 않았고, 또 그들이 듣고 배운 것은 北韓共產主義者들의 만행이 대부분이었는데 大學生들은 北韓사람에 對한 強한 愛着을 表示해 주고 있다. 이것은 北韓의 小數共產主義者들의 만행에 對한 憎惡와는 달리 北韓사람 全般에 對한 民族的 포용력을 表示해주는 點이라고 보아 無理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바로 南北對話에 對한 國民的 支持와 背景을 說明해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또한 北韓사람에 對한 친근감의 地域的 差異 亦是 注目할만하다. 서울이 90.0% 인천이 69.0% 춘천이 69.7%로 地域의 差異를 보이는 것은, 三個地域이 모두 都市地域임에도 不拘하고, 意識面에 어느 程度 地域的 偏差가 存在함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大體로 政治意識이나 社會意識은 教育, 「매스 미디어」, 산업구조, 生活水準, 都市化水準에 따라 差異가 나타난다. 特殊한 地域的인 面이 없는 한 都市地域과 農村間에는 意識面에 時差가 存在한다. 이러한 一般的 傾向이 北韓住民에 對한 大學生의 태도에 도 一部 反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禁斷으로 여겨지던 北韓住民에 對한 어떠한 態度에 있어 서울地方이 相對적으로 앞서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表 2 - 2 > 性 別

(단위 : %)

問項別	男		女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남한 국민과 거리가 멀다.	4.5	5.3	12.8	7.4
같은 민족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90.2	87.1	68.6	80.8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보기싫은 사람이다.	1.5	0.8	2.0	-
세계대세가이러 하니 할수없이 대화정도로 끝일수밖에 없다.	3.0	4.5	14.8	11.3
무 응 답	0.8	2.3	1.8	0.5

이를 다시 성별로 보면 표< 2 -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의 경우 보다 同一民族임을 강조하는데 비하여 여자의 경우는 한국의 주민과는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의 현상 유지적 소극성과 여성 본래의 감정이 작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직업별로도 표< 2 - 3 >에서 보는 바와같이 모두 같은 민족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데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슬하에서 자란 학생들은 이에 대하여 높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남한 국민과 거리가 멀다는데 상당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는 농촌출신의 폐쇄성이

보다 크게 작용을 하였거나 전문을 넓히기 어려운 환경의 영향이 아닌가 고려되기도 한다.

<表 2 - 3 > 職 業 別

(단위 : %)

問 項 別	公 務 員		農 業		工 業		商 業		其 他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남한 국민과 거리가 멀다.	7.9	0.9	28.1	36.6	25	9.4	7.3	3.2	15.2	9.1
같은 민족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77.3	89.2	56.2	60.9	75	81.8	81.3	89.0	73.3	72.7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보기싫은 사람이다.	-	-	-	-	-	-	1.3	0.7	2.2	-
세 제대세가 이리 하니 할수없이 대화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다.	14.8	9.9	15.7	2.5	-	9.1	10.1	7.1	9.1	18.2
무 응 답									0.2	-

(2) 祖 國에 대한 大學生의 態度

일부 국민층에 마음의 移民現象이 없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과연 大學生은 어떠한가를 알아 보기 위해 다시 태어나기를 희망하는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이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表 2 -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불과 36.1%에 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63.9%나 되는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한국에 대하여 애착을 느끼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는 젊은 지성인 대학생들이

가정대로 다소 마음의 移民現象이 일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도 없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들이 敎大生이란 점을 생각할 때 어떻게 애국애족의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의아심도 없지 않은 것이다. 어쨌든 젊은 이들에게 祖國의 榮光觀을 불이 넣어줄 수 있는 교육의 方向이 모색되어야 하겠음이 절감된다.

<表 2 - 4 >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 살고 싶습니까?

(단위 : %)

問 項 別	地 域 別	서 울		仁 川		春 川		計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한	국	41.3	37.5	41.2	26.7	35.8	67.7	36.1	43.9
미	국	7.5	7.5	20.3	9.4	13.1	13.5	13.6	10.1
소	련	-	1.3	6.3	3.5	1.4	-	2.5	1.6
프	랑 스	30	32.5	23.1	38.8	22.8	17.4	25.3	29.6
기	타 ()	21.2	21.2	9.1	21.6	26.9	1.4	21.5	14.8

교육을 실시한 후의 경향을 보면 43.9로 약 7.8%의 向上度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도 「프랑스」에 대한 반응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미국과 소련에 대하여는 크게 매력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특기사항이라 하겠다. 이는 결코 학교 교육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며 모든 영역에 걸친 조국의 영광관에 대한 국민의식의 배양이 병행되어야 하리라고 평가된다.

<表2-5> 性別

(단위: %)

問項別	性別	男		女	
		事前	事後	事前	事後
한	국	57.6	40.2	35.0	22.2
미	국	8.3	12.9	14.8	6.4
소	련	5.3	1.5	4.9	3.9
프	랑	14.4	26.5	29.6	44.3
기	타()	12.1	17.6	15.7	18.2
무	응	1.3	1.3		

이를 다시 性別로 보면 남자의 경우보다는 여자의 경우 더욱 외국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프랑스」를 동경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이는 여학생이 男學生에 비해 안정을 요구하는 본능에서 나타난 경향이 되고 평가된다.

또 한국에 대한 애착심 정도를 부모의 직업에 따라 분석해 보면 공무원과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출신 자녀들이 외국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애착심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이 특이할만 하다. 이는 부모의 직업에 대한 회의심이 작용하였으리라는 점도 고려될 수 있고 대학생에 대한 호소력 없는 교육이 반작용하기 쉽다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表2-6> 참조)

<表2-6> 職業別

(단위:%)

職業別 問項別	公務員		農業		工業		商業		其他	
	事前	事後								
한국	28.7	29.8	15.6	26.8	37.5	25	56.7	37.1	36.4	21.2
미국	33.6	13.5	40.6	9.7	-	8.3	5.3	5.7	6.8	9.1
소련	1.9	3.6	21.8	2.4	25	-	2.7	2.7	4.5	6.1
프랑스	29.7	28.8	9.4	43.9	25	50	23.3	40.0	31.8	39.4
기타	6.1	24.3	12.6	17.2	12.6	16.7	12.0	14.5	20.5	24.2
무응답								-		-

(3) 同一民族 意識

大學生들의 北韓에 대한 同一民族意識의 程度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북한과 미국이 경기를 한다 할 때 어느쪽을 응원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져 보았다.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反應은 다음 表와 같다.

<表2-7> 「올림픽」에서 북한과 미국이 경기를 한다면 어느쪽을 응원하겠습니까?

(단위:%)

問項別	地域別	서울		仁川		春川		計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미국	국	21.3	16.3	21.1	20.7	28.5	20.0	23.6	19.0
북한	한	33.8	51.3	40.0	59.2	19.9	47.7	31.2	52.7
모르겠다	다	12.5	17.5	17.3	12.9	8.4	9.6	14.2	17.2
아무쪽도 않는다	다	26.3	12.5	19.9	7.2	35.8	9.0	27.3	9.6
기타	타	6.1	2.4	1.7	-	7.4	13.7	1.7	1.5

사전검사에서 는 북한을 응원한다가 31.2% 미국을 응원한다가 23.6%, 아무쪽도 하지 않는다는 학생이 27.3%이었다. 그러나 2차 평가에서는 북한 응원이 21.5%가 향상된 52.7가 되었고 미국과 아무쪽도 응원치 않는다는 반응이 각각 4.6%와 17.2%가 저하되었다. 이를 볼 때 공산주의를 경계한다는 의미에서는 크게 의의가 있어 보이나 單一民族으로서의 민족의식을 생각한다면 그만큼 이질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공산주의를 경계하는 것과 민족의식을 배양하는 문제를 적어 조정하는 문제가 중시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된다. 이는 1.5%의 학생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어느쪽에도 반응하지 못한 결과가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하겠다.

이를 다시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반응이 서울 33.8%, 인천이 40.0%, 춘천이 19.9%로 산간지역의 경우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반응이 낮다. 이는 對共警戒心面에서 볼 때는 都市의 경우 대공경계심이 해이되는 경향이며 접적지구인 춘천의 경우는 강하다는 평가도 내릴수 있으나 민족동질성에 대한 의식은 도시지역이 산간지역 내지 접적지역보다 강하다는 평가도 내릴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적수준이 낮은 국민학교의 경우 북한 사람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경향에 상당수가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볼 때, 앞으로 통일의를 배양키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전개는 대공경각심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는 사전과 사후검사에서 각각 56.8%와 66.7%가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반응인데 반하여 여학생들은 사전 사후검사 각기 31.6%와 47.2%를 나타내고 있어 남녀의 차가 약 25%나 되고 있다. 이는 여학생들의 대공경각심이 남학생에 비해 강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한편에 민족동질성의식은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表 2 - 8 > 性 別

(단위 : %)

問項別	性 別	男		女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미	국	12.1	9.8	36.0	26.1
북	한	56.8	66.7	31.6	47.2
모 르 겠 다		13.6	17.4	18.8	14.3
아 무 쪽 도 좋 는 다		12.9	5.3	13.3	12.4
기	타	4.6	0.8	0.3	-

직업별로는 <表 2 - 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검사에서는 공무원들의 자녀가 민족동질성의식이 강한 반면 공업에 종사하는 부모 자녀들이 약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반응은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높은 경향이다. 이는 의미있는 반응이 되는 결론을 내릴수는 없으나 비교적 농촌출신의 학생들이 이에 높은 반응을 보인 것은 출신 환경의 폐쇄성과, 대공경각심이 강한 환경에서 자라난데 기인된

것이라고 평가된다.

<表 2 - 9 > 職 業 別

(단위 : %)

職業別 問項別	公務員		農 業		工 業		商 業		其 他	
	事前	事後								
미 국	18.8	10.9	40.6	21.9	25.0	17.5	19.3	20.1	20.4	12.2
북 한	59.4	57.3	31.1	53.7	12.5	63.6	38.7	51.4	47.7	60.6
모 르 겠 다	12.8	15.4	12.5	12.2	25.0	17.5	19.3	15.9	11.5	12.2
아무쪽도않는다	8.9	8.2	15.6	12.2	37.5	1.4	19.3	9.0	18.2	12.2
기 타	0.1	8.2	0.2	-	-	-	3.4	3.6	2.2	2.8
無 應 答										

나. 民主主義

民主主義는 國家社會의 問題解決에 對한 國民一般의 強한 關心과 愛着 및 參與를 要求한다. 民主的 方法에 對한 理解의 水準을 넘어서서 그것은 내것으로 알고 내문제처럼 생각하는 積極性이 民主主義의 円滑化를 위해서 必要한 것이다.

大學生들이 民主主義에 對하여 信賴를 表示하고 또 그것을 理想視한다면 그것에 對한 同一視感 내지는 參與의 水準은 어느 程度 일가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1) 民主意識의 內面化傾向

民主主義를 수호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일이라도 할 覺悟가 되어 있느냐는 質問에서 <表 2 - 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렇다고 37.1%, 그럴 것이다가 34.8%로 比較的 높은 便이다. 이러한 傾向이 事後에는 42.4%와 38.5%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表2 - 10> 당신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단위 : %)

問項別	地域別	서울		仁川		春川		計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그렇다		27.5	31.3	44.3	28.2	36.4	67.7	37.1	42.4
그럴 것이다		35.0	43.8	31.8	47.9	37.7	23.9	34.8	38.5
모르겠다		22.4	21.3	19.6	20.4	15.2	6.5	18.0	16.1
아니다		13.8	2.5	3.5	3.5	8.7	1.9	8.7	2.8
기타 ()		7.3	1.1	0.8	0	2.0		1.4	0.2

이것은 韓國大學生들의 對民主主義의 態度가 抽象적이거나 皮相적인 水準의 것만은 아니고 바로 自己自身들의 問題로 認識하고 있는 面도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어느 程度 民主的 價値나 方法이 內面化되었음을 表示해주고 있는 것이라 評價된다.

그러나 內面化의 程度가 單一項目으로 圧倒的이 아닌 것은 그에 대한 不安한 面이 介在해 있음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다.

地域的인 差異를 본다면 事前 檢査의 경우 서울이 그렇것이다가 35.0%, 인천은 44.3%, 춘천은 그렇것이다가 單一項目으로는 가장 높다. 그러나 事後檢査의 경우를 보면 서울은 그렇것이다가 43.8%, 仁川도 그렇것이다가 47.9%, 춘천은 그렇다가 67.7%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民主主義의 內面化에 對한 態度에 있어서도 兩面性이 露呈된다고 하겠다, 即 民主主義에 매우 強한 價値賦与를 하면서도 이를 守護할 覺悟를 묻는 問項에서는 圧倒的性向이 나타나지 않는 事實이 바로 그 한 例라고 하겠다.

(<表2 - 10> 參照)

性別의 差異를 보면 <表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男子의

경우가 内面化의 程度가 相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事前檢査의 경우를 보면 그렇다가 男子는 50.7%, 女子는 37.5%이고 事後는 男子가 40.2%, 女子는 21.7%이다. 그런데 여기서 發見되는 한 경향은 男子 모두 事後가 事前보다 낮은 比率을 보여주고 있다는 點이다. 이것은 大體로 民主主義에 對한 理想化가 教育을 通하여 現實化됨을 그대로 反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表 2 - 11> 性 別

(단위 : %)

問項別	性 別	男		女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그 령 다		49.2	40.2	37.5	21.7
그 령 것 이 다		25.8	36.2	39.5	48.7
모 르 겠 다		13.6	14.4	16.8	24.6
아 니 다		10.6	9.1	4.7	4.5
기 타 ()		0.8	0.1	1.5	0.5

職業別로 볼 때에도 그렇다가의 應答이 事前에 높다가 事後에 감소하는 全般的인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下落이 民主主義에 對한 價値의 포기가 아니라 理想化의 現實化에서 비롯한 것이 라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일런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民主主義란 問題解決의 한 方式이기 때문이다. (<表 2 - 12> 參照)

<表 2 - 12> 職 業 別

(단위 : %)

問項別	公務員		農 業		工 業		商 業		其 他	
	事前	事後								
그 령 다	45.8	23.7	43.7	43.9	37.5	30.0	39.9	31.5	22.7	31.5
그 령 것 이 다	33.6	47.2	15.6	36.6	25.0	50.0	40.0	42.9	29.5	42.1
모 르 겠 다	16.8	21.8	28.1	12.2	25.0	20.0	16.7	22.9	27.2	2.3
아 니 다	2.9	7.3	9.4	7.3	12.5	-	2.7	2.7	18.4	6.1
기 타 ()	0.9		3.2	-	-	-	0.7	-	2.2	18.0
무 응 답										

(2) 政体에 對한 信賴

70年代의 우리 사회의 課題는 民族的 宿願인 國土統一을 成就하기 위해 우리가 그 準備作業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韓國이 4千年의 歷史 속에서 連綿 單一民族國家 形成을 向하여 發展되어 왔고 또 수많은 困難을 當해서도 오히려 民族的 統一 意志를 鍛練하여 統一國家를 形成 해 왔다. 이 歷史의 흐름앞에 우리의 사소한 打算이나 感情이 있을 수 없다. 統一은 우리 世代的 至上課題인 것이다. 이러한 統一의 至上課題를 強調 할 境遇에 우리는 性急한 統一論議에 빠지기 쉽고 統一을 위해서는 어떠한 犧牲도 각오해야 한다는 感情論에 빠지기 쉽다. 統一은 이룩되어야 하되 自主와 獨立이라는 民族的 大義에 合當하고 民主的 方法으로 이룩되어야 한다. 統一에 對한 障礙는 여러가지 要因이 있겠으나 敎條的이며 僵化주의를 信奉하는 共產主義者들의 閉鎖性이 가장 큰 原因이다. 그렇다면 統一에 대비한 우리의 姿勢는 無條件的인, 感情的인 統一이 아니라 自主와 獨立과 平等과 民主를 基調로한 民族國家의 建設이라는 次元에서 論議되어야 한다.

따라서 統一 그 自体도 重要하나 그것 以上으로 重要한 것은 統一의 方向이 어떠한 것이어야 할 것인가에 關한 우리의 姿勢이다. 特히 南·北對話의 門을 열어놓고 있는 이 時점에서 競爭相對를 意識하고 우리의 姿勢를 再三 点檢 해보지 않을 수 없다.

<表 2 - 13 >에 의하면 ;

統一만 된다면 우리나라의 政治體制가 어떻게 變해도 괜찮다고

< 表 2 - 13 > 당신은 統一만 된다면 우리나라의 政治体制가 어떻게 變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單位 : %)

問項別	地域別		서 울		仁 川		春 川		計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① 그렇다	13.8	7.5	8.2	3.9	11.0	1.9	10.3	4.4		
② 아니다	22.5	27.5	33.8	26.7	21.9	23.9	29.4	26.6		
③ 民主主義는 어느 對 價와도 바꿀수 없다	58.7	58.8	49.4	66.3	63.0	74.2	55.3	66.4		
④ 모르겠다	2.5	6.2	5.9	1.9	2.1	-	3.5	2.2		
⑤ 其他 ()	2.5	-	2.7	1.2	2.0	-	1.5	0.4		

생각하느냐는 質問에서 58.3%에 該當하는 學生들이 民主主義는 어느 對價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明白한 立場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教育을 받은 以後의 調査에서는 66.4%로 더욱 頻度가 높아지고 있다. 反面에 그렇다는 10.3%에서 事後에는 4.4%로 激減되고 있다. 이것은 大學生들이 自由와 平等을 主軸으로 하는 民主主義에 對하여 強한 愛着을 表示 해주는 結果이다. 이러한 信念에 對한 強한 愛着은 바로 지난 20余年 동안의 民主的 教育이 가져온 長点인 것이다.

그러나 10%에 該當하는 學生은 体制를 考慮치 않는다는 反應을 보임으로써 幻想的 統一論에 젖어있는 學生이 이 程度 된다는 結論도 내릴 수 있어 앞으로 大學에 對한 政治思想教育의

方向이 再考되어야 할 것으로 判断된다.

이를 다시 性別로 보면 <表 2 - 14 >에 提示된 것 처럼 体制에는 關係없다는 反應이 事前 檢査에서 男子 12.1%, 여자 5.9%이다. 그러나 教育實施 後인 事後 檢査에서는 男子 10.6%, 여자 1.0%로 낮아진 反應을 보여 教育效果를 立証시켜 주고는 있지만 男子의 境遇 아직도 10%線을 固守하고 있다는 것은 警戒를 要하여야 할 点이다.

<表 2 - 14 > 性 別 (單位 : %)

問項別	男		女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① 그렇다	12.1	10.6	5.9	1.0
② 아니다	36.3	33.0	29.6	24.1
③ 民主主義는 어느 對 價와도 바꿀수 없다	47.0	51.5	57.1	72.9
④ 모르겠다	2.3	3.1	4.9	1.0
⑤ 其 他	2.3	1.8	2.5	1.0

(3) 民主主義의 土着化에 對한 態度

10月維新 以後 統一을 指向하고 能率과 組織을 具體化 할 理念的 表現으로 韓國 民主主義 理念이 提起되고 있다. 이에 對한 大學生들의 態度는 어떠한가?

이제 까지 民主主義는 過渡社會인 韓國이 指向 해 나가야 할

理想으로서의 민주主義이었다. 韓國의 現實을 비추어 볼 代案은 바로 西歐의 理念的 民主主義이었다. 이러한 文脈 속에서 提示된 韓國的 民主主義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不可避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消極性에서 考慮되어 왔다. 卽 韓國 民主主義는 價值 肯定的인 어떤 것이 못하고 方便的이고 一時的인 것으로 보는 傾向이 없지 않다.

이것은 典型的인 事大的 思考의 偏見이라고 볼 수 있다. 內問題를 解決키 위하여 우리가 努力을 傾注하는 때에 自虐的이거나 冷笑的인 態度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西歐의 民主主義를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歷史的 變遷過程을 따라 그 모습을 달리 해 오고 있는가? 民主主義가 가장 發達된 英國에서도 投票權이 擴大된 것이 19世紀 以後이며 女子에게 投票權이 賦與된 것은 1920年代인 것이다. 民主主義는 그 國家와 社會의 問題를 合理的으로 解決하기 위한 方案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社會의 當面課題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民族的 自立의 能力을 涵養하기 앞서 國際的인 混濁한 潮流에 휩쓸리고 있고 또 南·北의 對話 開始로 競爭體制를 確立해야 할 民族的 課題에 直面 해 있다. 國際社會에 있어 民族的 自決의 幅을 擴大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만한 國力을 培養해야 하며 國力의 培養을 위해서는 國內外的 모든 潛在的 能力을 組織化하여 最大의 能率을 發揮해야 한다.

이러한 民族的 要請 속에서 發端된 理念이 韓國的 民主主義이다. 그것은 남의 問題解決方式을 模倣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問題를

보다 効率的으로 解決하자는 우리의 意志의 表現이다. 따라서 이
에 對한 否定的이고 消極的인 態度가 아니라 이에 對한 積極的인
價值 賦与,乃至는 内面化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角度에서 韓國的 民主主義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質問을
提示 해 보았다. 이에 對한 學生들의 反應을 보면 <表 2-15>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리 形便에 아주 適切한 것이다 - 라고
보는 見解가 事前에는 31.7%, 民主主義 하기가 어려운 環境의
産物이다 - 라는 応答이 33.5%이다. 그러나 事後의 境遇를 보면
우리 形便에 適切한 것이다가 51.9%, 어려운 狀況의 産物이다가
19.8%이다. 即 韓國 民主主義에 對한 消極的 態度에서 積極的인
態度로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表 2-15> 당신은 韓國的 民主主義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單位: %)

地域別 問項別	서울		仁川		春川		計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① 우리 形便에 아주 適切한 것이다	37.5	41.3	37.6	58.4	20.0	56.1	29.8	51.9
② 만부득이한 일이다	16.3	20.0	27.5	20.8	34.7	20.5	26.2	20.3
③ 民主主義하기가 어려운 狀況의 産物이다	31.2	23.8	24.3	13.4	27.3	22.2	28.5	19.8
④ 모르겠다	10.0	11.3	8.2	7.4	10.0	0.6	9.4	6.5
⑤ 其他 ()	5.0	3.6	2.4	0	8.0	0.6	6.1	1.5

各 地域別로 보아도 이것은 거의 過半數 以上の 頻度를 보여주고 있다. 事前과 事後를 比較할 때 서울이 37.5%에서 41.3% 仁川이 37.6%에서 58.4, 春川이 20.0%에서 56.1%로 急增해가고 있다. 이것은 大學生들이 韓國問題의 狀況에 매우 密着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性別의 差異를 보면 男學生들은 大體로 그 態度가 安定的인데 比하여 女學生의 境遇에는 事前과 事後가 38.0%와 66.0%로 急增하고 있다. 女學生들이 男學生 보다 政治的인 態度가 相對的으로 不安한 境地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흔히 政治問題에 關한 關心이 女子 보다 男子의 境遇 크다고 하면 이러한 一般的 傾向이 韓國 民主主義에 對한 態度에도 影響을 주었을 可能性도 있다. (<表 2 - 16> 參照)

<表 2 - 16> 性 別

(單位：%)

問 項 別	男		女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① 우리 形便에 아주 適切한 것이다	37.1	36.3	38.0	66.0
② 만부득이한 일이다	23.5	29.5	17.5	14.8
③ 民主主義 하기가 어려운 狀況의 產物이다	28.1	22.6	34.0	11.3
④ 모르겠다	9.8	9.8	9.3	7.4
⑤ 其 他 ()	1.5	1.8	1.2	0.5

職業別로 보아도 事前에는 応答이 매우 分散的인데 比하여 事後에는 우리 形使에 適切한 것이다라는 項이 단연 最大頻度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点에서 國民 倫理教育이 學生들의 意識水準을 韓國化 하는데에 매우 큰 寄与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即 民主主義의 土着化에 對한 積極的인 姿勢가 創出되고 있는 셈이다. (<表 2 - 17 > 參照)

<表 2 - 17 >

職 業 別

(單位：%)

問 項 別	公 務 員		農 業		工 業		商 業		其 他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① 우리 形使에 아주 適切한 것이다	24.7	36.3	28.1	56.1	62.5	45.5	49.3	72.1	29.5	39.4
② 만부득이한 일이다	23.7	30.6	40.6	9.7	10.5	27.3	21.3	16.4	26.9	6.1
③ 民主主義 하기가 어려운 狀況의 產物이다	41.5	27.2	12.5	14.6	25	9.1	10.7	5.0	25.6	36.4
④ 모르겠다	7.9	5.4	15.6	17.1	2.0	9.1	8.9	6.4	8.8	18.1
⑤ 其 他 ()	2.2	0.5	3.2	2.5	-	9.0	10.3	0.1	9.2	-

여기에서 留意 할 點은 教育 以後에도 아직 까지 韓國 民主主義에 對한 消極的인 反應이 19.8%나 된다는 事實이다. 앞으로 이에 對한 積極的인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自由民主主義에 對한 現實的 理解度

지난 4半世紀 동안 우리나라의 民主教育은 西歐社會에서 開花한 自由民主主義를 模型으로 해 왔다. 個人의 自由와 平等을 根本精神으로 하는 理念으로서의 民主主義가 現實적으로 100% 適用되고 있는 國家는 存在하지 않는데도, 우리의 現實과 理念과의 사이에 介在하는 "틈"으로 因하여 教育을 받으면 받을수록 西歐 指向的 政治意識을 갖게되어 非韓國的 思考와 價值를 지니는 風潮가 一部에서 造成되고 있었음도 事實이다.

民主主義는 西歐의 社會가 直面한 問題를 解決키 위한 한 方案이었다. 그러므로 普遍概念으로서 民主主義는 存在하지 않고 英國의 民主主義, 「프랑스」의 民主主義가 存在 할 뿐이다. 自由民主主義라는 用語가 抽象的인 概念이나, 英國이나 「프랑스」의 것을 意味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 社會에 適用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社會의 問題는 우리 社會의 解決 方式을 要求한다.

知識階層의 性向이 西歐文化 導入의 偏向的 思考로 因하여 自由民主主義에 對한 認識과 愛着이 非知識階層 보다 相對적으로 높은 것은 過渡社會의 一般的 特徵이다. 自己가 몸담고 있는 現實에 同一觀感을 갖지 못한다면 現實問題 打開을 위한 積極的인 努力도 傾注될 수가 없다. 國民 倫理教育은 韓國人이 韓國人으로 韓國問題를 思考하고 念慮하는 姿勢의 確立에 그 根本目的이 있다.

民主主義에 對한 態度를 살펴 보는데 있어 優先 自由民主主義에 對한 反應을 調査 해 보았다. 그 反應에서는 매우 現實的인 性格이 露呈되고 있다. 卽 理念으로서의 民主主義에 對한 價值 肯

定과 韓国的 実情이라는 狀況에 對한 考慮에서 韓国的 狀況쪽이 優勢를 占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形便에 비추어 自由民主主義가 適合하느냐고 묻는 質問에 對하여 <表 2 - 1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렇다가 18.6% 適合치 않다가 40.8% 였다. 單一項目으로는 適合치 않다가 가장 頻度가 많다. 事後의 경우를 보면 單一項目으로는 適合치 않다가 36.7%로 如前히 高率이지만 그렇다가 33.7%로 상당히 上昇하고 있다. 그것은 韓国的 狀況과 그 理念間에 介在하는 意識의 兩面性이 아직도 存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兩面性은 理念쪽이나 理念쪽이 아닌 韓國問題의 所望스러운 解決方案으로 安定되어야 할 것이다. (韓国民主主義 項 參照)

<表 2 - 18 >

당신은 우리나라의 形便에 비추어
自由民主主義가 適合하다고 봅니까?

(單位 : %)

地 域 別 問 項 別	서 울		仁 川		春 川		計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① 그렇다	26.2	37.5	27.5	28.2	21.7	35.5	21.5	33.7
② 그럴 것이다	8.8	21.3	14.5	14.9	21.9	16.8	18.4	21.0
③ 잘 모르겠다	25.0	11.3	12.5	14.5	6.6	6.5	15.1	10.8
④ 適合치 않다	35.0	26.1	43.9	40.0	44.2	41.2	40.8	32.4
⑤ 其 他 ()	5.0	3.8	1.6	2.4	5.6	-	4.2	2.1

地域別로 볼 때에도 全般的 傾向은 別差異가 없다. 그러나 兩面性的 境遇를 보면 大都市인 서울地方이 地方都市 보다 相對的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이 地方都市 보다 文化的 偏重的 性向이 一般的으로 짙다고 된다면 그러한 傾向의 反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性別로 學生들의 反應을 보면 男·女學生 모두 意識의 二重的 傾向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女學生의 境遇를 보면 그렇다가 18.3%, 適合치 않다가 41.9%였는데 事後의 境遇에는 그렇다가 34.6%로 增加하고 適合치 않다는 40.9%로 別差異가 없어 單一頻度로는 適合치 않다가 가장높다.

<表 2 - 19> 性 別

(單位: %)

問 項 別	男 性		女 性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① 그렇다	31.1	36.6	18.3	30.6
② 그럴 것이다	15.1	18.6	16.8	11.3
③ 잘 모르겠다	12.1	14.4	17.8	13.3
④ 適合치 않다	40.2	29.6	41.9	40.9
⑤ 其 他 ()	1.5	0.8	5.2	3.9

그러나 男學生의 境遇를 보면 그렇다가 31.3%, 適合치 않다가 40.2%로 事前의 境遇에는 適合치 않다가 가장 高率이나 事後의 境遇에는 그렇다가 36.4%, 適合치 않다가 29.6%로 그렇다가 單一項目으로는 그 頻度가 가장 크다. 이것은 女學生의 境遇 그렇다의 回答이 事後에 增加하는 傾向과 매우 對照的이다. 民主主義에 對한 回答에 있어 理想과 現實間의 乖離現象으로 因한 不安定된 面의 表現이라 하겠다. 이것은 우리의 過去의 民主教育이 바로 理想爲主의 教育이었다는 데서 自招된 結果라고도 하겠다. 父母의 職業에 따른 學生들의 反應을 보면 <表 2 - 20>과 같다.

그렇다의 境遇를 보면 工業과 商業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근소한 增加가 눈에 띄이나 適合치 않다가의 境遇를 보면 其他項을 除外하고는 事後가 事前 보다 大體로 낮은 傾向을 보이고 있다. 特히 農業과 工業의 境遇를 보면 그렇지 않다가의 項에 變化가 甚하다.

農業의 境遇를 보면 事前에 86.2%였던 것이 事後에는 43.9%로 半減되고 있으며 工業의 境遇도 事前의 50%에서 18.2% 急激히 減小되고 있다. 이것은 大體로 安定된 性向을 보여 주는 公務員의 境遇와를 比較하면 매우 對照的이다. 公務員 子女의 境遇를 보면 그렇다의 境遇가 事前에는 32.6%, 事後에는 36.3%

適合치 않다가 事前에는 39.6%에서 事後에는 32.7%로 大体로 肯定的이다. 이것은 公務員子女의 境遇가 民主主義에 對한 態度에 있어 相對的으로 現實的인 反面, 農村民의 子女들은 理想的인 面에 偏重되고 있는데서 나타난 結果라고 하겠다. 어쨌던 埋念的 水準의 理解에서 現實的인 感覺의 強調가 特히 大學生들에게 表示되었다는 데서 注目 할 傾向이라 하겠다.

<表 2 - 20 > 職 業 別

(單位：%)

問 項 別	公 務 員		農 業		工 業		商 業		其 他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① 그 령 다	32.6	36.3	31.1	34.4	25.0	18.2	23.3	20.0	29.3	33.4
② 그 령 것 이 다	8.9	11.8	15.6	9.7	12.5	27.3	17.3	27.1	6.8	12.1
③ 잘 모 르 겠 다	15.8	16.4	6.2	7.3	12.5	18.2	14.7	13.3	20.8	9.1
④ 適 合 치 않 다	39.8	32.7	46.0	43.9	50.0	18.2	43.3	37.9	38.6	39.4
⑤ 其 他 ()	2.9	2.8	1.1	4.7	-	18.1	1.4	1.7	4.5	6.0

다. 反共意識

大學生들의 態度가 매우 非現實的이며 空想的이라고 생각하
는 사람이 없지 않다. 勿論 一部の 學生들이 그럴 수도 있겠으
나 우리 大學生의 大部分은 그 姿勢가 매우 安定되어 있고 또
思慮 깊다는 점이 本研究에서 發見되고 있다.

(1) 大學生의 教練時間에 對한 態度

大學生活에 教練이 實施될 때 이에 對한 大學生들의 反
應은 肯定的이기 보다는 消極的인 면이 없지 않았다. 卽 마치
못해 한다는 態度의 呼應이었다.

그러면 南北對話가 實施되고 있는 現在에 있어 教練에 對한 大
學生들의 反應은 어떠한가를 <表 2-21>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表 2-21> 學生은 現在 實施하고 있는 教練時間에 對하여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單位: %)

問 項 別	地 域 別		서 울		仁 川		春 川		計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① 南北對話가 展開되므로 教練 時間은 不必要한 時間의 낭비라고 본다.	2.5	6.3	11.7	2.4	11.3	1.9	6.3	3.5		
② 對話가 이루어지고 있다해도 共產主義者들이 戰爭을 포기한것이 아니므로 教練時間은 있어야 한다	66.3	70.0	56.5	79.6	41.0	60.7	56.6	70.1		
③ 對話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教 練時間은 폐지하여야 한다	3.6	2.5	2.0	9.0	0.7	-	2.3	3.8		
④ 對話가 있던 없던간에 北韓이 戰爭을 포기하지 않는 한 教練 時間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26.3	18.8	29.8	9.0	43.0	37.4	33.0	21.7		
(5) 其 他	1.3	2.4	-	-	4.0	-	1.8	0.9		

平和「무드」가 支配的이니까 教練은 아예 必要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大学生들의 大部分은 教練에 對하여 매우 積極的인 反應이다. 南北對話는 있지만 教練이 있어야 한다가 54.6%, 對話와는 關係없이 있어야 한다가 33.0%이다. 大学生들은 共產主義를 意識치 않는 狀況속에서는 혹 教練에 對한 態度가 微溫的일 수 있으나 對話이건 아니건 相對方을 意識하는 한 教練에 對하여 매우 積極的이다. 이런 點에서 보면 南北對話는 大学生들의 民族愛를 불러 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姿勢定立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이 이 研究結果에서도 나타난다. 이를 地域別, 性別, 職業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地域別로 보면 教練時間이 있어야 한다 서울은 3.7%의 向上度를 보였고 仁川과 春川은 각 17.1%와 19.6%의 向上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軍事訓練을 強化해야 한다는데 對하여는 現在의 정도로 만족하고 그 이상에 對하여는 소극적인 反應을 보이고 있다. 이는 共產主義와 맞서고 있는 우리의 現實과 激變하는 國際情勢에 對처하기 爲하여 自主國防을 爲하여 教練時間이 必要는 하나 더욱 強化한다는 意見에는 극히 소수의 學生이 反應하고 있을 뿐이다.

또 教練時間의 廢지에 對하여는 事前調査의 前에 比하여 教育後에는 教練時間의 必要性을 느끼고 있는 傾向이다. 特히 女學生의 경우 教育前에는 20.7%가 教練의 必要性을 70%가 느끼지 않고 있었으나 教育後에는 3.0%만이 教練의 不必要성을 主張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北韓의 實態와 國際情勢를 이해하고

이에 對處態勢를 느끼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解釋되며 一般國民에 對한 國內外 情勢를 呼訴力있게 지도할 必要性이 절감되는 것이다. (<表 2 - 22 > 參照)

<表 2 - 22 > 性 別

(單位 : %)

問 項 別	男		女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南北對話가 전개되므로 教練時間은 不 必要한 時間의 낭비라고 본다.	3.0	3.8	15.8	3.0
對話가 이루어지고 있다해도 共產主義 者들이 戰爭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教練時間은 있어야 한다.	75.0	76.5	47.3	79.0
對話가 이루어 지고 있으니 教練時間 은 폐지하여야 한다.	11.3	10.4	20.7	3.0
對話가 있던 없던간에 北韓이 戰爭을 포기하지 않는한 教練時間은 더욱 強 化해야 한다.	9.1	8.3	16.2	15.0
무 응 답	1.6	1.0	-	-

또 教練時間에 對한 反應結果를 學生父母의 職業別로 살펴보면 <表 2 - 23 > 에서 보는 것 처럼 教育前에는 農業에 종사하는 家庭出身의 學生들이 軍事訓練의 不必要性을 느끼는 빈도가 比較 的 높았으나 教育後에는 그 빈도가 가장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 는 國內外的 狀況에 對하여 知識을 얻을 機會가 적었거나 生活

의 安定에 따른 結果에서 緣由된 것으로 解釋되기도 한다.

<表 2 - 23> 職 業 別

(單位：%)

問 項 別	公 務 員		農 業		工 業		商 業		其 他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南北對話가 전개되므로 教練時間은 不必要한 時間의 낭비라고 한다	1.9	-	3.1	2.4	12.5	10.2	8.3	5.7	2.2	3.0
對話가 이루어 지고 있다해도 共產主義者들 이 戰爭을 포기한것이 아니므로 教練時間은 있어야 한다	60.3	83.6	56.2	82.9	75	81.8	54.0	68.9	70.4	78.8
對話가 이루어지고 있 으니 教練時間은 폐지 하여야 한다	10.9	8.2	15.7	4.9	-	-	6.6	11.4	13.6	-
對話가 있던 없던간에 北疆이 戰爭을 포기하 지 않는한 教練時間은 強化하여야 한다	26.9	8.2	25.0	9.8	12.5	8.0	30.7	13.5	11.3	18.2
무 응 답	-	-	-	-	-	-	0.4	0.5	2.5	-

(2) 大學生들의 共產主義者 說得 自信度

大學生들은 國民의 지도적 위치에 있을 사람들이라 생각할 때 과연 이들이 共產主義者들을 얼마나 說得自信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重大한 問題이다. 특히 이는 民主主義에 對한 確信度를 立証하는 것이라 判斷되어 北疆學生들을 만난다고 할 때의 그

自信度を 물어 보았던 것이다.

이에 대한 反應은 <表 2 - 24 >에서 보는 것 처럼 說得自信이 있다는 學生은 教育前에 64.7 %이고 自信이 없다는 學生이 19.9 %이다. 대체적으로 自信이 있다는 學生이 과반수를 넘고 있어 比較的 良好한 편이다.

<表 2 - 24 > 學生은 北韓學生과 만났다고 할때 民主主義의 우월성을 自信있게 說得 시킬 수 있겠습니까?

(單位 : %)

地域別 問項別	서울		仁川		春川		計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그렇다	67.4	55.0	65.1	66.2	61.6	85.2	64.7	68.8
자신이 없다	18.8	20.0	20.3	13.0	22.5	9.6	19.9	15.4
모르겠다	13.8	21.3	13.3	20.8	15.2	4.7	14.1	15.6
무응답	-	3.7	1.3	-	0.7	0.5	1.3	0.2

여기에 특이한 事項은 教育前에는 都市學生의 경우 說得自信度の 빈도가 높았었는데 反하여 教育後에는 그 反對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골의 경우 이 方面에 對한 기초교육이 없었다가 教育後 多少의 知識을 얻은데 만족하여 反應한 結果라 解釋된다.

이를 다시 性別로 보면 <表 2 - 25 >에 나타난것 처럼 教育前에는 男子들이 比較的 自信있는 反應이었으나 教育後에는 男女가 거의 同率의 反應이었고 自信이 없다는 反應의 傾向도 男子들

보다도 오히려 女子들의 경우에 自信이 있는 편으로 反應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共產主義를 批判하고 民主主義의 우월성을 확신시킴에 있어서 女性教育이 効果的일 수 있다는 단편적인 資料를 얻을 수 있었다.

<表 2 - 25> 性 別

(單位：%)

問 項 別	性 別		男		女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그 령 다	77.2	63.6	48.3	63.5		
자 신 없 다	10.6	15.2	19.3	14.3		
모 르 겠 다	12.2	20.4	31.5	21.2		
무 응 답	-	0.8	0.9	1.0		

또 父母의 職業別로 分析해 보면 公務員들의 子女들이 自信이 적다는 反應인 바, 이에 對한 原因은 밝혀지고 있지 않다 (<表 2 - 26>參照) 앞으로 이에 對한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이다.

<表 2 - 26> 職 業 別

(單位：%)

問 項 別	公 務 員		農 業		工 業		商 業		其 他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그 령 다	43.5	38.2	59.3	44.2	62.5	50.0	81.3	89.4	68.2	69.7
자 신 없 다	30.9	20.9	28.1	30.2	25.0	25.0	9.3	4.2	22.7	6.1
모 르 겠 다	25.6	40.9	12.5	20.9	12.5	17.5	6.6	5.6	9.1	24.2
무 응 답	-	-	0.1	4.7	-	7.5	2.8	0.8	-	-

(3) 高等学校까지의 反共教育에 對한 反應

大學 一學年의 경우 12年間의 反共教育을 받은 것이다. 이들이 과거의 反共教育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 보았다.

이에 對하여 學生들은 <表 2 - 27 > 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좋은 教育內容이 있다는 反應은 불과 18.0%에 지나지 않고 실제와 는 거리가 먼 教育內容이었다가 65.9%로 지배적이었다.

<表 2 - 27 > 高等学校까지의 반공도덕 시간에 對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單位: %)

地域別 問項別	서울	仁川	春川	計
	事前	事前	事前	事前
매우 좋은 교육내용이었다	13.0	27.8	15.2	18.6
실제와 거리가 먼 교육내용이었다	67.5	58.8	71.5	65.9
기 타	19.5	13.4	13.3	15.5

이를 地域別로 보면 시골일수록 더욱 거리가 먼 教育內容 이었다는 反應이다. 이를 다시 性別로 보면 男學生의 경우는 실제와 는 거리가 먼 教育이었다는 反應이 66.7%나 되는데 반하여 女學生의 경우는 男學生에 비하여 매우 좋은 教育內容 이었다는 反應이 38.9%이다. (<表 2 - 28 >)

또 父母의 職業別로 보면 農業에 종사하는 父母의 子女들이 실제와 는 거리가 먼 教育內容이다에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어 農村學生들의 반공교육에 對한 불신경향이 높으리라 예상된다.

(<表 2 - 29 >參照)

<表 2 - 28 > 性 別

(單位：%)

問 項 別	性 別	
	男	女
매우 좋은 교육내용 이었다	17.4	38.9
실제와 거리가 먼 교육내용이었다	66.7	56.2
기 타	14.4	3.9
무 응 답	1.5	1.0

<表 2 - 29 > 職 業 別

(單位：%)

問 項 別	職 業 別				
	公務員	農 業	工 業	商 業	其 他
매우 좋은 교육내용이었다	28.5	15.6	33.3	18.0	36.4
실제와 거리가 먼 교육내용이었다	60.0	78.1	55.5	63.3	38.6
其 他	9.4	6.3	11.2	16.7	22.8
무 응 답	2.1	-	-	2.0	2.2

(4) 앞으로의 反共教育에 對한 方向

앞으로의 反共教育에 對한 學生들의 의견은 <表 2 - 30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理論 위주가 7.1%, 北韓 실정 위주가 17.2%, 이론과 실제 반반으로 하자는 의견이 65.7%이었다. 이는 教育後 더욱 그러한 反應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表 2 - 30 > 앞으로의 반공교육은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單位：%)

地域別 問項別	서울		仁川		春川		計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이론 위주로	7.5	1.3	7.1	0.8	6.6	3.3	7.1	2.0
북한실정위주로	21.5	22.5	11.7	4.7	18.5	18.0	17.2	16.2
이론과실제반반으로	50.0	73.8	73.7	93.7	71.5	78.7	65.1	81.1
기 타	21.0	2.4	7.5	0.8	3.4	-	10.6	0.7

혹자는 大學의 경우는 理論 위주로 되어야 하리라는 여론이 있었으나 본 「프로그램」의 성질로 보아 理論과 실제가 반반으로 내용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5) 反共教育의 必要性

7.4 共同声明以後에 一部에서 性急한 統一論議가 抬頭됨에 따라 反共教育이 過去와 같이 必要할 것이냐는 회의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것은 國際的인 조류가 解氷의 傾向을 띠움에 따라 더욱 不可避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할 所地가 있었다.

그러나 共產主義者들이 獨斷的이며 팽창주의적인 姿勢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國際的 与件變化에 따른 一時的인 対応措置로서 對話에 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맞서는 우리의 姿勢에 조금이라도 소홀한 점이 있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斷切되었던 狀態로 부터 競爭의 相對로 認識되면 우리의 姿勢는 더욱 더 치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學生들의 反共教育에 對한 態度를 물어 보았다. 그 反應을 보면 <表 2 - 31> 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 2 - 31> 7.4 共同聲明이 發表된 지금 당신은 反共教育이 必要하다고 보십니까?

(單位：%)

問項別	地 域 別		서 울		仁 川		春 川		計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지금이야 말로 철저한 反共教育이 絶실히 必要하다	65.0	62.5	69.4	80.8	68.2	74.1	67.5	72.5		
反共教育의 必要性은 그 전과 같다	27.5	33.8	22.7	16.1	24.5	23.3	24.9	24.4		
그 전보다는 덜 必要하다	3.8	2.5	5.1	1.6	6.0	1.9	5	2		
이제는 전혀 必要하지 않다	3.7	1.2	2.8	1.5	1.3	0.7	2.6	1.1		

7.4 共同聲明이 發表된 지금 反共教育이 必要하다고 보느냐는 質問에서 지금이야말로 철저한 反共教育이 絶실히 必要하다가 67.5%로 매우 높은 便이고 事後의 경우에는 72.5%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地域別 現況을 보면 서울은 65.0%에서 약간 감소되어 62.5%, 仁川은 69.4%에서 80.8%, 春川은 68.2%에서 74.1%로 增加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가 별 변동이 없는 것은 서울이 他地方보다 다른 政治的 意識水準의 差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性別의 現況을 보면 男學生의 경우는 絶실히 必要하다가 73.5%에서 68.9%로 약간 감소하며 女子의 경우에는 65.0%에서 79.8%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 亦是 男學生이 女學生보다 政治 意識上에서 갖는 差異때문이라고 하겠다. (<表 2 - 32> 參照)

<表 2 - 32 > 性 別

(單位：%)

問 項 別	性 別		男		女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지금이야 말로 철저한 反共教育이 절실히 必要하다	73.5	68.9	65.0	79.8		
反共教育의 必要性은 그전과 같다	19.6	25.0	30.6	17.3		
그전 보다는 덜 必要하다	4.5	3.8	3.9	2.4		
이제는 전혀 必要하지 않다	2.4	2.3	0.5	0.5		

職業別로 보아서도 全般的인 傾向은 別差異가 없다. 다만 公務員의 경우가 其他의 경우보다 매우 높으면서 安定된 性向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即 公務員의 경우를 보면 事前이 80.1%에서 事後가 78.2%인데 比하여 農業은 43.7%에서 65.9%로 急增하고 있다. 또 單一項目으로 公務員의 경우에는 80.1% 내지는 78.2%로 매우 圧倒的이다. 이런 점에서 公務員의 子弟들의 反共意識이 相對的으로 투철하고 또 安定되어 있다 하겠다. (<表 2 - 33 > 參照)

<表 2 - 33 > 職 業 別

(單位：%)

問 項 別	公 務 員		農 業		工 業		商 業		其 他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지금이야 말로 철저한 反共教育이 절실히 必要하다	80.1	78.2	43.7	65.9	37.5	54.5	72.7	83.4	61.3	66.5
反共教育의 必要性은 그전과 같다	18.8	20.0	43.7	29.2	37.5	36.3	22.0	13.6	25.0	27.3
그전 보다는 덜 必要하다	0.9	1.8	10.5	4.9	25.0	9.2	3.3	3.0	9.1	6.2
이제는 전혀 必要하지 않다	0.2	-	2.1	-	-	-	2.0	-	4.6	-

라. 國際情勢

現代는 「이데올로기」의 時代가 아니라 國家利益의 時代라고 한다. 名分の 時代가 아니라 實利의 時代인 셈이다.

6.25 南侵이 있었을 때 自由友邦은 우리를 도왔다. 그러나 20 餘年の 時間은 国内的으로나 國際적으로 많은 變化를 招來했다.

우선 國際적으로 볼 때 解氷風潮와 더불어 理念爲主의 集團安保는 점차 褪色해 가고 地域中心의 實利追求가 前面에 나서고 있다.

그럼으로 자라나는 大學生들에게 이 分명한 國際現實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서 祖國韓國이 이에 對峙해 나갈 姿勢를 가다듬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友邦에 對한 依存度

6.25 와 같은 慘變이 再發할 경우에 友邦國이 우리나라를 6.25 때와 같이 도와주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對하여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학생이 51.3 %였고 잘 모르겠다가 18.5 % 그렇다가 17.3 %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학생이 전 학생의 반수 정도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문항에 대해 서울은 82.5%, 인천 48.2%, 춘천 23.2%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울 즉 대도시의 학생일수록 냉철하게 국제 現實을 실감하고 있는 듯하다.

도와 줄것이라는 문항에 서울 5%, 인천 5.1%, 춘천 41%로 나타나 있는 것도 같이 해석될 수 있다.

<表 2 - 33 >

6.25와 같은 전쟁이 발발하면 6.25 때와 같이
우방국이 우리를 도와 주리라고 생각합니까?

(단위 : %)

問 項 別	地 域 別		서 울		仁 川		春 川		計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① 그렇다	5.0	1.3	5.1	6.7	41.7	1.9	17.3	3.3		
② 그럴 것이다	3.8	18.8	25.1	23.5	4.6	23.0	11.2	19.4		
③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82.5	58.8	48.2	46.7	23.2	62.3	51.3	57.9		
④ 잘 모르겠다	8.7	21.1	20.0	22.7	28.5	12.2	18.5	19.1		
⑤ 기 타	-	-	1.6	0.4	2.0	0.6	1.7	0.3		

실험후를 보면 도와 줄것이다라는 학생이 21.9%로 10.7%가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에 57.9%로 6.6%의 증가를 보였다. 地域別로는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에 서울 58.8로 23.7%, 인천 46.7%로 15%가 감소되고 춘천은 반대로 68.3으로 45.1%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춘천은 도와주리라고 생각하던 (41.7%) 학생이 실험후엔 1.9%밖에 없다. 이를 보아 실험교육과정은 국제정세를 냉철히 비판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해석된다.

성별로 보면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항에 남학생이 62.1% 여학생이 68.6%였는데 실험후 남학생은 33.4%, 여학생은 66.1%로 변화되어 남학생들이 더욱 국제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表 2 - 34 > 性 別

(단 위 : %)

問 項 別	男		女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① 그렇다	3.8	4.5	16.3	5.4
② 그럴 것이다	25.0	37.9	8.9	12.3
③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62.1	34.1	57.0	60.1
④ 잘 모르겠다	9.1	22.7	16.3	22.2
⑤ 기 타	-	0.8	1.5	-

(2) 国力에 對한 確信度

오늘날의 國際情勢는 兩極體制에서 多極體制로 變化되었고 美利追求의 方向으로 줄 달음치고 있는 현실을 대학생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국제질서의 변화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본 결과 < 表 2 - 35 >에서 보는 바와 같은 反應을 보였다.

즉, 상호신뢰가 25.1%, 상호양보가 15.3%, 국력배양이 51.3% 우방의 원조와 기타가 각각 5.1%와 1.2%로 나타났다.

특히 국력배양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反應을 보였다는 것은 비교적 국제정세에 대하여 현실적인 안목으로 접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 믿음직스럽기도 하나 아직도 상호 신뢰나 상호 양보의

미덕만을 기대한다는 학생이 적지 않다는 데 대하여서는 요경제한 사항이라고 해석된다.

특히 교육후 국력배양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13.8%나 향상되었다는 사실은 본 교육「프로그램」이 적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表 2 - 35 > 세계는 공산주의와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공산주의와의 대화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

(단위 : %)

問 項 別	地 域 別		서 울		仁 川		春 川		計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① 상 호 신 퇴	20.8	32.5	32.6	21.2	21.9	24.5	25.1	26.1		
② 상 호 양 보	13.8	6.3	11.8	6.3	20.5	7.1	15.3	6.6		
③ 국 력	62.5	58.8	50.6	72.5	42.4	63.9	52.3	65.1		
④ 우 방 의 원 조	1.6	1.3	3.8	-	13.2	1.3	6.1	0.9		
⑤ 기 타	1.3	1.1	1.2	-	2.0	3.2	1.2	1.3		

성별로 보면 국력을 남학생은 65.2%, 여학생은 50.7%로 보고 있다. 실험후의 결과를 보면 남학생은 72.7%로 7.2%, 여학생은 67.5%로 16.8%가 향상되고 있다.

国力은 바로 民族自決을 可能케 하는 源泉이다. 특히 共產主義와의 對話에서 對話를 可能케 할려면 우리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能力이 要求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大學生들이 現任 國家가 目標로 하는 国力의

培養을 매우 절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表示해 준다고 하겠다
 (<表 2 - 35> 참조)

<表 2 - 35> 性 別

(단 위 : %)

問 項 別	性 別	男		女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① 상 호 신 퇴		22.0	22.0	28.1	25.1
② 상 호 양 보		9.1	4.5	18.8	7.4
③ 국 력		65.3	72.7	50.7	67.5
④ 우 방 의 원 조		2.8	0.8	0.5	-
⑤ 기 타		0.8	-	1.9	-

이를 부모의 직업별로 보면 <表 2 -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국력에 반응하고 다음이 상업, 공업 기타 및 농업의 순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것은 농촌출신의 국제적 이해력에 대한 시야의 협소에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며, 교육후에는 오히려 농촌 출신이 그 향상도가 가장 높은 반응을 보여 농촌출신에 대한 교육효과의 증대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表 2 - 35> 職業別

(단위 : %)

職業別 問項別	公務員		農 業		工 業		商 業		其 他	
	事前	事後								
① 상호 신뢰	15.8	15.4	34.3	24.4	25.0	17.5	30.0	30.9	20.4	18.2
② 상호 양보	5.9	5.5	15.6	4.9	12.5	17.5	14.0	4.3	25.0	15.3
③ 국 력	78.2	70.9	46.8	68.3	62.5	63.6	54.0	64.3	54.5	57.6
④ 우방의 원조	0.1	8.2	0.3	2.4	-	1.4	1.3	0.5	0.1	6.1
⑤ 기 타	-	-	3.0	-	-	-	0.7	-	-	2.8

내
2

(3) 統一問題의 國際性

우리의 統一은 分斷 그 自体가 그러하였드시 그 國際性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 현상고정화의 추세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보는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한국의 통일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表 2 - 3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대화를 통한 주체적인 노력으로 통일될 것이라는 전망은 교육전에 27.0% 4대국의 노력으로가 16.6%, 「유엔」을 통해서가 6.3% 통일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38.2%의 경향이다.

대화도 4대국의 협상도 모두 불신하고 통일은 되지 않는다는 전망이기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하여는 대학생들로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결론도 된다.

특히 통일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반응의 경향을 보면 도시의 빈도가 높고 시골일수록 빈도가 낮다. 이는 통일 의식이 점차

회박해져 갈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통일문제에 관한 비관론으로 점철되기 쉬울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表 2 - 36 > 우리나라의 통일은 어떠한 방법으로 될 것
같습니까?

(단위 : %)

地域別 問項別	서울		仁川		春川		計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① 대화를 통한 주체적인 노력 으로	30.0	33.8	27.8	14.9	23.2	22.9	32.0	33.9
② 미·소·중의 협상을 통해서 만	13.8	5.9	5.5	12.5	40.4	7.1	17.5	8.2
③ 「유엔」을 통 해서만	5.5	7.5	5.9	4.7	11.3	7.7	6.3	6.5
④ 통일될 것 같 지 않다.	43.4	47.8	53.3	64.7	21.9	31.1	38.2	47.6
⑤ 기 타	7.3	5.0	7.5	3.2	3.2	1.2	6.0	3.8

여기에서 「유엔」을 통한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아주 적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성에 대하여는 대학생들의 반응이 거의 부정적이라는 점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하여는 거의 비관적으로 보는 면이 강하다는 점등이 유의점으로

등장된다. 이를 다시 성별로 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하여 통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는 점과 「유엔」을 통한 통일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점이다. 따라서 여학생에 대한 통일교육의 시급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 부모의 직업별로 보면 비교적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자녀에 비하여 공무원이나, 공·상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더욱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교육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되지 못하겠다는 비관론자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4) 현 국제 정세관

10월유신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현재의 국제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아 보았다.

<表 2 - 36 > 현재의 국제정세는 우리의 통일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단위 : %)

地域別 問項別	서울		仁川		春川		計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① 확실히 유리하다	8.8	6.3	6.3	6.4	2.6	7.1	5.9	4.6
② 유리한 것 같다	23.8	21.3	23.2	19.3	17.9	23.3	18.3	23
③ 유리한 것 같지 않다	52.1	56.3	58.7	60.0	76.8	66.2	65.9	59
④ 잘 모르겠다	14.0	16.1	9.8	14.3	2.6	3.4	8.8	13.4
⑤ 기타	1.3	-	2.0	-	0.1	-	1.1	-

大學生들은 <表 2 - 37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리한 것 같다 이상에 24.2%, 불리한 것 같다 65.9%, 모르겠다 8.8%의 비율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국제정세가 우리의 통일에 불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10월유신과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시골일수록 불리하다고 보는 경향이 높은 바 이는 10월유신에 대한 교육효과의 반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마. 統一問題

(1) 共同聲明에 關한 態度

이제까지 冷戰體制의 南北對立에서 對話體制로 國家施策이 轉換됨에 따라 이에 對한 國民들의 反應도 錯雜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無條件 환영하는 見解, 警戒의 뜻을 表하는 見解, 無關心의 見解 등이 그것이다. 對話가 他國과의 것이 아니라 우리와 敵對하고 있으나 血緣을 같이하는 同族과의 對話이다. 아무리 어렵고, 또 警戒를 하여가면서도 不可不 해야할 것이 南北의 對話이다. 이러한 點에서 南北對話는 民族的 良心 내지는 民族的 意識의 發露와 매우 有關하다고 볼 수 있다.

<表 2 - 37 > 남북 7.4 공동 성명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單位: %)

問 項 別	地 域 別		서 울		仁 川		春 川		計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① 아주 환영 한다	43.8	38.8	44.3	57.6	23.8	55.5	36.8	50.6		
② 약간 환영 한다	33.6	40.0	25.9	19.1	44.4	36.7	35.2	31.2		
③ 그저 그렇다	16.3	7.5	21.1	21.1	19.2	6.5	18.9	11.7		
④ 환영 않는다	3.8	11.9	6.6	2.0	11.9	1.3	7.4	6.1		
⑤ 기 타	2.5	1.8	2.1	0.2	0.7	-	1.7	0.4		

7.4 共同聲明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質問에 對하여

아주 환영 한다 36.8%, 약간 환영 한다 35.2%, 그저 그렇다

18.9%, 환영 않는다 7.4%의 순이다. 즉 환영한다는 학생이 77%이다.

지역별로 보면 아주 환영한다에 서울 43.8%, 인천 44.3%, 춘천 23.8%로 지방의 학생에 비해 서울의 학생은 더 지지하는 학생이 많게 나타나고 있다.

실험후를 보면 아주 환영 한다 50.6%로 16.6%가 증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약간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아주 환영한다에 서울이 38.8%로 5%가 감소된 반면에 인천은 57.6%로 13.3%, 춘천은 55.5%로 31.7%가 증가되고 있다. 이는 지방의 학생이 비교적 상황 판단이 어려워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는 것과 함께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게 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환영하는데 높은 반응을 보였고 환경별로 보면 공무원의 자녀들이 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 10월유신에 대한 태도

10月維新은 國內外的 環境에 비추어 統一에 對한 對備策을 長期的인 眼目에서 강구하느냐는 民族的 意志의 表現이다. 그것은 不可避하다거나 부득이한 措置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積極的인 主導的措置로 파악되어야 한다.

10月維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質問에서

필요없는 일이었다가 39.3%로 제일 높은 반응이었고 적절한 조치였다가 22%, 잘 모르겠다 19.4%, 부득이한 조치였다 17.6%로 나타났다. 즉 필요없는 일이었다고 10월 유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학생이 제일 많았다. 10월 유신에 대한 대학

생들에 대한 제몽이 못 미쳤던 것 같다. 즉 적절한 조치라 생각하는 학생은 22%밖에 없음을 이를 말해준다.

<表 2 - 38> 당신은 10월 유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單位：%)

問 項 別	地 域 別		서 을		仁 川		春 川		計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① 적절한 조치였다	37.5	39.7	17.3	58.4	11.3	69.5	22.0	57.5		
② 부득이한 조치였다	30.0	37.5	16.1	27.3	6.6	27.7	17.6	29.2		
③ 필요없는 일이었다	13.7	7.5	40.7	4.7	62.3	1.9	39.3	4.7		
④ 잘 모르겠다	16.3	15.0	23.9	8.4	19.1	0.9	19.4	7.8		
⑤ 기 타	2.5	1.3	2.0	1.2	0.7	-	1.7	0.8		

지역별로 보면, 필요없는 일이었다에 서울 13.7%, 인천 40.7%, 춘천 62.3%이며, 반대로 적절한 조치였다에 서울 37.5%, 인천 17.3%, 춘천 11.3%로 서울의 학생이 지방의 학생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또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지방의 학생에 비해 서울의 학생은 이에 대한 정보를 일찍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험후를 보면, 필요없는 일이었다에 서울은 7.5%로 5%, 인천 4.7%로 34.2%, 춘천 1.9%로 60.4%가 감소되었고, 반대로 적절한 조치였다에 서울은 39.7%로 미미한 향상이나 인천 58.4%로 41.1%, 춘천 69.5%로 58.2%가 증가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필요없는 일이었다가 39.7%에서 4.7%로 35.0%가 감소했고, 적절한 조치였다가 22%에서 55.1%에 33%가 증가되었다. 이는 10월 유신에 대해 학생들에게 바르게 알려 줄 필요가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즉 教育後에 維新에 對한 態度가 相當히 變遷되었다는데서 統一教育은 앞으로 더욱 強化되어야 할 必要性을 提示해주는 것이다.

(3) 남북회담에 대한 전망

적십자회담이 남북통일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보느냐에 대한 반응은 <表 2 - 39>에 나타난 바와 같다.

<表 2 - 39> 남북 적십자 회담이 통일의 밑받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單位: %)

地域別	서울		仁川		春川		計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事前	事後
① 그렇다	18.8	11.2	22.3	8.6	13.2	30.9	18.1	16.9
② 그럴 것이다	32.5	43.8	23.9	24.3	34.4	37.4	30.3	35.2
③ 모르겠다	21.1	15.0	16.9	15.3	16.2	4.7	18.1	12.0
④ 그렇지 못하다	26.3	30.0	36.1	50.6	34.8	25.8	32.7	35.5
⑤ 기타	1.3	-	0.8	1.2	1.4	1.2	0.8	0.4

즉 밑거름이 되리라고 보는 학생은 48.4%이고 그렇지 않다는 학생이 32.7%로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를 크게 걸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후에는 52.2%가 다소 기대를 거는 입장이 향상되고는 있지만 부정적인 입장도 역시 상대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를 다시 성별 및 환경별로 보면 <表 2 - 39> 및 <表 2 - 40>과 같다.

<表 2 - 39> 성 별

(单位: %)

問 項 別	性 別		男		女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① 그렇다.	14.4	12.9	3.9	6.8		
② 그럴 것이다.	40.2	34.2	33.0	25.7		
③ 모르겠다.	9.1	11.3	27.1	17.8		
④ 그렇지 못하다.	34.9	40.8	36.0	48.7		
⑤ 기 타	1.4	0.8	-	1.0		

<表 2 - 40> 職 業 別

(单位: %)

問 項 別	職 業 別		公 務 員		農 業		工 業		商 業		其 他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① 그렇다.	6.9	6.4	21.8	12.2	-	9.1	26.0	10.0	13.6	15.3		
② 그럴 것이다.	25.7	23.6	15.6	31.7	37.5	17.5	36.0	30.7	29.5	31.0		
③ 모르겠다.	12.8	18.2	40.4	31.7	25.0	9.1	16.7	12.8	22.7	15.3		
④ 그렇지 못하다.	54.6	51.8	18.7	21.9	37.5	54.5	20.7	45.7	33.0	36.1		
⑤ 기 타	3.0	-	3.3	2.5	-	9.8	0.6	0.8	1.2	2.3		

3. 学校級別 比較

人間的 社会化는 어느 一定期間안에 完了되는 것이 아니라平生토록 持續된다는 것이 一般的 見解이나 成長過程에 따라 特異한 面이 發見되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国民学校學生, 高等学校學生, 大學生에 對한 統一教育의 成果를 一律的으로 說明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具體的이고 感情的인 事項에 對해서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빠른 反應을 가져오나 연령층이 높을수록 觀念的이고 抽象的인 것에 同調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內容의 質問이라 하더라도 記述方式에 따라 相異한 結果를 招來할 수가 있는 것이다. 國際情勢에 對한 態度的 轉換이 가장 심한 곳이 大學인 事實이 그 한 例이다.

가. 實驗群과 比較群의 事前, 事後比較

<表 3 - 1 > 實驗群과 比較群의 事前, 事後 比較

(單位: %)

區 分	實 驗 群		比 較 群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初 等	67.9	82.4	67.7	67.2
高 等	64.2	75.6	69	69.8
大 學	52.7	62.9	52.9	55.5

全体 成績 平均은 国民学校 67.9, 高等学校 64.2, 大学 52.7로, 大学은 국민학교에 비해 15.2, 高等학교에 비해 11.5의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실험 전후의 점수차에 있어서도 大学은 10.2 高等學校 11.4, 国民學校 14.5로, 국민학교의 향상도가 높았음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나 점수차는 그 실험문항의 각급 학교별의 難易度가 문제되는 것으로 비교해서 그 차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성적의 향상이 10~15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나. 内容領域別 비교

<表3 - 2> 内容 領域別 比較

(單位：%)

區 分 教 別	傳統文化		民主主義		共產主義		國際政勢		使 命	
	事前	事後								
初 等	54.9	70.5	66.8	75.4	59.8	74.3	71.0	80.3	77.4	81.9
高 等	57.0	69.4	65.2	72.0	68.7	74.7	73.4	80.0	62.2	76.2
大 学	53.6	62.9	47.1	58.5	60.5	75.2	48.0	73.3	49.4	59.0

傳統文化의 領域에 있어서 실험 전후의 각급 학교별 점수차는 의미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 변화도는 대학보다 高等學校, 高等學校보다 국민학교가 크다고 하겠다.

統一을 위한 使命은 大学보다 高等學校가, 高等學校보다 国民學校

가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국가나 민족지향성(National oriented value)에서 가정이나 나(自己)中心으로 가는(Self oriented value)경향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리된다.

그 밖의 領域은 그 경향성을 찾을 수 없었다.

다. 行動特性別

<表 3-3> 行動 特性別

(單位：%)

教 別	區 分	知 識		態 度		批 判 能 力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事 前	事 後
初 等		58.2	-	78.5	-	72.3	-
高 等		60.3	68.1	68.0	82.9	69.1	78.3
大 学		52.8	64.5	46.1	58.8	55.0	64.3

態度的 행동 특성은 大学보다 高等学校가, 高等学校보다 国民学校가 높은 성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앞의 統一을 위한 使命의 경향과 같이 학년이 낮을 수록 고등학력자보다 理想的이고, 國家的인 價値志向性에서 연유된 것으로 추측된다.

IV . 結 論 및 提 言

1. 結 論

本 研究의 實驗結果로 나타난 結論은 다음과 같다.

- ① 實驗群의 事前, 事後의 成績 差는 매우 意味있게 向上되었다. 그밖에도 統一教育課程의 構案은 유용한 模型으로 보인다.
- ② 地方의 大学生은 서울의 大学生에 比해 현저한 向上을 보였다. 이는 社会意識水準의 差異에서 오는 現象으로 보인다.
- ③ 知識과 行動이 一致하지 못하고 있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 ④ 民主主義에 대한 認識의 向上度가 相對적으로 낮은데 比하여 國際情勢에 對한 教育効果는 두드러지게 높은 向上을 보여 주었다.
- ⑤ 男大生은 女大生보다, 人文系大学生은 實業系 大学生보다 積極的인 反應을 보여 주고 있다.
- ⑥ 大学生들의 國家에 對한 愛着의 程度는 매우 肯定的이다.
- ⑦ 10月維新에 對한 態度가 事前의 消極的 態度에서 事後에 積極的 態度로 變모되고 있다.
- ⑧ 民主主義에 對한 尤新 이전의 價値들 그 基本으로 삼는 경향이 濃厚하다.
- ⑨ 理念的水準에서 民主的 價値에 對한 信賴는 매우 높다.
- ⑩ 民主主義의 土着化에 對한 姿勢가 매우 積極的인 方向으로 轉換될 수 있다는 確信을 얻을 수 있었다.

- ⑪ 教練時間은 南北對話가 形成되고 있지만 相對方에서 戰爭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⑫ 北韓實情과 배운것은 어느程度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反共教育이 實際와 거리가 먼 內容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⑬ 共同聲明에 對한 大學生들의 態度는 매우 肯定的이나 그 結果에 對하여는 매우 회의적이다.
- ⑭ 統一과 關連하여 國際情勢에 對해서도 否定的인 見解가 支配的이다.
- ⑮ 南北對話에 對한 환영에 못지않게 反共教育에 對한 필요성이 매우 高調되고 있다.

2. 提 言

本 研究에서 밝혀진 實驗結果 分析을 土台로 統一教育의 바람직한 方向을 다음과 같이 提示한다.

- ① 本 研究의 統一教育課程 構案은 널리 大學에 適用시키어 一般化시키어야 한다.
- ② 從來의 民主主義教育에 對한 反省과 새로운 教育方法의 모색이 切實히 要求된다.
- ③ 國際情勢에 對한 教育은 甚化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資料의 供給과 担当教授의 訓練이 必要하다.
- ④ 認知教育을 더욱 強化하여 行動化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統一教育時間의 增加가 要請된다.

- ⑤ 勝共教育은 理論과 實際가 겸비되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 ⑥ 國家와 民族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 주어야겠다. 특히 女大生에 對한 教育은 切實한 問題이다.
- ⑦ 實驗 事後 結果에서 보는바와 같이 10月維新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보아 具體的이고 効率的인 教育課程과 資料開發을 시급히 解決하여 一般化시켜야 한다.
- ⑧ 보다 効率的인 統一教育을 實施하기 爲하여 情報, 資料Center 의 設立이 時急히 要請된다.
- ⑨ 統一教育을 보다 效果的으로 이끌어 나가기 爲하여는 學校教育에서 뿐만 아니라 學校外教育에까지 實施되어야 한다.

附

錄

I. 國民學校에 對한 實驗教育 結果

A. 第1次 事前檢査의 結果

本研究는 研究의 目的에 따라 現 國民學校 反共教育의 現況을 診斷하고 거기서 발견되는 問題點을 근거로 實驗을 위한 새로운 勝共統一教育課程을 構案하기 위해서 研究者들이 國民學校 學生들의 反共教育에 있어서의 知識 및 理解와 態度를 진단하는 檢査를 제작하여 서울시내 國民學校를 上·中·下 等級別로 擧集하고 各 等級에서 兩 學校씩 選定擧集한 5學年 男·女 學生 2,500 명을 대상으로 檢査를 실시했다. 이렇게 실시한 檢査를 學校等級別로 比較 分析하고 다시 公·私立別, 家庭環境別, 男·女別로 比較分析하여 처리했으며, 또 內容 및 行動特性別로 處理하여 아래와 같은 結果를 밝히고 특히 問題視된다고 보는 것은 各 方向別로 다시 모아서 現 反共教育에서 나타난 심각한 問題를 검토했다.

1. 學校等級別 比較

家庭의 文化的·經濟的인 面을 고려하여 선정된 上·中·下 等級別 學校의 學生 2,500 이 얻은 第1次 事前檢査에서의 檢査는 表12 와 같다.

<表12> 學校等級別 比較

成績	學校等級別	上	中	下
平均値		76.34	66.01	59.01

表 12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学校等級別에 따라서 学生의 점수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즉, 上의 학교에 속하는 학생은 中이나 下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있으며 下의 学校学生은 上이나 中의 学校学生보다 훨씬 낮은 (統計的으로 意義있는 差로) 点数를 얻고 있음이 나타났다.

2. 公·私立別 比較

学校級別로 上에 속하는 学校中에서 公立学校와 私立学校 사이에 1次 事前檢査点数에 있어서 私立学校 학생은 平均 76.08 점이며, 公立学校 학생이 76.07 점으로 公·私立学校에 따른 点数의 差는 없었다.

말하자면, 公立学校에 다니는 학생이나 私立学校에 다니는 학생은 다 같이 비슷한 정도의 점수를 얻고 있다.

<表 13 > 公·私立別 比較

	成績 平均 值	t
公 立	76.08 011.....
私 立	76.07	

3. 家庭環境別 比較

학생들의 家庭을 文化·經濟的인 面을 고려하여 즉 父母의 職業, 教育程度, 家庭의 文化施設을 中心으로 上·中·下의 세 階層으로 나누어 세 階層에서 온 학생의 점수를 처리한 결과 表 14 와 같다.

<表 14 > 家庭環境別 比較

成績 / 家庭環境別	上	中	下
平均点	79.03	68.02	60.25

위의 表에서와 같이 학생의 家庭環境에 따른 上·中·下 세 階層間에 있어서 학생의 点数는 서로 意義있는 差가 있다.

上の 階層에 속하는 가정에서 온 학생은 中이나 下の 階層에 속하는 학생보다 높은 点数를 얻고 있으며, 그 平均의 差가 최고 11 점에서 최하 8.9 점의 범위에 걸친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4. 男·女別 比較

점사결과를 男·女別로 분류 비교한 결과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男學生이 平均 69.07 点, 女學生이 67.90 点으로 平均 .83 의 미소한 차이가 있을 뿐 男學生이 女學生보다 或은 女學生이 男學生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는다고는 볼 수 없다.

5. 内容 및 行動特性別 比較

勝共統一教育의 目標를 크게 内容과 行動의 두가지 領域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대한 点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ㄱ. 内容領域別

反共教育의 内容領域을 國家意識, 民主主義, 共產主義, 民主·共產對決, 統一을 위한 使命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볼 때 그 点数는 表15 와 같다.

<表 15> 内容領域別 比較

영역 성적	국가의식	민주주의	공산주의	민주·공산 대결	통일을위한 사명
平均点	57.24	67.41	66.03	73.17	78.48

위의 表에 의하면 현재 국민학교 反共教育은 통일을 위한 사명에서 학생 점수가 가장 높으며, 그에 비해 國家意識에서는 가장 낮은 点数를 얻는 것으로 보아 國家意識에 대한 비중이 적은 反共教育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ㄴ. 行動特性別 比較

第1次 事前檢査로 진단한 現反共敎育을 行動特性에 따라 知識·態度·批判能力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현재의 反共敎育에서는 어느 영역이 더 강조되고 있는가를 알아 보았다.

<表 16> 行動特性別 比較

행동수준	지식	태도	비판능력	비고
平均値	58.23	78.46	72.34	전체평균 67.34

行動特性에서 보면 現反共敎育에서 학생의 批判能力이나 態度面에서는 높은 점수로서 現行 統一敎育의 결과가 양호하다 할 수 있으나 知識에서는 平均 58.23点이란 낮은 点数로서 知識面이 疎忽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짐작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학생들이 갖는 태도와 비판능력은 知的 뒷받침이 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6. 問題되는 特殊 問項分析

反共敎育의 現況을 진단하기 위해 만든 第1次 事前檢査를 만들어 실시하고, 실시된 檢査紙의 각 문항을 분석한 결과 問題点이라고 지적할 만한 문항을 별도로 모아 보면 現제 國門학교 勝共統一敎育의 심각한 面을 발견할 수 있다.

ㄱ. 38線과 休戰線에 대한 問項에서

- 休戰線과 38線은 國境선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전체의 54%에 달한다.

○ 우리나라 국토가 南北으로 분단된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休戰線이나, 38線 이남만이 우리의 국토라고 알고 있다.

ㄴ. 北韓同胞에 대한 問項에서

- 북한 사람과 우리는 언어나 전통, 민족과 풍속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20%에 달하며, 北韓과 南韓은 말과 풍속 전통이 옛날에는 같았으나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45% 이상이나 된다.
- 또한 북한 사람은 거의 모두가 共產黨員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32% 이상 된다.

ㄷ. 재일교포의 北送에 대한 問項에서

- 재일교포들이 진심으로 北韓으로 가고 싶어서 자진 北送되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52% 이상에 달하고 있다.

ㄹ. 우리의 통일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國軍의 힘으로 복귀를 무찌르는 것이 우리의 統一方案이라고 알고 있는 학생이 70% 이상에 달한다.

ㅁ. 김일성에 대하여

김일성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소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30% 이상이나 된다.

ㄴ. 共産党에 대하여

약 20%의 학생이 공산당원은 일반사람과는 다른, 몸에 어떤 特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략 위와 같은 6개의 중요한 問題點을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국민학교 학생들은 알아야 할 중요한 知識에서 대단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산당원은 보통사람과 다른 신체적인 어떤 特徵이 있어 외모로서도 구별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김일성은 쓰련사람이라고 생각함으로써 休戰線과 38線은 국경선이고 북한동포는 우리민족이 아니라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 또한 재일교포는 자기들의 自意에 의해 북한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점, 더구나 우리가 지향하는 統一方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現在 国民学校 勝共統一教育의 잘못된 점이 들어나고 있다.

B. 實驗結果

現行 국민학교 勝共統一教育을 진단한 결과 위와 같은 問題點들이 나타났다. 이런 問題點들을 바로 잡기 위해 本研究는 研究의 目的에 따라 새로운 勝共統一教育課程을 構案하여 학교등급별로 上·中·下에 속하는 세 학교의 3개반(1반은 여학생일)을 實驗班으로 하여 구안된 實驗課程을 처치하였으며 본 實驗課程의 效果를 測定하기 위해 事前檢査·事後檢査를 實驗班과 統制班에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本實驗課程의 效果를 6学年 學生의 勝共統一科目 成績과 比較檢証하기 위해 6学年 3개반을 比較集團으로 하였고 檢査實施結果를 t檢証에 의해 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일었다.

1. 第2次 事前檢査 結果

構案된 實驗課程의 效果를 재기위해 實驗班·比較班의 實驗課程實施前의 성적을 第2次 事前檢査로서 測定한 결과 다음과 같이 두 集團間의 점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17> 第2次 事前檢査에 나타난 實驗班·比較班의 点数差

	實 驗 班	比 較 班	t
N	217	231	
M	47.51	47.32	0.73 P>.1
σ	7.67	10.98	
백분위점수	67.87	67.60	

表 17에서와 같이 事前檢査에서는 實驗班의 성적이나 比較班의 성적이나 거의 비슷하여 實驗班은 平均 67.87 점과 比較班 67.60 점으로서 성적의 차는 없다.

2.- 事後檢査結果

事前檢査에서는 實驗班과 比較班의 점수에는 差가 없었다. 그러나 實驗課程을 처치한 後에 두 집단간의 점수의 差는 다음 表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저하다.

<表 18> 事後檢査로 재어본 實驗班・比較班의 点数

	實 驗 班	比 較 班	t
N	225	231	
M	57.71	47.01	8.35 P>.001
σ	5.81	11.47	
백분위점수	82.44	67.16	

이 研究에서 標案한 實驗課程을 처치한 후 事後檢査에서 나타난 實驗班・比較班의 点数差異는 상당한 意義가 있다. 實驗班에서는 点数平均이 82.44 点임에 비하여 比較班에서는 平均 67.16 点으로 平均 15.30 点이나 차이가 난다. 이로서 본 研究가 標案한 實驗課程은 상당히 效果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實驗班의 第2次 事前檢査와 事後檢査結果 比較

실험반에서 실험과정 실시전에 비해 실험과정 실시후에 点数의 상승도를 알아보기 위해 결과를 처리한 것이 다음 表19에 나타나 있다.

<表 19> 實驗班의 實驗課程 실시 前과 後의 성적상승도

	事前成績	事後成績	t
N	217	225	
M	47.51	57.71	11.09 P>.001
σ	7.67	5.81	
백분위점수	67.87	82.44	

表 19 에 나타나 있드시 실험반의 실험과정 실시전의 点数에 비해 실험과정 실시후에 事後檢査로 재어서 나타난 점수는 平均 14.57 로서 本實驗課程에 의해 平均 약 15 点의 상승을 가져왔다.

4. 比較班의 第 2 次 事前檢査와 事後檢査結果의 比較

比較班의 점수 상승도를 알아보기 위해 同型檢査로서 事前 事後檢査를 실시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表 20> 比較班의 第 2 次 事前檢査와 事後檢査에 의한 점수 상승도

	事前成績	事後成績	t
N	231	232	
M	47.32	47.01	0.21 P>.1
σ	10.98	11.42	
백분위점수	67.67	67.16	

事前檢査를 실시했을 때 比較班의 平均値는 67.67 点이었는데 事後檢査에서는 平均 67.16 点으로 오히려 점수의 下落을 보였다.

5. 實驗班과 6 学年 比較班과의 事後檢査結果 比較

5 学年 實驗班의 實驗課程 실시후의 점수가 . 6 学年 학생의 事後檢査로 戰 勝共統一 성적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6 学年을 比較班으로 삼아 比較하였다.

<表 21> 實驗班과 6 学年 比較班과의 事後檢査結果比較

	5 学年 實驗班	6 学年 比較班	t
N	225	229	
M	57.71	50.21	6.47 P>.001
σ	5.81	10.71	
백분위점수	82.44	71.72	

위의 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5 学年 實驗班의 實驗課程 實施後의 성적은 6 学年 比較班의 성적과 사이에 $P > .001$ 의 수준에서 의의있는 差로 5 学年 實驗班이 6 学年보다 높은 点数를 얻었다. 즉 5 学年 實驗班의 点数는 平均 82.44 点임에 반하여 6 学年은 71.72 点으로서 平均 11 点이나 더 낮았다. 이것으로서 本實驗課程은 5 学年 아동에게 6 学年 아동보다 더 높은 点数를 가져오게 하였다.

6. 學校等級別 事後檢査 結果

構案한 勝共統一教育實驗課程 實施후에 學校等級에 따른 上·中·下의 學校間에 의의있는 点数의 差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실험과정 실시전 第1次 事前檢査에서는 上·中·下의 學校等級에 따라 상당히 의의있는 점수의 차가 있었으나 본 연구의 實驗課程을 실시한 후에는 오히려 사전검사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던 下의 學校가 上이나 中の 學校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음으로써 사후검사에서 학교등급에 따른 점수의 차가 없었다.

<表 22> 学校等級別 事後檢査 結果

	上	中	下
平均 値	82.54	79.71	85.30

7. 実験課程 実施後の 各 領域別 比較

各 領域 즉 国家意識, 民主主義, 共產主義, 民主・共產對決, 統一使命의 다섯 영역에 있어서 実験集團의 事前・事後檢査에 나타난 点数의 變化는 本研究에서 구안한 実験課程이 현저한 점수의 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히 점수의 상승도를 表로 제시하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表 23> 領域別 実験前後의 점수의 變化

領域別	平均 点	实 験 集 团	
		事前 成績	事後 成績
国 家 意 識		54.90	70.50
民 主 主 義		66.75	75.38
共 産 主 義		59.75	74.25
民主・共產對決		71.00	80.30
統 一 使 命		77.44	81.89

表 23 에 의하면 본 연구의 실험과정 실시후에 가장 높은 点数의 變化를 가져온 영역이 共產主義와 国家意識이다. 국가의식에서는 실험과정 실시후 平均 14 점의 상승을 共產主義에서는 平均 13 点의

상승을 가져왔으며, 그의 民主主義에서나 民主·共產對決統一을 위한 使命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점수의 상승을 가져옴으로써 本 實驗課程의 效果를 나타내고 있다.

8. 興味度の 変化

勝共統一教科目に 대한 학생의 興味度を 測定한 결과 實驗集團에서는, 事前檢査에서는 興味도가 70.63%였었는데 實驗課程 실시 후 事後檢査에 나타난 興味도는 80.16%로서 10.47%의 興味の 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比較班에서의 勝共統一科目에 있어서의 興味도는 事前檢査에서는 80.11%에서 사후검사에서 77.67%로 오히려 興味が 줄었고, 實驗班과 比較班을 比較해 볼때 실험과정 실시전에는 비교집단의 興味도가 오히려 더 높았는데 비해 實驗課程 실시후에는 실험집단의 興味도가 더 상승했다.

이를 간단히 效果 表示하면 아래와 같다.

<表 24 > 興味度の 変化

	과정 실시 전	과정 실시 후
실험 반	70.63 %	80.16 %
비교 반	80.11 %	77.67 %

따라서 본 연구의 實驗課程은 학생의 學功과목의 점수의 상승은 물론 勝共統一科目에 대한 興味の 상승도 아울러 가져오는 效果를 나타내었다.

結論 및 提言

本研究에서 밝혀진 結果들을 中心으로 다음과 같이 結論을 내리고 提言을 한다.

A 結論

첫째, 지금까지의 反共教育을 통하여 이루어진 學生들의 理解度, 態度 등의 診斷分析을 위한 第1次 事前檢査의 結果로서

① 社会的·文化的·經濟的인 面을 고려하여 나누어진 學校等級別로 上·中·下의 順序로 理解度, 態度, 등의 点数에 差異가 있었다.

② 公·私立別 學校사이에는 別差異가 없었다.

③ 學生들의 家庭環境別로 나누어진 上·中·下 세 집단사이에는 意義있는 差異가 있었다.

④ 男·女學生 사이에는 意義있는 差異가 없었다.

⑤ 內容領域別 点数에는 統一을 위한 使命感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民主·共産對決이며, 國家意識에 대한 것이 가장 낮았다.

⑥ 行動特性別 点数에 있어서는 情意的인 面인 態度에 대한 것이 제일 높고, 知識面에 해당하는 理解가 가장 낮았다.

둘째, 問項分析의 結果로서

① 休戰線, 38線을 國境선과 혼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양단된 유래를 잘 모르고 있다.

② 북한 사람은 우리들과 문화·전통·풍습·언어가 다르며 모두가 공산당원이라고 믿고 있는 학생이 많았다.

③ 제일교포들이 북한으로 가는 것이 그들이 자진해서 간다고

잘못 알고 있는 학생이 많았다.

④ 우리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분명히 모르고 있다. 즉 군대의 힘으로 복귀를 무찌르는 것이 우리의 통일방안이라고 알고 있다.

⑤ 공산당원은 신체에 보통사람과 다른 어떤 특징이 있다고 믿는 학생이 많았다.

이상 몇가지를 볼 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知識에 대하여 잘못 학습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本研究에서 構案한 勝共統一教育課程의 實驗結果로써

① 實驗班의 事前事後 点数差는 100点 満점에 事前이 67.87点, 事後가 82.44로 그 差가 約 15点이란 差를 보여 本課程의 效果를 強하게 뒷받침하고 있으며, 또 国民学校 5学年 水準에서도 本課程의 學習이 可能하다는 것을 証明해 주고 있다.

② 實驗班과 比較班의 實驗後에 實施한 事後檢査에서는 實驗班의 点数가 82.44이고, 比較班의 点数가 67.16으로 그 差異는 15点이란 높은 差異를 보이고 있어 이 結果 또한 이 課程의 效果를 強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③ 5学年인 實驗班과 6学年 比較班의 点数에 있어서도 實驗班이 6学年보다 100点 満점에 11点가량의 높은 点数를 얻었다.

④ 学校等級別의 点数에 있어서 事前檢査에서는 学校等級別로 意義있는 差異가 있었으나 本課程을 實施한 後의 結果는 学校等級別 差異가 없는 것은 勿論, 오히려 下에 屬하는 学校가 더 높은 点数를 보였다.

⑤ 各 内容領域別 点数에 있어서는 各 領域이 모두 事前에 비하여 훨씬 높은 点数를 보였으며, 그중 統一使命, 民主·共産對決이 제일

높고, 國家意識이 아직도 제일 낮았다.

⑥ 勝共統一教育에 대한 興味度에 있어서는 事前檢査에서도 높았으나 本課程을 實施한 後 全 學生의 80% 이상이 재미있다고 했으며 이 課程의 時間을 더 늘렸으면 했다.

B. 提 言

本研究의 結果로 밝혀진 事實, 그 結論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提言을 한다.

첫째, 勝共統一教育은 適節한 知的 基盤위에 情意的인 教育이 이루어져야겠다.

즉 現在까지의 反共教育은 認知的으로 根拠없는 使命感만 높여 知的인 水準이 너무 疎忽했다. 그렇다고 國民學校에서 情意的인 要素를 배자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情意的인 態度, 使命感 등은 國民學校水準에서 適當한 知的인 뒷받침위에 이루어져야겠다.

둘째, 勝共統一教育에 있어서 知的인 內容이 國民學校 水準에서 適用이 可能하다.

우리들은 民主主義, 共產主義, 傳統文化에 있어서의 概念, 事實, 原理등이 國民學校 水準에서는 어려우니 可及的이면 取扱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集中的 지도 方法의 多樣化, 다양한 學習資料의 活用등으로 國民學校 5 学年 水準에서 指導가 可能했다.

앞으로 보다 效率的인 指導를 위해 教師用 教授指針書와 具體的인 教授計劃書가 必要하며, 學生이나 教師를 위한 學習資料의 製作이 必要하다.

셋째, 勝共統一教育은 反共道德生活科目이나 社會生活科 등 어느

教科에서나 一貫性있게 強調되어야겠지만 5 . 6 学年 水準에서는 最少限 1 回의 새로운 課程에 依해서 集中的으로 勝共統一教育을 強調하여 指導를 하여야겠다.

네째, 勝共統一教育의 効率化를 爲해서는 教師의 再教育을 해야겠다.

現在 各級學校教師들은 制限된 資料로 共產主義, 北韓의 實情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教授活動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教師들에게 우리의 統一方案, 共產主義, 民主·共產對決 등을 中心으로 理論的인 講義와 實際 教授目標를 抽出하고, 國民學校 學校水準에 맞는 教授內容을 選定하고, 授業計劃을 세우는 一連의 過程을 Work shop 을 통해서 再教育시키는 機會가 必要하겠다.

다섯째, 本研究에서 構案된 勝共統一教育課程을 一線學校에 보급시켜야겠다. 本 課程의 實施結果에서도 이미 指示했지만, 本課程의 實施로 學校等級別 사이에 있어서 勝共統一教育에 대한 点数差異를 없앨 수 있었고, 短期間의 集中教育에 그 效果를 높일 수 있었으므로 이 課程을 補完하여 一般化시킬 必要가 있다.

여섯째, 統一教育에 대한 分명한 概念定立이 時急하다. 現在 學校教育에서 쓰이고 있는 概念들을 보면, 反共教育, 滅共教育, 勝共統一教育, 反共·道德教育 등 너무나 雜多하여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바, 모든 뜻을 包括할 수 있고, 새로이 지향하는 勝共統一教育이 強調되는 統一된 概念의 規定과 그 보급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本課程을 國民學校의 勝共統一教育에 適用시킬 것을 提言한다. 그 對象学年은 6 学年이 가장 適當한 것이며, 時間配當은 週 2 回씩 實施하여 短期間에 集中的으로 實施하는게 보다 效果的일 것이다. 그리고 이 課程의 效果를 높이기 爲해서는 앞에서

도 提議한 바와 같이 教師의 再教育이 先行되어야겠으며, 教師의 再教育을 爲해서는 勝共統一教育의 理論的인 面을 重點的으로 取扱하는 講義를 爲해 20時間, 實際 課程을 짜고, 그 方法을 訓練하는 面을 取扱하는 Work shop 을 爲해 15時間, 모두 35時間以上이 必要하며, 이러한 集中的인 訓練이 이루어진 다음에 實際授業에 임하도록 하여야겠다.

II. 中等學校 實驗教育 結果

A. 事前 檢査의 結果

本研究는 研究 目的에 따라 現 高等学校 反共 教育의 現況을 診斷하고 거기서 發見되는 結果를 土台로 새로운 勝共 統一 教育 課程을 構案할 目的으로 計劃되었다.

研究者는 高等学校 學生들의 反共 教育 水準을 알아보기 위하여 <(I)韓國의 傳統的 價值>, <(II)民主主義>, <(III)共產主義>, <(IV)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對決>, <(V)統一을 위한 우리의 使命>의 五個 內容 領域에 걸쳐 知識, 態度 및 批判能力을 診斷하기 위한 檢査를 製作 서울 市內 高等学校 上, 中, 下 級別로 各各 1個校씩 總 3個學校를 選定하고 1, 2 学年 10個 學級 538 名을 對象으로 檢査를 實施했다. 이렇게 實施한 檢査를 學校別로 男女別로, 学年別로 內容 領域別로, 行動 特性別로 處理하여 比較 分析하고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그리고 反共 教育의 흥미, 意見에 관한 問項도 特히 問題가 되는 것은 問項別로 結果를 提示하였다.

1. 學校別 比較

研究의 妥當度를 높이기 위하여 實驗學校의 選定은 學生들의 社會 經濟 文化的 背景을 고려하여 上, 中, 下 級別로 하였다.

事前 檢査에서 各 學校의 實驗 學級이 얻은 点数의 平均은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 6>과 같이 上과 中의 學校

<表 6> 学校別 平均点数の 比較

区 分 \ 学 校	S 校 (上)	Y 校 (中)	C 校 (下)
事 例 数	61	60	35
平 均 点 数	67.34	67.34	52.59

는 点数가 비슷한 데 反하여 下의 学校는 15点 程度의 낮은 点数를 나타내고 있다. 上과 中の 学校가 비슷한 点数를 얻고 있는 것은 学生들의 質이 거의 비슷 함을 意味하는 바, 이들 学校 教員들과의 意見에 依하더라도 中の 学校는 学生들의 質이 점차 높아져가는 경향이 있고 上의 学校는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實際 学生들의 質은 비슷할 것이라는 点を 参考로 밝혀 둔다.

2. 学年別 및 男女別 比較

高等学校에서는 大学入学 試驗의 準備로 因해서 三学年 学生을 實驗對象으로 선정하지 못하고 一学年과 二学年을 實驗對象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学校의 等級에 關係없이 一学年과 二学年이 各各 얻은 点数의 平均은 <表 7>이 나타 내는 바와 같다.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学年이 2学年 보다 平均 6 点이나 높고 偏差도 작다. 이것은 1学年 實驗班이 上의 学校이기 때문에 学生들의 質도 높고 同質的인 데 反하여 2学年은 中

<表 7> 学年別 平均点数의 比較

区 分 \ 学年別	1 学 年	2 学 年	C. R.
N (事 例 数)	60	97	
M (平均点数)	67.37	61.66	4.01 p>.001
O (標準偏差)	9.51	12.65	

과 下의 学校이기 때문에 1 学年보다 異質的이고 質도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上의 学校 1 学年과 中의 学校 2 学年 成績만을 比較하여도 意味있는 差가 없다. 이러한 結果로 보아 反共에 對한 學生들의 学力은 学年差에 크게 關係없이 大同小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實驗對象으로 1, 2 中 어느 学年을 택하던 무리는 없다고 하겠다.

男女別 比較는 本研究의 設計上 学年別 比較와 같아졌기 때문에 省略한다. 結果만 지적하면 男女別 差異는 없었다.

3. 内容 領域別 比較

勝共 統一 教育의 目標는 크게 五個領域의 内容 次元과 三個 領域의 行動特性으로 区分하고 各各의 次元에 對한 点数를 比較하였다.

反共 統一 教育의 内容 領域을 <韓國의 傳統的 價值>, <民主主義>, <共產主義>, <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對決>, <統一을 위한 우리의 使命>으로 区分하여 볼 때 各 地域別 点数 平均

은 <表 8>과 같다.

<表 8> 内容領域別 点数의 比較

区 分 \ 内容領域	伝 統	共産主義	民主主義	共産民主對決	使 命
平 均 点	56.95	65.20	68.68	73.44	62.16

<表 8>의 領域別 点数를 보면 <民主主義>와 <民主 對 共産 對決>의 領域은 比較的 其他 領域에 比하여 点数가 높다.

그러나 <우리의 傳統>과 <統一을 위한 使命>의 領域은 点数가 낮은 것으로 보아 現行 反共 教育은 이러한 領域의 比重이 不足했던 것으로 分析된다.

4. 行動 領域別 点数의 比較

勝共 統一 教育을 内容 領域別 区分과 더불어 行動 領域을 다음과 같이 知識, 態度, 批判 能力의 3가지 特性으로 区分한 바 各各의 点数는 <表 9>가 보여 주는 바와 같다.

<表 9> 行動 特性別 点数의 比較

区 分 \ 行動領域	知 識	態 度	批 判 能 力
平 均 点 数	60.31	68.00	69.10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批判能力의 点数가 가장 높고 態度 領域의 点数가 다음으로 높고 知識 領域의 点数가 가장

낮다. 이와 같은 결과는 高等学校学生들이기 때문에 批判 能力은 어느 程度 成熟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反共 態度도 어느 程度 잘 形成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問題는 이러한 態度와 批判能力이 튼튼한 知識의 土台위에 있지 못하고 있다는 點으로 풀이된다.

5. 實驗群과 比較群의 比較

學校 等級에 關係없이 實驗群全體와 比較群 全體의 一次事前 檢査 點數의 平均은 다음 <表 10>과 같다.

<表 10> 實驗群과 統制群의 點數比較

群別 区分	實驗群 (3 個校)	統制群 (3 個校)	C R
N	157	159	4.37
M	64.15	68.93	$p > .001$
O	12.30	7.50	

<表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實驗群과 比較群의 點數差는 約 5 點이나 된다. 그리고 偏差도 統制群이 작다. 理想的으로는 事前 檢査에서 實驗群과 統制群의 點數를 같게 對象을 選定함으로써 統制하는 것이 比較에 便利하나 兩 集團이 同質的이 아니더라도 統計的으로 比較할 수 있기 때문에 問題될 것은 없다.

여하간에 <表 10>에 依하면 比較 集團이 오히려 4 點이나 統計的으로 의미있게 높으므로 事後 檢査의 比較에서는 이를 考慮해

야 된다.

6. 反共 教育에 관한 學生의 興味

여기에서는 現在 運營되고 있는 反共教育에 對한 學生들의 興味, 意見 등을 묻고 이에 對한 結果를 記述한다. 實驗群과 統制群 學生 538名이 應答한 結果를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1) 現在 우리나라 事情上 「反共 教育은 언제 부터 實施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對한 學生들의 反應은 「國民學校부터」가 83%, 「中高等 學校부터」가 8%, 「敎養 講座 程度로 했으면 좋겠다」가 9%, 「大學부터」가 0%이다. 이것으로 大多數의 學生들이 現在대로 反共 教育을 國民學校 때 부터 實施하는 것을 贊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우리는 共產主義를 事實 以上으로 酷評하기 때문에 共產主義를 올바르게 評價할 수 없다는 質問에 對한 學生들의 應答을 다음 <表 11>과 같다.

<表 11> 共產主義에 對한 酷評與否

答 辨	%
① 그렇다	53
② 그렇지 않다	21
③ 별 영향 없다	26

<表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共產主義를 事實 以上으로 酷評하기 때문에 共產主義를 正當하게 評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學

生이 무려 53% 된다는 것은 우리의 反共 教育을 깊이 反省케 하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事實 自体의 지나친 酷評이나 歪曲은 오히려 學生들에게 疑問을 일으키게 할 뿐만 아니라 透徹한 反共 思想을 갖게 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共產主義에 對한 事實은 事實대로 옳게 가르쳐 주되 그 事實속에 숨어있는 共產主義의 나쁜점과 矛盾을 合理的으로 說明하는 方向으로 反共 教育方法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3) 現在 學校에서 實施하는 反共 教育이 適當한가 라는 물음에 適當하다는 반응이 38%,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이 17% 좀 더 強化해야 되겠다는 반응이 45%였다. 이것으로 보아 反共 教育의 強化가 必要한 것으로 많은 學生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現在 高等學校에서 實施되는 反共 教育에 對하여 學生들의 反應은 時間 浪費다가 8%, 꼭 必要하다가 34%, 더 強化되어야 한다가 29%, 現在대로가 좋다가 29%로 각각 반응하고 있다.

(5) 反共 時間에 對한 學生들의 關心과 興味를 묻는 問項에 對한 反應은 다음 <表 12>과 같다.

<表 12> 反共時間에 對한 學生의 興味

答	弁	%
①	기다려 진다	33
②	잡념을 갖게 된다.	7
③	지루해 진다	12
④	아무 생각이 없다	48

<表 1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거의 70% 學生이 反共 時間에 對하여 아무런 興味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學生들의 關心外에 科目으로 轉落될 可能性을 말해 주는 바 反共 教育의 重要性으로 보아 問題視 된다.

(6) 學生들의 反共 思想 形成에 對한 學校 教育의 效果에 對하여 學校 教育을 통해서 많이 形成되었다가 54%, 學校 教育이 妨害가 되었다가 9%, 學校 教育과 關係없이 形成되었다가 37%이었다. 이것으로 보아 學校教育 뿐만 아니라 新聞, 라디오 雜誌, T.V 등 매스콤이 學生들의 反共 思想 및 知識 形成에 相當한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 實際效果

事前 檢査를 實施하고 研究設計에 따라 實驗 処置에 들어갔다.

實驗이 끝난後 實驗群과 統制群(比較群)에 事後 檢査를 實施해서 얻은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實驗群의 學校別 學年別 事後檢査의 結果

實驗 學校들이 事業檢査에서 얻은 点数의 平均은 <表 13>과 같다.

<表 13> 學校別 事後檢査 平均点数

區 分 \ 學校別	S 校 (上)	Y 校 (中)	C 校 (下)
N	60	61	39
M	80.54	77.58	63.26

<表 1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위에 屬하는 S校와 Y校는 比較的 높은 成績을 얻은 反面 下에 屬하는 C校는 앞의 두 學校에 比하면 무려 17점이나 낮은 点数를 보여주고 있다.

学年別 事後 檢査 結果 얻은 点数는 <表 14>와 같다.

<表 14>가 나타내 주는 바와 같이 一学年이 2学年 보다 平均 8.54 点이나 높다.

<表 14> 實驗群의 学年別 事後 檢査의 平均点数

区 分	学年別	1 学 年	2 学 年	C R
N		60	100	
M		80.54	72.00	5.60 p. >001
O		8.49	10.40	

이와같이 1学年이 2学年 보다 意義있게 높은 成績을 얻은 結果는 一般的인 傾向으로 解釋할 수 없으며, 學校差로 因하여 나타난 結果임이 틀림 없다. 왜냐하면 1学年은 위에 屬하는 學校이었고 2学年은 中과 下에 屬하는 學校이었기 때문이다.

2. 實驗群의 內容 및 行動 領域別 事後 檢査의 結果

實驗 學校의 學生들이 事後 檢査에서 얻은 內容 領域別 点数는 <表 15>와 같다. <表 15>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對決>과 <統一을 위한 使命>의 領域은 比較的 높은 反面 <傳統的 價值>의 領域은 가장 낮다.

〈表 15〉 実験群의 事後檢査의 内容領域別 点数

区 分	伝 統	共産主義	民主主義	民主主義对 共産主義对決	使 命
M	69.42	72.02	74.72	80.04	76.18

事前 檢査에서 보다는 各 領域이 대체로 点数의 上昇을 나타내었으나 〈民主主義 对 共産主義의 对決〉의 領域이 点数가 가장 높고 〈傳統的 價值〉의 領域이 点数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事前 檢査와 같은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行動 特性別 事後 檢査의 結果는 다음 〈表 16〉과 같다.

〈表 16〉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態度가 83 点으로 가장 높은 点数를 얻었고 批判 能力은 78 点으로 다음으로 높은 点数이다.

그리고 知識은 68 点으로 가장 낮다. 이러한 結果는 學生들의 反共에 对한 態度나 批判 能力에 比하여 이를 뒷받침하여 주는 体系的인 充分한 反共知識이 不足함을 意味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表 16〉 実験群의 行動 特性別 事後檢査의 結果

区 分	知 識	態 度	批 判 能 力
M	68.07	82.88	78.33

3. 実験群과 比較群의 事後 檢査 成績의 比較

3 個 學校의 実験群과 比較群의 事後 檢査 結果 얻은 成績의 平均은 〈表 17〉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 17> 實驗群과 比較群의 事後檢査 成績의 比較

区 分	實 驗 群	比 較 群	C R
N	160	167	
M	75.60	69.75	3.56 p>.001
O	10.5	9.10	

<表 17>이 나타내 주는 바와 같이 實驗群과 比較群의 成績差는 6点 가량이 된다.

事前 一檢査에서 比較群이 實驗群에 比하여 4点이나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實驗 処置의 效果는 平均 6点이상인 것으로 해석된다.

4. 實驗群 学校別 学年別 成績의 上昇度

学校別 事前 檢査와 事後 檢査에서 얻은 成績의 平均은 다음 <表 18>과 같다.

<表 18> 實驗群의 学校別 事前檢査의 成績比較

檢査別 \ 学校別	S 校	Y 校	C 校
사 전 검 사	67.37	64.64	52.59
사 후 검 사	80.54	77.58	63.26

<表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에 屬하는 8校는 事前檢査에서 67點을 얻었으나 實驗課程이 끝난 뒤의 事後檢査에서는 80點을 얻었다. 事前-事後檢査의 点数差 13點은 實驗課程의 効果로 해석된다. 그리고 中에 屬하는 Y校도 事前檢査에서 얻은 67點보다 10여點이 增加한 77點을 事後檢査에서 얻고 있다. 그리고 下에 屬하는 C校도 事前檢査보다 事後檢査에서 11點이나 높은 点数를 얻고 있는 바 各學校가 等級別에 關係없이 事前檢査보다 事後檢査에서 10余點이나 높은 点数를 얻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本研究者들이 構案한 統一教育課程은 學校의 等級에 關係없이 大端한 效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實驗群의 学年別 事前 事後檢査의 成績은 <表 19>와 같다. <表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学年은 事前檢査보다 事後檢査에서 13點이나 높은 80點을 얻고 있으며 2学年도 事前檢査보다 事後檢査에서 11點이나 높은 72點을 얻고 있다.

<表 19> 實驗群의 学年別 事前-事後檢査成績의 比較

檢査別 \ 学年別	1 学 年	2 学 年
事 前 檢 査	67.37	61.66
事 後 檢 査	80.54	72.00

이와 같이 1学年과 2学年이 모두 事前檢査에서 보다 事後檢査에서 10余點 以上 增加를 나타낸 것은 本研究에서 構案한

統一教育 課程이 学年에 關係없이 크게 效果가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5. 實驗群과 比較群의 事前-事後 檢査 成績의 比較

實驗群이 事前 事後 檢査에서 얻은 成績의 平均은 <表 20> 이 提示하는 바와 같다. <表 20>이 提示하는 바와 같이 實驗群은 事前 檢査에서는 77 点을 얻고 있으나 事後 檢査에서는 이보다 11 点이나 높은 75 点을 얻고 있다. 그리고 事前 檢査보다는 事後 檢査에서 偏差가 작아졌다. 이와 같이 實驗前 보다 實驗後가 學生들의 平均 成績이 向上되고 成績의 個人差 範圍가 좁혀진 것은 本研究가 構案한 統一 教育 課程의 效果를 肯定하는 證據로 해석된다.

그러나 比較群의 成績은 實驗群과는 반대로 成績도 向上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偏差는 커지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表 20> 實驗群의 事前-事後檢査의 成績比較

区分 \ 檢査別	事前 檢査	事後 檢査	C R
N	157	160	
M	64.15	75.60	10.25 p>.001
N	12.3	10.5	

<表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事前 檢査에서 보다 事後 檢査에서 69.75 点을 얻어 約 1 点 가량이 높아 졌으나 이것은 <表 2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統計적으로 有意한 增加가 아니다. 그리고 偏差는 事前 檢査에서 보다 事後 檢査에서 더 커지는 傾向을 나타내는 바 이것은 学生들의 成績의 個人差 範圍가 擴大되어 工夫를 못하는 学生은 점점 더 成績이 下落하는 傾向을 意味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表 21> 比較群의 事前-事後檢査의 成績比較

区 分 \ 檢査別	事 前 檢 査	事 後 檢 査	C R
N	159	167	
M	68.95	69.75	0.77. NS
N	7.50	9.10	

実験群에 对照되는 比較群의 이와 같은 結果는 本研究가 構案한 統一教育 課程이 보다 効果的이라는 強力한 証拠로 해석된다.

6. 内容 領域別 事前-事後 檢査結果의 比較

内容 領域別 実験群의 事前 事後 檢査結果 얻은 成績의 平均 点数는 다음 <表 22>와 같다.

<表 22>에서 보는 事前 檢査에서 가장 낮은 点数를 나타냈던 <傳統的 價值>와 <統一을 위한 使命>의 領域은 事後檢査에서 다른 領域 증가의 2倍 以上인 12~14 点의 높은 成績 上昇을

〈表 22〉 内容領域別 実験群의 事前-事後 検査成績의 比較

区 分	領 域	傳 統	共 産 主 義	民 主 主 義	民 主 主 義 對 共 産 主 義 의 對 決	統 一 을 위 한 使 命
事前 檢 査		56.95	65.20	68.68	73.44	62.16
事後 檢 査		69.42	72.02	74.72	80.04	76.18
增加 點 數		12.47	6.82	6.04	6.60	14.02

보여 주었다. 이것은 本研究가 構案했던 統一教育 課程이 一次 事前 検査가 診斷한 대로 지금까지의 反共 教育이 特히 疎忽히 取扱하였던 우리의 〈傳統的 價値〉領域의 問題와 〈統一을 위한 우리의 使命〉의 領域 問題를 補完하는데 效果的 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事前 検査에서는 點數가 가장 높은 領域은 〈民主主義 對 共產主義의 對決〉로서 73.44 點이고 가장 낮은 領域은 〈傳統的 價値〉로서 56.95 點으로서 그 點數 差는 16.49 點 나 된다. 反面에 事後 検査에서는 事前 検査와 마찬가지로 〈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對決〉이 點數가 가장 높고 〈傳統的 價値〉領域이 點數가 가장 낮으나 그 點數差는 10.62 點 밖에 안 된다.

이와 같은 結果는 事前 検査가 診斷한 대로 지금까지의 反共 教育이 各 領域別로 高루 均衡있게 教育되지 못하여 왔던 것을 말해 줄 뿐만 아니라 本研究가 構案한 統一 教育 課程이 이를 是正하여 各 領域間에 調和와 均衡있게 教育하는 데 效果的임을 말해 주는 것으로 解釋된다.

〈共產主義〉, 〈民主主義〉 그리고 〈民主主義 對 共產主義의 對決〉의 領域은 事前檢査에서 比較的 높은 点数을 나타내었고 事後 檢査에서도 各 領域이 비슷하게 6点 가량의 增加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結果는 〈共產主義〉, 〈民主主義〉, 〈民主主義對 共產主義의 對決〉 등의 3個 內容 領域에 있어서는 事前 檢査가 診斷한 대로 지금까지의 反共 教育에서도 어느 程度 成功을 거두고 있으나 本研究가 構案한 統一教育 課程으로 더욱 体系的이고 均衡있게 補完될 수 있음을 意味하는 것으로 解釈된다.

7. 行動 特性別 事前 事後 檢査結果의 比較

本研究는 反共 教育의 行動 目標를 知識, 態度, 批判 能力으로 区分한 바 各 行動 特性別 事前 事後 檢査結果 얻은 点数은 다음 〈表 23〉과 같다. 〈表 2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事前 檢査의 点数을 보면 〈知識〉의 領域만이 特히 点数이 낮아 60.31 点이고 〈態度〉와 〈批判能力〉의 領域은 비슷하게 높은 68 ~ 69 点을 나타 낸다. 이 結果는 지금 까지의 高等學校에 있어서 反共 教育이 態도와 批判 能力을 涵養함에 比하여 知識 面의 教育이 疎忽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學生들의 反共에 對한 態도와 批判力은 確固한 知識의 土台위에서 있지 못하다는 말이 되는바 이는 앞으로 우리의 統一教育이 어떻게 改善되어야 하는가의 方向에 좋은 시사점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事前檢査에서 各 行動 領域의 点数이 모두 60 点 以上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一般的으

〈表 23〉 行動 特性別 實驗群의 事前-事後檢査 成績의 比較

区 分	檢査別	事 前 檢 査	事 後 檢 査	上·昇 点 数
知	識	60.31	68.07	7.76
態	度	68.00	82.88	14.88
批	判	69.10	78.33	9.23

로 말해서 지금까지의 反共 敎育이 滿足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失敗한 것이라고 断定할 수는 없는 充分한 証拠라고 解釋된다.

事後 檢査 結果를 보면 〈態度〉의 領域이 点数가 가장 높고 〈知識〉領域이 事前 檢査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다.

그리고 各 領域別로 事後 檢査에서 많은 点数의 增加를 나타냈으나 〈知識〉의 領域은 가장 적은 7.76 点의 上昇을 그리고 〈態度〉領域은 가장 높은 14.88 点의 上昇을 나타냈었다.

이와 같은 結果는 本研究가 構案한 統一 敎育 課程이 行動 特性을 全体的으로 向上시키는 데는 效果的이나 事前 檢査가 診斷한 各 行動 特性別 不均衡을 크게 是正하지 못하였음을 意味하는 것으로 分析된다.

8. 反共敎育에 대한 학생의 興味度 變化

앞의 事前 檢査의 結果에서 學生의 興味 및 意見에 關한 診斷 內容을 提示하였다. 여기에서는 本研究의 処置 效果로 말마

않아 學生들의 興味나 意見이 어떻게 變化하였는지를 事後 檢査 結果를 中心으로 記述한다.

事後 檢査 結果 學生들의 反應이 달라진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共產主義를 事實이상으로 酷評하기 때문에 共產主義를 올바르게 評價할 수 없다는 質問에 對한 事前 事後 檢査에 있어서 學生들의 反應은 다음 <表 24>와 같다.

<表 24> 共產主義의 酷評與否에 對한 事前事後檢査의 反應

答 辨	%	
	事前 檢査	事後 檢査
① 그렇다	53	42
② 그렇지 않다	21	31
③ 별 영향없다	26	27

<表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事後 檢査에서는 共產主義를 酷評하여 올바르게 評價할 수 없다는 對한 反應에서 그렇다는 事前 檢査때 보다 11%가 줄었고 그렇지 않다는 10% 늘었다.

이와 같은 結果는 本研究가 構案한 統一教育 課程이 우리나라가 共產主義를 酷評하여 올바르게 評價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學生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는데 效果가 있었던 것으로 解釋된다.

(2) 現在 學校에서 實施되고 있는 反共 教育을 適當하다고 생

각하느냐에 質問에 對한 學生들의 事前 事後 檢査에 있어서 反應은 다음 <表 25>와 같다.

<表 25> 現行 反共教育의 適當与否에 對한 學生들의 反應

應 答	%	
	事前 檢査	事後 檢査
① 너무 지나치게 가르치는 것 같다	17	5
② 적당하다고 본다	38	61
③ 좀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45	34

<表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무 지나치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는 反應은 事後 檢査에서 12%가 줄었고 適當하다는 反應은 23%가 늘었으며 좀더 強化했으면 좋겠다는 反應은 11%가 줄었다. 이와 같은 學生들의 反應 結果는 本研究가 構案한 教育課程이 學生들의 잘못된 생각 즉, 우리의 反共 教育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바꾸어 주는 데 効果的이며 그리고 現行의 反共 教育을 좀더 強化해야 되겠다는 學生들의 要求에 本研究가 構案한 統一 教育課程이 부응되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으로 分析된다.

(3) 現在 高等学校에서 실시하고 있는 反共 教育에 對한 學生들의 事前 事後檢査에 있어서 反應은 <表 26>과 같다.

<表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꼭 필요하다는 反應은 12%가 늘었고 強化되어야 되겠다는 反應은 14%가 줄어든 反面에 現在

〈表 26〉 現在 實施되고 있는 高校反共教育에 對한 學生들의 反應

反 應	%	
	事 前 檢 査	事 後 檢 査
① 時 間 낭 비 다	8	5
② 꼭 필요하다	34	48
③ 더 強化되어야 한다	29	15
④ 現在대로가 좋다	29	32

대로 좋다는 反應은 3%가 늘었다. 이러한 學生들의 反應은 앞서도 指摘한 대로 現行의 反共 教育의 強化 要求에 對하여 本研究가 構案한 統一 教育 課程이 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現在대로가 좋다는 反應이 事後 檢査에서 3%나 늘어나고 強化에 對한 要求는 14%나 줄었던 것으로 解釋된다. 그리고 反共 教育에 必要性을 認識시키는 데도 本研究에서 構案한 統一 教育課程 效果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反共 時間에 對한 學生들의 興味를 묻는 質問에 對한 事前 事後檢査에 있어서 學生들의 反應은 다음 〈表 27〉과 같다.

〈表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時間보다 재미있다는 反應이 8%가 늘어난 것은 本研究가 構案한 統一教育 課程이 學生들의 興味를 높여 주는데 다소 공헌하였던 것으로 解釋된다.

<表 27> 反共時間에 對한 學生의 興味의 變化度

應 答	%	
	事前檢査	事後檢査
① 처음엔 싫어도 공부하는 동안 흥미있다	47	40
② 다른 시간보다 재미 있다	24	32
③ 다른 시간보다 재미 없다	26	28

(5) 學生들의 反共 思想 形成이나 反共知識을 얻게 되는 源泉에 對한 質問에 學生들의 反應은 다음과 같다.

學生들의 反共 思想 形成에 學校 教育의 效果를 묻는 質問에 對한 學生들의 反應은 <表 28>과 같다. <表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學校 教育의 效果를 認定하는 反應은 事前 檢査에 있어서 보다 事後檢査에서 10%가 늘어났으며 學校 教育이 逆效果라는 反應과 學校 教育과는 關係없이 形成된다는 反應은 事後檢査에서 줄어들었다. 이것은 本統一教育 실험과정으로 인하여 學生들이 學生들의 反共 思想 形成에 學校 教育이 밑받침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表 28> 學生들의 反共思想形成에 對한 學校教育의 公認

應 答	%	
	事前檢査	事後檢査
① 학교교육을 통해서 많이 형성된것같다	54	64
② 學校教育때문에 역효과를 본다	9	3
③ 학교교육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것 같다	37	33

다음은 反共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는 주 원천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은 <表 29>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學校에서 많이 얻게 되었다는 反應은 17%가 增加하였고 신문, 잡지, 영화, TV 등에서 많이 얻게 된다는 反應은 18%가 줄어들었다.

<表 29> 反共知識을 얻는 원천에 대한 질문

應 答	%	
	事前檢査	事後檢査
① 學校에서 많이 얻게 된다	38	55
② 신문, 잡지, 영화, TV 등에서 많이 얻게 된다	50	32
③ 일반대화에서 많이 얻게 된다	12	13

이와 같은 學生들의 反應은 反共에 관한 知識을 學生들이 學校에서 많이 얻게 된다는 健全한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것은 本 研究가 構案한 統一教育 課程의 効果로 해석된다. 여하간에 學生들의 反共思想 形成은 學校教育을 통해서 더 많이 이룩되며 反共에 관한 지식은 신문, 잡지, 라디오, 영화, TV 등을 통해서 더 많이 얻고 있다는 一般的인 경향을 말할 수 있다.

9. 特記事項

여기에서는 앞의 內容 領域別 行動 特性別 考察과는 달리 128個 全体 問項中에서 特히 問題가 되었던 15余個의 問項을 拔萃하여 事前 事後 檢査의 結果를 比較 分析한다. 內容 領域別

考察에서 가장 点数가 낮고 問題가 되었던 <傳統的 價值>와 <統一을 위한 使命>의 領域에서 問題되는 問項이 가장 많이 發見되었다. 事前檢査에서 問題가 있는 것으로 診斷되었던 이와 같은 問題 問項들은 實驗 結果 大体로 교정되었음이 事後 檢査 結果 分析에서 밝혀졌다.

問題되었던 問項들의 事前 事後 檢査結果를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結果는 實驗群 學生 156 名의 反應을 統計處理한 것이다.

(1) 우리 歷史上 民族 運動의 主体勢力에 對한 質問에서 學生들은 다음 <表 30>과 같이 反應하였다. <表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의 學生들이 民族 運動의 主体 勢力을 王과 貴族으로 잘 못 알고 있었으나 實驗 結果 矯正되었다.

<表 30> 우리의 歷史上 民族運動의 主体勢力

反 應	%	
	事前檢査	事後檢査
① 왕과 귀족 中心이었다	21	3
② 國民 大衆이었다	70	97
③ 無識한 노예들과 政治家들이었다	2	
④ 언제나 學生들이 중심이 되었다	7	

(2) 統一된 國家의 形成 維持를 위한 祖上들의 끈질긴 努力에 對하여 學生들의 態度는 <表 31>과 같다. <表 >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事前檢査에서는 16%의 學生들이 "그들로서는 當然한

것이다. “라는 態度를 取했으나 實驗結果 이와같은 態度는 矯正 되었다.

<表 31> 우리 祖上들이 統一國家 形成維持를 위해 끈질긴 努力을 해 왔다는 사실은?

反 応	%	
	事前検査	事後検査
① 그들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16	
② 우리가 본 받고 자랑할 일이다	82	100
③ 별로 찬양할 거리는 아니라고 본다	2	
④ 結果的으로 現在의 与件을 더욱 不理하게 했다.		

(3) 우리의 歴史的 伝統속에 숨어 있는 民主的 要素와 共產主義的 要素에 對한 學生들의 反應은 <表 32>과 같다.

<表 32>와 같이 우리의 傳統속에는 民主主義도 共產主義도 없다고 알고 있는 學生이 21%, 民主 共產 要素가 비슷하게 들어 있다고 알고 있는 學生이 18%, 심지어 共產主義 要素가 더 많았다고 알고 있는 學生이 11%나 되었으나 實驗 結果 大部分의 學生들이 올바른 知識을 갖도록 矯正되었다.

(4) 歴史的인 觀點에서 우리 國民들이 對外 關係에서 取하는 態度에 對하여 特別히 學生들이 잘 못 알고 있는 幅이 넓었다.

<表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恒常 被害만을 입고 있는 國民이

<表 32> 우리의 歴史的 伝統에는 ?

反 応	%	
	事前検査	事後検査
① 民主主義的인 面이 共產主義的인 面보다 더 많았다	50	85
② 共產主義的인 面이 民主主義的인 面보다 더 많았다	11	3
③ 民主 共產 어느 要素도 찾아볼 수 없다	21	7
④ 民主 共產 두 要素가 비슷하게 存在하였다	18	5

<表 33> 歴史的으로 볼때 우리나라는 對外國係에서 ?

反 応	%	
	事前検査	事後検査
① 어려운 때는 항상 被害를 입고 있는 입장이다	25	2
② 어려운 때는 항상 汎國民的으로 國亂을 克服하려 했다	49	92
③ 어려운 때는 모두 各각기 責任을 회피하고 소수의 지배계급에만 國難 塔개를 依存했다	16	3
④ 어려운 때는 항상 제 3 國의 도움을 청했다	20	3

라고 알고 있는 學生이 25%, 恒常 第 3 種의 依存했다고 알고 있는 學生이 20%, 責任을 回避하고 支配階級만 努力했다고 알고 있는 學生이 16%나 되는 것으로 事前檢査의 診斷 結果 밝혀졌다. 實驗後에는 이와 같은 誤導된 知識이 거의 完全하게 矯正 되었음을 事後 檢査 結果가 보여 준다.

(5) 民主主義와 우리나라의 政治 經濟 發展과의 關係에서 바르게 알고 있는 學生은 <表 34>가 보여주는 대로 67%에 지나지 않았다. 그릇된 態度를 가진 것으로 事前 檢査에서 診斷된 學生들도 實驗結果 大部分 바르게 矯正 되었으나 아직 10%가량의 學生들이 民主主義가 修正되어야 한다고 잘 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問題視된다.

<表 34> 우리나라의 政治 經濟發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反 應	%	
	事前檢査	事後檢査
① 民主主義가 맞지 않는다고 본다	3	
② 民主主義的 生活양식이 더 強調되어야 한다	67	90
③ 民主主義가 시기상조다	12	
④ 民主主義가 수정되어야 한다	18	10

(6) 民主主義 理念에 對한 學生들의 態度는 比較的 바르게 形成되어 있으나 <表 35>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14%가량

의 학생들이 實踐만 重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事前 檢査가 診斷하고 있다. 그러나 이점은 實踐 課程이 끝난 뒤에도 矯正되지 않고 있음을 事後 檢査 結果는 보여준다. 이것은 本研究의 實踐課程에서도 民主主義 理念에 對한 探索과 討論이 充分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 된다.

<表 35> 民主主義?

反 應	%	
	事前檢査	事後檢査
① 완성된 이념이기 때문에 실천만이 중요하다	14	18
② 未完成的인 埋念이기 때문에 그 실천이 어렵다	0	
③ 미래 완성적인 이념이기 때문에 이념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86	82

(7) 軍事 教育을 받는 것에 對한 學生들의 意見은 <表 36>가 보여주는 것처럼 大部分(77%)의 學生들이 그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으나 8%의 學生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4%의 學生이 必要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事前檢査의 結果이다. 그러나 本研究가 構案한 實踐 課程이 끝난 뒤에도 11%의 學生들은 如前히 軍事 教育이란 必要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表 36> 高校生이 軍事教育을 받는 것은?

反 応	%	
	事前検査	事後検査
① 적절한 조치다	77	89
② 필요없는 조치다	14	11
③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	8	0

(8) 南北韓의 生活 水準에 對하여 大部分의 學生들(79%)이 南韓이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北韓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學生은 한명도 없었다. 그리고 모르겠다는 學生이 14%, 水準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는 學生이 6% 이었으나 本研究의 實驗課程이 끝난 뒤에는 90%의 學生이 南韓이 北韓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表 37> 南韓과 北韓의 生活를 比較하면?

反 応	%	
	事前検査	事後検査
①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	79	90
②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산다	0	2
③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6	5
④ 모르겠다	14	3

(9) 우리나라의 統一方案에 對하여 學生들이 알고 있는 바를 提示하면 <表 38>과 같다. <表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47%의 學生들은 우리의 統一方案에 對하여 正確히 알고 있으나

<表 38> 우리의 통일 방안은?

反 応	%	
	事前検査	事後検査
① UN 감시하의 남북총선거	47	82
② 中立国 감시하의 南北總選舉	10	2
③ 無力에 의한 북진統一	25	10
④ 南北韓 聯邦制 統一案	16	0
⑤ 其 他	2	0

53%의 學生이 잘 모르고 있다. 25%나 되는 學生들이 武力에 의한 北進 統一이 우리의 統一方案으로 알고 있는 것은 特別 問題가 되며 16%가 南北韓 聯邦制 統一案으로 10%가 中立国 監視下의 南北 總選舉로 잘못 알고 있었다. 實驗課程이 끝난 後에 는 大部分의 學生들이 우리의 統一方案에 對하여 옳게 알게 되었으나(82%) 아직도 10%나 되는 學生들이 武力에 의한 北進 統一로 알고 있는 것은 問題視되는바 이는 더 깊은 研究와 分析이 있어야 될 것이다.

(10) 民主 勝共 統一에 對한 學生들의 생각은 <表 39>과 같다. <表 39>가 보여 주는 대로 55%의 學生들은 實際로 可能하다고 믿고 있으나 48%의 學生들이 不可能하다고 믿고 있는 것은 注目할 만한 사실이다. 本研究의 實驗課程을 거친 후 大部分의 學生(77%)들이 實際 可能하다고 믿게 되었지만 아직도 23%나 되는 學生들이 不可能하다고 믿고 있는 것은 더욱 分析해 볼 만한 일이다.

<表 39> 우리가 내세우는 民主勝共統一은?

反 応	%	
	事前検査	事後検査
① 실제로 不可能하다	48	23
② 실제로 可能하다	55	77
③ 南北韓의 緊張을 더욱 조장 시키고 있다	3	0
④ 外國의 간섭을 더욱 초래하고 있다	2	0

(II) 南北 統一에 對한 學生들의 생각은 <表 40>이 보여주는 것처럼 民主 勝共 統一(40%)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犧牲이 있더라도 成就되어야 겠다(51%)는 것이다. 本研究의 實驗 課程이 끝난 뒤의 反應은 民主 勝共 統一 되어야 한다가 67%로 어떤 犧牲을 치루더라도 統一되어야 한다가 30%로 바뀌었다.

<表 40> 南北統一에 對한 學生들의 생각은?

反 応	%	
	事前検査	事後検査
① 어떤 犧牲을 치루더라도 統一이 되어야 한다	51	30
② 民主勝共統一이 되어야 한다	40	67
③ 戰爭만 없다면 2個의 나라로 되어도 좋다	5	3
④ 強大國에 依存하는 것이 더 좋다	0	0

(12) 人口 比例에 따른 南北韓 總選舉, 無條件 協商, 中立國 監視下의 自由選舉, 武力으로 北韓을 굴복시키는 것 등의 統一 方案에 對하여 學生들은 <表 41>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表 41>이 提示하는 것처럼 事前 檢査에 依하면 24%만이 人口 比例에 따른 南北韓 總選舉가 實際 可能性이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42%나 되는 學生들이 武力으로 北韓을 굴복시키는 것이 可能性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武力에 依한 統一은 우리가 願하는 統一方案도 아닐 뿐만 아니라 實際 國際 情勢上 可能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本研究의 實驗課程이 끝난 뒤에는 우리의 統一 方案인 人口 比例에 依한 南北韓 總選舉案에 對하여 57%의 學生들이 그 實際 實現 可能性이 높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18%나 되는 學生들이 아직도 武力에 依한 方案이 實現性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問題視 된다.

<表 41> 다음 統一方案中 가장 실현 可能性이 높다고 생각되는 것은?

反 應	%	
	事前檢査	事後檢査
① 人口比例에 따른 南北韓 總選舉	24	57
② 無條件 協商	5	13
③ 中立國 監視下의 自由選舉	18	13
④ 武力으로 北韓을 굴복시키는 것	42	18
⑤ 其 他	11	0

(13) 南北韓이 統一이 된 後의 問題에 對하여 學生들의 생각은 <表 42>와 같다. 事前 檢査의 結果는 <表 42>가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큰 混亂이 올 것으로 생각하는 學生이 35% 多少 問題는 있어도 融合은 可能하다고 생각하는 學生이 55%나 된다.

<表 42> 南北韓 統一이 된 後에 ?

反 応	%	
	事前檢査	事後檢査
① 큰 問題없이 融合이 될 것이다	3	2
② 아주 큰 混亂이 올 것이다	35	30
③ 多少 問題는 있어도 融合이 可能할 것이다.	55	68
④ 큰 混亂은 없다 해도 融合되지는 못할 것이다.	0	0
⑤ 其 他	4	6

그리고 事後 檢査에 있어서도 큰 混亂이 올것으로 생각하는 學生이 如前이 30%나 되며, 多少 問題는 있어도 融合은 可能하다고 생각하는 學生이 68%나 된다. 그리고 큰 問題없이 融合될 것으로 생각하는 學生은 事前 事後 檢査에서 3%, 2%이다.

理想的으로는 統一後 아무 問題없이 融合되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이 統一된 後에 實際 可能하도록 方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方案은 國民이 넓이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不拘하고 統一이 되어도 큰 混亂이 있을 것을 걱정하고 있고 또한 本研究의 實驗課程이 끝난 뒤에도 學生들의 이러한 생각은 거의 變함이 없다. 이것은 現行의 反共 敎育 뿐만 아니라 本研究의 統一敎育 課程에서도 統一後에 國民 融合을 위한 對策과 方案이 提示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疑이 된다.

結 論 및 提 言

本研究의 實驗 結果를 中心으로 結論을 내리고 必要한 提言을 하면 다음과 같다.

A. 結 論

(1) 事前 檢査에 依한 現行 高等學校의 反共 教育의 診斷結果의 分析을 通하여 얻은 結論은 다음과 같다.

① 本研究에서는 社会 經濟的 文化的 背景을 고려하여 上 中·下 等級別로 學校를 選定 診斷한 바 成績은 上, 中, 下 等級別의 順序로 有意한 差가 있었다.

② 反共에 관한 成績은 学年別로 有意한 差가 있었다.

③ 反共 教育에 관한 學生들의 關心이나 興味는 学年에 따라 意義있는 差가 없었다.

④ 反共 教育에 對한 內容 領域別 点数는 <民主主義 共產主義의 對決>이 가장 높았고 <民主主義>, <共產主義>, <統一을 위한 使命>의 領域順으로 点数가 높았다. 그리고 <傳統的 價值>의 領域은 点数가 가장 낮았다. 現行 反共教育은 <傳統的 價值>, <統一을 위한 使命>의 領域은 소홀히 되고 있으나 <民主主義><共產主義><民主對 共產對決>의 領域은 대체로 成功的으로 取扱하고 있다.

⑤ 行動 個性別 点数는 批判 能力과 (態度)는 비슷하게 点数가 높았으나 (知識)次元에서는 点数가 앞의 2個 特性에 比

하여 相當히 낮았다. 現行 反共 敎育은 反共에 對한 態度나 비판의 밑바탕이 되는 체계적인 지식의 敎育이 소홀히 되고 있다.

⑥ 우리가 共產主義를 事實 以上으로 酷評하기 때문에 共產主義를 올바르게 評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全體의 53%나 되었다.

⑦ 現在 학교에서 실시하는 反共 敎育이 適當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38%이었고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全體의 45%나 되었다.

⑧ 學生들의 反共 思想은 주로 學校 敎育을 通해서 形成된다고 믿어지며 (54%), 反共에 관한 지식은 학교 보다도 新聞, 雜誌, 영화, TV, 일반 대화 등에서 더 많이 얻고 있다. (62%)

(2) 事後 檢査에 依하여 本研究의 實驗結果를 分析하여 얻은 結論은 다음과 같다.

① 實驗群의 事前 檢査와 事後 檢査의 点数는 100点 만점에 各各 64,76点으로 12点的 差를 나타내었다. 反面에 比較群의 事前 事後 檢査의 点数는 各各 68,69点으로 1点的 差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本研究에서 構案한 統一 敎育 課程 試案이 大端히 效果的이라는 証拠이다.

② 實際 結果 實驗群과 比較群은 事後 檢査에서 10点 以上の 差를 나타내었다.

③ 實驗結果 事前 檢査에서 가장 낮은 点数를 얻었던 <傳統的 價值>와 <統一을 위한 使命>의 領域이 事後 檢査에서 12 - 14点的 높은 点数 上昇을 보였고 여타 <共產主義><民主

主義>，〈民主 对 共產 对決〉의 領域은 6点 程度의 上昇을 보 여 本研究가 構案한 統一教育課程이 各 内容 領域의 均衡있는 取扱에 效果的임을 証明하였다。

④ 本研究가 構案한 統一教育課程은 現行 反共 教育이 成功的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傳統的 価値〉와 〈統一을 위한 使命〉의 内容 領域을 補完하는 데 效果的 일 뿐만 아니라 〈共產主義〉，〈民主主義〉，〈民主主義·共產主義의 对決〉의 領域에 있어서도 現在의 反共 教育보다 效果的 이었다。

⑤ 本研究가 構案한 統一教育課程은 現行 反共 教育이 失敗하고 있는 反共에 对한 体系的인 知識을 取扱하는 데 效果的일 뿐만 아니라 態도와 批判 能力을 기르는 데도 效果的 이었다。

⑥ 現行 反共 教育도 〈傳統的 価値〉와 〈統一을 위한 使命〉의 領域을 除外한 〈共產主義〉，〈民主主義〉，〈民主主義·共產主義의 对決〉의 領域에 있어서는 本研究가 要求하는 目標 水準에 어느 程度 접근되고 있으나 体系가 없고 領域間的 연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흡한 점이였다。

⑦ 本研究가 構案한 統一教育課程은 우리가 共產主義를 지나치게 酷評하기 때문에 共產主義를 올바르게 評價할 수 없다고 하는 學生들의 固執된 思想을 바로 잡아 주는데 效果的 이었다。

⑧ 本研究가 構案한 統一教育 課程시안은 反共 教育이 時間 浪費가 아니고 꼭 必要하다는 인식을 높여주는데 공헌하였고 反共 教育에 对한 學生들의 興味를 높여주는데 效果的 이었다。

⑨ 學生들의 反共 思想 形成은 學校 教育을 통해서 더 많

이 이루어지며 反共에 대한 지식은 新聞, 雜誌, 라디오, 영화, TV 일반대화 등을 통해서 더 많이 얻어지고 있다.

⑩ 우리의 統一 方案을 잘 모르고 있는 學生이 53%나 되었으나 本研究가 構案한 教育課程이 끝난 後에는 42%로 줄었다.

⑪ 우리가 내세우는 民主 勝共 統一은 實際로 不可能하다고 믿는 學生이 48%이었으나 本研究가 構案한 統一 教育 課程이 끝난 後에는 23%로 줄었으며 實際로 可能하다고 생각하는 學生이 77%가 되었다.

⑫ 여러가지 統一方案中에서 우리의 統一方案인 人口 比例에 따른 南北 總選舉가 가장 實現이 可能하다고 믿는 學生은 24%, 國際 情勢을 보아도 不可能하지만 大韓民國이 願하지도 않는 武力으로 北한을 굴복 시키는 統一方案이 가장 實現 可能하다고 믿는 學生이 42%나 되었다. 本研究가 構案한 實驗 課程이 끝난 後에도 57%만이 人口 比例에 依한 南北 總選舉 方案이 가장 實現性 높은 것으로 믿게 되었고 18% 學生은 如前히 武力에 依한 方案을 믿고 있었다.

大部分의 學生들이 南北 統一 後에 있어서 國民 融合의 混亂을 걱정하고 있었다. (事前檢査에서 90%, 事後檢査에서 98%) 現行 反共 教育 뿐만 아니라 本研究가 構案한 統一教育 課程에서도 統一 後에 있을 國民 融合에 관한 方案이나 原則을 提示하지 못하였다.

B. 提 言

本研究의 結果로 밝혀진 事實과 結論을 土台로 本研究가 提

할하고자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 現行 反共 教育은 <傳統的 價值>, <共產主義>, <民主主義>, <民主主義 對 共產主義의 對決>, <統一을 위한 使命>의 五個 領域의 틀에 비추어 볼 때 <傳統的 價值>와 <統一을 위한 使命>의 內容 領域의 取扱이 가장 소홀하다.

따라서 이러한 領域의 補完을 통해서 다른 內容 領域과 均衡있는 取扱이 이루어 지도록 現行 反共 教育內容을 補完해야 한다.

② 現行 反共 教育 內容은 보다더 體系化하고 組織化하여야 하며 各 內容 領域間의 均衡있는 強調와 連繫를 이루도록 再組織해야 한다.

③ 現行 反共 教育은 學生들에게 体系的이고 組織的인 反共知識을 供給하지 못하고 있으며 反共 態度 및 使命感 等 情意的인 面만을 強調한다. 따라서 現行 反共 教育은 体系的이고 組織的인 튼튼한 知識의 바탕 위해 學生들의 反共 思想 및 態度가 形成될 수 있도록 보다 体系的이고 組織的인 反共 知識을 담은 內容으로 改編해야 한다.

④ 現行 反共 教育은 共產主義의 事實自体를 감춘다든가, 過少 評價 또는 酷評하는 것을 止揚하고 事實은 事實대로 바르게 가르치되 그 事實 뒤에 숨어 있는 共產主義의 나쁜점과 모순을 合理的으로 說明하는 方向으로 教育方法을 改善해 나가야 한다.

⑤ 學生들의 反共 思想은 學校 教育을 통해서 더 많이 이루어지며 反共에 관한 知識은 신문, 雜誌, 라디오, 영화, TV, 일반 대화 등을 통하여 더 많이 얻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學校에서의

反共 教育은 학생들의 確固 不動한 反共 思想을 길러주기 위하여 体系的인 反共 知識을 學生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一般 매스컴이나 雜誌, 영화등도 일단 反共 教育的인 안목에서 統制 되어야 한다.

⑥ 本研究가 構案한 統一教育課程은 各 內容 領域을 調和롭고 均衡있게 強調하고 있으며 各 行動 特性도 均衡있게 強調하고 있다. 따라서 本研究가 構案한 試案은 擴大 適用 研究를 거쳐 一般化할 것을 提案한다.

⑦ 本研究가 構案한 內容 領域의 教授를 위한 組織順序는 教育 效果와 方法上的 問題를 고려하여 充分한 研究 後에 確定해야 한다.

⑧ 本研究가 構案한 統一教育 課程을 一般化하기 위하여는 教材 開發을 위한 充分한 研究, 擴大適用, 教師의 訓練이 반드시 先行해야 한다.

⑨ 지금까지의 反共 教育에서는 學生들이 우리의 統一方案과 북한의 統一方案을 明確히 가르치는 데 失敗하였다. 따라서 明確한 우리의 統一原則과 南北韓 統一方案의 그 實現性和 虛構性을 比較分析하여 反共教育에서 提示하되 學校 水準을 고려하여야 한다.

⑩ 지금까지의 反共 教育에서 學生들의 誤導된 反共 知識 및 態度를 究明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方案의 研究가 時急히 이루어져야 한다.